

2011年 8月
博士學位論文

중국 연변 지역어 격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崔 花

중국 연변 지역어 격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Case Marker
in Yanbian region of China

2011년 8월 25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崔 花

중국 연변 지역어 격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指導教授 崔 在 喜

이 論文을 文學博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04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崔 花

최 화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윤평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옥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주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재희 (인)

2011년 0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 | |
|-----------------------------|----|
| 제1장 서론 | 1 |
| 1.1. 연구 목적 | 1 |
| 1.2. 선행 연구 | 5 |
| 1.3. 연구대상 및 방법 | 13 |
| 제2장 이론적 배경 | 21 |
| 2.1. 격의 개념 및 분류 | 21 |
| 2.2. 격조사 실현의 양상 | 25 |
| 2.2.1. 통사구조와 격조사 실현 | 25 |
| 2.2.2. 의미 기능과 격조사 실현 | 30 |
| 제3장 연변 지역어의 말뭉치 계량 및 격조사 목록 | 35 |
| 3.1. 연변 지역어 말뭉치 | 35 |
| 3.1.1. 말뭉치의 구축 | 35 |
| 3.1.2. 말뭉치의 계량 | 39 |

| | |
|--------------------------------|----|
| 3.2. 계량 결과 분석 | 45 |
| 3.2.1. 문어체의 영향으로 나타난 형태 | 45 |
| 3.2.2. 표준어에 없는 형태 | 46 |
| 3.2.3. 연변 지역어에 없는 격조사 형태 | 59 |
| 3.3. 격조사 목록 | 64 |

제4장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

| | |
|------------------------------|-----|
| 4.1. 격조사의 의미 실현 | 66 |
| 4.1.1. 주격조사 | 66 |
| 4.1.2. 목적격조사 | 68 |
| 4.1.3. 관형격조사 | 72 |
| 4.1.4. 부사격조사 | 75 |
| 4.1.4.1. 처격조사 | 75 |
| 4.1.4.2. 향격조사 | 90 |
| 4.1.4.3. 구격조사 | 95 |
| 4.1.4.4. 공동격조사 | 98 |
| 4.1.4.5. 비교격조사 | 103 |
| 4.2. 격조사의 교체 | 108 |
| 4.2.1. 구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교체 | 108 |
| 4.2.2. 향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교체 | 112 |
| 4.2.3. 처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교체 | 116 |
| 4.3. 격조사별 대명사의 형태 교체 | 122 |
| 4.3.1. 의문대명사의 형태 교체 | 122 |

| | |
|---------------------------|-----|
| 4.3.2. 인칭대명사의 형태 교체 | 130 |
| 4.3.3. 지시대명사의 형태 교체 | 133 |
| | |
| 제5장 결론 | 140 |
| | |
| <참고문헌> | 146 |

< 표 목차 >

| | |
|--|----|
| < 표 1 > 게시글의 내용 및 게시글과 게시자의 분포상황 | 18 |
| < 표 2 > 격조사를 계량단위로 구축된 말뭉치 보기 | 39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만남의 광장 중국연변카페’ 캡처 화면 | 16 |
| [그림 2] ‘깜짝새’에서 2B문서 열기 캡처 화면 | 40 |
| [그림 3] ‘깜짝새’를 이용한 처격조사 추출 결과 | 41 |
| [그림 4] 처격조사 ‘-에’, ‘-에서’의 추출 결과 | 42 |
| [그림 5] 처격조사 ‘-에’의 추출 결과 | 43 |
| [그림 6] ‘-에’, ‘-에서’ 이외의 처격조사 | 44 |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Case Marker in Yanbian region of China

Cui Hua

Advisor : Prof. Choi Jae-hee Ph.D.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aspects of the case marker of Korean which used in Yanbian region of China are examined. The language data used in this paper are gathered from the bulletin post which called 'My hometown dialect' in the café served for Yanbian region of China(<http://cafe.daum.net/cnyanbianliu>). These gathered language data are used to building corpus and the forms which estimated as case marker are extracted by using quantitative linguistic methods. And at last, the final lists of case markers are created through identifying whether theses forms are case markers or not. Through these processes, syntax function and meaning function of the case markers are analyzed and the alternation phenomenon of the case markers and pronouns.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consists of a total of 5 chapters and the detail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In chapter 2, necessary theoretical background served for the research objectives is discussed and the concepts and classifications of the case markers are assumed. Specifically, case marker, as a comprehensive concept including the syntactic relationship between predicate and noun phrases, is assumed. The nominative cases are distributed at the place of SPEC of the verb phrases, the object cases are distributed at the place of NP1 dominated by the verbs, and the genitive cases are distributed at the place of NP2 dominated by the nouns, and the adverbial cases are distributed at the place of noun phrases dominated by the verb in the mid-range. In order to making sentence composition and cases to maintain consistent, case marker, instead of assumed as title, description and supplement case marker, are assumed as nominative, accusative, genitive, adverbial case marker. In addition, considering the meaning relationship of the noun sentences and the other elements of the articles, the views of explaining the cases are assumed according to the secondary reference of the adverbial case marker. The meaning relationship of the object case markers and accusative case marker are noted mainly and adverbial case marker, based on this meaning relationship, were classified by the locative, comitative, instrumental, directive comparative case marker.

In chapter 3, the process of extracting the list of case marker in Yanbian region in China are described. As a result, ‘-이’ is concluded in the nominative case marker, ‘-으,-우’ and ‘-르’ are concluded in the accusative case marker, ‘-으’,‘-우’ and ‘-르’ are concluded in the accusative case marker, ‘-에’and‘-이’ are concluded in the genitive case marker, ‘-으’,‘-우’ and ‘-르’ are concluded in the genitive case marker, ‘-에, -메, -에서, -메서, -서, -ㄴ, -ㄴ데, -에다, -에다가, -다, -다가, -다대구, -에게, -보구, -한테, -한테서, -ㄴ데, -인데, -이데, -인데서’,are concluded in the locative case marker,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을러, -을르' are concluded in the directive case marker, '-까, -하구' are concluded in the comitative case marker, and '-같이, -마, -마이, -보다, -처럼, -처리므' are concluded in the comparative case marker.

In chapter 4, the realization respects of case marker in Yanbian region of China are discussed through meaning realization, alternative realization of case marker and alternation realization of pronoun forms categorized by case marker.

And at last, in chapter 5, the conclusions are described.

This paper has significant as a study of case marker reflecting the colloquialism in Yanbian region in China which neglected by the studies on relying on the North Korea grammar norms and the studies which take the written language as the object of the research. This paper, as an effort of discussing language used by the region actually, also shows a kind of possibility of research methods of region language using internet bulletin post. In addition, the realization aspects of case marker in Yanbian region in China are discussed specifically in this paper. This paper partly overcomes the limitation which the existing studies stop in revealing the examples through forms. However, this paper also remains the regret for not showing the underlying causes why the realization aspects of case marker appear.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중국 연변¹⁾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²⁾의 격조사 실현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에는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목록을 작성하고 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고 격조사의 교체 현상과 격조사별 명사구의 형태 교체 현상을 고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격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는 격조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격 실현에 참여하는 명사구와 동사구(서술어)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므로 범위가 상당히 넓다. 또한, 격조사나 명사구, 동사구에 대한 분석은 어휘부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적인 정보를 토대로 하고 격 실현 기제에 관해서는 통사적인 문법 모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런 지식들은 하나의 격 실현에 여러 개의 조사가 경쟁할 때 그 조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변 지역어에서 발견되는 표준어에 없는 일부 형태들을 격조사에 포괄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또한, 표준어에 있는 격조사 형태가 연변 지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런 논의는 문헌 자료에 기댄 통시적인 연구 성과들도 참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본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범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중국 지린성(吉林省)의 동남부에 있는 연변(이전의 간도 지역)에 설립된 중국 내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이다.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옌지(延吉), 투먼(圖們), 둔화(敦化), 룡정(龍井), 훈춘(暲春), 허룡(和龍) 등 6 개 시(市)와 안투(安圖), 왕청(汪淸)의 2 개 현(縣)을 관할하고 있으며, 자치주의 소재지는 옌지이다.
- 2)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중국의 통용어인 한어(漢語)를 사용하지만 지역 범위 내에서는 한국어로 대부분의 일상 대화를 진행할 정도로 언어보존이 잘 되어 있다. 즉, 이 지역은 전형적인 한국어권(韓國語圈) 지역이다. 이중 언어 화자들이고 이주민으로 구성된 집단이 사용하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가 조심스럽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를 가리키는 용어로 ‘중국 연변 지역어’를 사용하겠다. 중국 연변 지역어는 남·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발전되어 온 한국어인 만큼 다양한 방언 요소들을 아우르고 있다(최화 2010:166). 이하 ‘중국 연변 지역어’ 혹은 ‘연변 지역어’라고 칭한다.

연변 지역어에는 다음 (1)에서처럼 표준어와는 다른 형태들이 격조사의 자리에 사용 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1) 가. 대부분 교까지는 책꽂다가 두구댕기구 멋을루 몇 개만 달랑넣구서 흔들흔들하멘 서리.(=대부분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다니고, 멋으로 몇 개만 넣고 흔들흔들 하면서 다녔다)

나. 눈인데 머이 들가따.

(=눈에 뭐가 들어갔다)

다. 선새인데 가져가라.

(=선생님께 갖다드려라)

라. 그 귀한 시래기를 도투새킨데 백인단 말입니까.

(=그 귀한 시래기를 돼지에게 먹인다고요)

마. 니 가보구 온저낙에 나오라해라

(=네가 개더러 오늘 저녁에 나오라고 전해라)

(1)은 처격조사의 자리에 ‘-다가, -인데, -보구, -는데’의 형태가 실현된 예이다. 먼저, (1가)의 ‘-다가’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 뒤에 실현되어 처격조사로 기능한다. 홍윤표(1984:33-36)에서는 ‘-다가’를 처음에는 본동사로 사용되다가, 그 동사의 의미가 문맥에서 약화되어 ‘동사 어간+-어’의 구조 뒤에 나타나는 보조동사로 사용되고, 이 보조동사가 완전히 문법요소화하여 명사 뒤에 나타나 후치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또한, 한용운(2001:116)에서는 ‘-다가’가 15세기 문헌 자료에서 조사의 용법을 보인 점에 주목하여 15세기 이전에 이미 분화가 일어나 일부 동사 활용형이 조사화(助辭化)된 것으로 분석한다. 이 두 견해는 모두 ‘-다가’의 형태가 조사화된 형태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다음, (1나)의 ‘-인데’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 뒤에, (1다-라)의 ‘-인데, -는데’는 [+유정]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 뒤에 실현되어 처격조사로 기능한다. 이기갑(2003:57)에 의하면 ‘-인데, -는데’는 강원도 영동 지역어 및 경북 지역어, 육진 방언에서 나타나는데, ‘-한테’와 같은 의미로 [+유

정]의 체언 다음에 나타난다. (1나-라)에서 보다시피 연변 지역어에서 ‘-인데, -ㄴ데’는 [+유정]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 뒤에서 뿐만 아니라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 뒤에서도 실현되어 전형적인 처격조사의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1마)의 ‘-보구’는 [+유정]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 뒤에 실현되어 처격조사의 기능을 한다. 한용운 (2001:163)에 의하면 ‘-보구’는 17세기까지 동사의 활용형과 보조동사의 활용형으로만 존재하다가 18세기 무렵부터 조사의 용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형태이다. 본고는 (1)에 나타난 ‘-다가, -인데, -보구, -ㄴ데’의 형태들을 처격조사로 보고 이들 형태들이 처격을 실현하는 양상을 고찰한다.

연변 지역어에는 다음 (2)에서처럼 표준어에 있는 격조사가 이 지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

(2) 가. 썩썩개 ϕ 온다!

(=정신질환자가 온다!)

나. 상추이란아 ϕ 대다이 놀랫지므.

(=상춘이 대단히 놀랐다.)

다. 선세 ϕ 지금 너르 오란다.

(=선생님께서 지금 너더러 오라고 하셔.)

라. 우리 아버지랴 쌍발할때면 긴 따차에다 개털모자를 쓰구 땡겼지므.(=나의 아버지께서 출근하실 때면 긴 외투에 개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다니셨어.)

(2가-나)는 주어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나는 예이다. 이 경우 표준 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실현되지만 연변 지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2다-라)의 ‘선생님’, ‘아버지’는 [+존대]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이다. 표준 한국어에서는 이들 명사가 주어로 나타날 때 [+존대]를 나타낼 수 있는 주격조사 ‘-께서’가 실현된다. 하지만 연변 지역어에서 이런 명사들에 주격이 실현될 때는 ‘-께서’가 실현되지 않고 (2다)에서처럼 격조사 형태가 실현되지 않거나, (2라)에서처럼 [-존대]를 나타내는 기타 형태가 나타난다. 본고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한인(韓人)이 연변

지역으로 이주한 배경과 주격조사의 발달사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연변 지역어에는 격조사 앞에서 명사구가 형태 교체를 이루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대명사 ‘누(구)’를 예로 들면 다음 (3)과 같다.

(3) 가. 누기 봐도 머라 못할께다.

(누가 봐도 흠을 잡지 못할 것이다.)

나. 넬 집 딸인지 장하다야

(누구의 집 딸인지 장하다.)

다. 누기 엄마야?

(누구의 어머님이셔?)

라. 니 지금 누기까 노니?

(지금 너 누구와 놀고 있어?)

마. 누기까 말하지 마요.

(이 말을 누구와 꺼내지 마요.)

대명사 ‘누(가)’는 (3가)에서 주격조사의 앞에 위치하여 ‘누기’의 형태로 실현되고, (3나-다)에서 관형격조사의 앞에 위치하여 ‘넬’과 ‘누기’로 실현되고, (3라-마)에서 공동격조사의 앞에 위치하여 ‘누기’와 ‘누기’로 실현되고 있다. 본고는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명사구의 형태 교체 현상을 관찰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에 포함시킨다.

연변 지역어에는 다음 (4)와 같은 격조사 교체 현상도 나타난다.

(4) 가. 엄마 꽃부리 천으 마선으 박아서 만들어준거 입구.

(=엄마가 꽃 부리를 천으로 박아서 만들어 준 옷을 입고.)

나. 아때부터 맨날 남으 퍼줄각지를 잘하더만 지금은 개뿔두 없이 사는거 보우.

(=어릴 때부터 쪽 남에게 퍼주기만을 좋아하더니, 지금 빈털터리로 사는 것을 봐요)

(4)에서 구격조사 ‘-으로’, 처격조사 ‘-에게’가 실현되어야 할 자리에 목적격조사 ‘-으’가 나타났다. 본고는 이런 교체 현상을 문장 구조와 관련지어 고찰한다.

연변 지역어에는 하나의 격이 여러 조사들에 의해 분담되어 실현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최화(2010:193)은 연변 지역어 처격조사의 형태별 의미 기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각 자의 의미 기능을 통해 처격조사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처격조사의 대표형인 ‘-에’는 ‘장소’, ‘범위’, ‘조건’, ‘원인’의 의미 기능이 확인되었다. ‘-에서’는 ‘활동배경’, ‘출처’의 의미 기능이, ‘-에다’는 ‘놓이는 장소’, ‘결들임’의 의미 기능이, ‘-에다가’는 ‘놓이는 장소’의 의미 기능과 함께 화용론적인 ‘초점’의 의미 기능이, ‘-에가’는 ‘변경된 장소’의 의미 기능이 확인되었다. ‘-에’의 형태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처격조사 ‘-ㄴ데(인데)’는 ‘중착점’, ‘수혜자’, ‘행동주’의 의미 기능이, ‘-한테’는 ‘-ㄴ데’가 갖는 의미 기능 외에 화용론적 의미 기능인 ‘강조’의 의미 기능이, ‘-보구’는 ‘행위지시’의 의미 기능이 확인되었다. 이런 현상은 부사격에서 더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1.2. 선행 연구

본 절에서는 중국 연변 지역어 격조사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연변 지역에서 이루어진 격조사 연구는 주로 북한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런 원인으로 연변 지역의 문법서에서는 격조사를 ‘격토’라는 용어로 표시한다. ‘격토’에 관한 논의는 연변 지역에서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논의의 초점은 문법 체계에 따른 규범을 제시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격토’는 늘 ‘토’라는 문법 범주 아래에서 논의되었고, ‘격토’를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1.2.1. ‘격토’ 규범에 대한 연구

중국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규범과 격조사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문화어에 의존해 왔는바,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1977년부터 긴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법 규범과 일치시키는 원칙을 채택하였다. 실제로 학교문법은 1966년 이전에는 북한의 문법서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였는데 북한의 시기별 연구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54년까지 사이에 진행된 연구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연구로는 조선어문연구회(1949)에서 집필한 『조선어문법』이 있다. 여기서 ‘토’의 개념에는 단어의 관계적 의미를 나타내는 모든 형태가 포함되는바, 격조사, 용언의 어미, 시칭 형태, 존칭 형태 등이 모두 ‘토’에 속한다. 그리고 ‘격토’는 체언에 실현되는 문법 범주이고, 주격, 속격, 대격, 여격, 위격, 조격, 구격, 호격의 8격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격토에 ‘-가, -이, -께서, -(이)란, -(으)로서’, 속격토에 ‘-의’, 대격토에 ‘-를, -을’, 여격토에 ‘-에게, -에게다, -에게다가, -께, -한테, -더러’, 위격토에 ‘-에, -에다, -에다가, -에서, -서, -에게서, -(으)로, -에게로, -한테로, -께로’, 조격토에 ‘-(으)로, -(으)로써’, 구격토에 ‘-와, -과, -하고, -(이)랑’, 호격토에 ‘-야, -아, -(이)여, -(이)시여’가 제시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사이에 진행된 연구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연구로는 김수경(1954)의 『조선어문법론(어음론, 형태론)』이 있다. 김수경(1954)는 주격토에 ‘-가, -이, -께서, -(이)란’, 속격토에 ‘-의’, 대격토에 ‘-를, -을’, 여격토에 ‘-에게, -께, -더러, -한테, -에게다, -에게다가’, 위격토에 ‘-에, -에다, -에다가, -에서, -에게서, -한테서, -(으)로, -에게로, -한테로, -께로’, 조격토에 ‘-(으)로, -(으)로써’, 호격토에 ‘-야, -아, -(이)여, -(이)시여’, 절대격토에 영형태(ϕ)를 제시한다. 또한, ‘구격토’를 ‘격토’에서 제외시키고 접속을 나타내는 토에 포함시킨다.

세 번째 시기는 1960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진행된 연구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연구로는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0)에서 집필한 『조선어 문법1』,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63)에서 집필한 『조선어 문법2』, 김수경·김백련(1961)의 『현대조선어2』, 김수경·송서룡(1962)의 『현대조선어3』이다. 이 시기에는 ‘토’의 범위를 좁혀 ‘도움토’와 위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토’만을 ‘토’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주격토에 ‘-가, -이’, 속격토에 ‘-의’, 대격토에 ‘-를, -을’, 여격토와 위격토는 모두 ‘-에, -에게, -에서’로, 조격토에 ‘-

(으)로’, 구격토에 ‘-와, 과’, 호격토에 ‘-야, -아, -(이)여’, 절대격토로 영형태(ϕ)가 제시된다.

네 번째 시기는 1976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에 진행된 연구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 연구는 조선문화어문법편찬위원회(1976)에서 집필한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이다. 이 시기에는 모든 문법적 형태들을 ‘토’라고 하고 ‘격토, 도움토, 종결토, 접속토, 규정토’ 이외에 시칭, 존칭, 복수, 상의 형태도 ‘토’로 본다. 여기서 ‘격토’로 주격토에 ‘-가, -이, -께서’, 대격토에 ‘-를, -을’, 속격토에 ‘-의’, 여격토에 ‘-에게, -에, -께’, 위격토에 ‘-에게서, -에서’, 조격토에 ‘-(으)로, -(으)로서, -(으)로써’, 구격토에 ‘-와, -과’, 호격토에 ‘-(이)여, -야, -아’가 제시된다.

중국에서 자체로 편집한 문법서는 연변교육출판사 조문편집실(1984)에서 편찬한 『중학생조선어실용문법』이 처음이다. 이외에 대학교 교과서로 사용되던 문법서들이 있는데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조(1972)에서 편찬한 『조선어문법(형태론)』, 연변대학 중문학부 조선어교연조(1974)에서 편찬한 『조선어문법』, 최윤갑(1980)의 『조선어문법』, 서영섭(1981)의 『조선어실용문법』, 차광일(1981)의 『조선어토대비문법』 등이 포괄된다. 이 가운데서 차광일(1981)을 예로 들어 이 시기 연변 지역에서 격조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차광일(1981)에서는 격조사를 ‘토’의 한 범주로 보고 ‘격토’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주로 단어의 어간에 붙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를 토라고 하고 품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격토’는 ‘체인토’에 분류되고 문장성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위치적 토’에 속한다고 본다.³⁾ ‘격토’는 크게 여덟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주격에 ‘-가, -이’, 대격에 ‘-을, -를’, 속격에 ‘-의’, 여격에 ‘-에게, -께, -더러, -한테’, 처격에 ‘-에, -에서, -에게서, -께서, -한테서, -(으)로’, 향격에 ‘-(으)로서’, 공동격에 ‘-와, -과, -하고’, 호격에 ‘-(이)시여, -(이)어, -야, -아’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합성격토’로 ‘위위격토’에 ‘-에로’, ‘위속격토’에 ‘-에서의’, ‘조속격토’에 ‘-(으)로서의’, ‘위위속격토’에 ‘-에

3) 체인토에는 ‘격토, 복수토, 도움토’가 있고 용언토에는 ‘이음토, 맺음토, 상토, 존칭토, 시칭토’가 있다. 이외에 바꿈토를 설정하고 바꿈토의 일부(체언의 용언형)는 체언토로, 일부(용언의 체언형)는 용언토로 보았다. 또한, 위치적 토에는 ‘격토, 이음토, 맺음토’, 비위치적토에는 ‘복수토, 도움토, 상토, 존칭토, 바꿈토’, 시칭토의 일부(규정어시칭토)는 위치적 토, 일부(술어 시칭토)는 비위치적 토로 보았다.

로의’, ‘구속격토’에 ‘-와의, -과의’, ‘위구격토’에 ‘-에서와’를 제시한다. 보다시피 이런 문법서들 역시 북한 문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2.2. ‘격토’에 관한 근래의 연구 동향

연변 지역어 격조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근래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중 본고에서 주목한 연구 성과는 북한의 문법 규범에 바탕을 둔 연구인 김기종·리영순(2006), 격 문법 이론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인 필옥덕(1993), 연변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전영근·최희수(2000), 리윤구(2003), 정향란(2008)등이다. 아래에 이들 연구 성과를 검토하는 것을 통하여 연변 지역 격조사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1.2.2.1. 북한 문법 규범에 바탕을 둔 연구

김기종·리영순(2006)은 북한의 문법 규범에 바탕을 둔 연구이다. 이는 전통문법적인 견지에서 격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김기종·리영순(2006)은 격조사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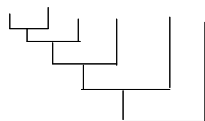
첫째, 격을 대상성을 가진 단어(체언)이나 그 밖의 단위가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나 그 밖의 단위와 맺는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문법적 뜻과 문법적 형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격 범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문법적 뜻’을 문법적 형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격조사가 서술어에 따른 의미, 격조사와 결합된 명사구에 의한 의미, 화용론적 의미, 수사학적 의미를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고 포괄시킨다. 예를 들면 ‘대격’의 문법적 의미를 설명할 때 서술어에 따른 의미인 ‘행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대상’을 포괄시키고 또 격 형태와 결합된 명사구에 따른 의미인 ‘시간, 분량, 횟수’, 화용론적 의미인 ‘강조’, 수사학적 의미인 ‘성구론적 표현’도 포괄시켰다. 또한, 문법적 형태는 ‘격 형태’라고도 하는데 ‘격토’로 나타난다. ‘격토’는 격범주를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격토’에 절대격⁴⁾을 포함하여 주격, 대격, 속격, 여격, 위격, 조격, 구격, 호격의 아홉 가지를 포함시킨다. 여기서 주격, 대격, 속격, 절대격은 한국에서 분류된 격조사와 같은 맥락이다. 여격과 위격은 한국의 ‘처격’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분류한 것인데, 여격에는 ‘-에, -에게, -께’가 포함되고 위격에는 ‘-에서, -에게서’가 포함된다. 그리고 조격은 한국의 ‘구격’과 ‘향격’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로, -로서, -로써’가 포함된다. ‘구격’은 한국의 공동격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와/과’가 포함되었다. 또한, ‘호격’을 설정하고 ‘-야/아, -여, -시여’를 포함시킨다.

둘째, 한 개의 명사구에 두 개 이상의 격조사가 함께 결합되는 현상도 언급된다. 이때 앞에 오는 격조사는 그 조사의 기본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뒤에 오는 격조사는 통사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문장에서의 위치를 결정해준다고 본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격조사가 연달아 나타날 때 그 순서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에게’는 ‘-가’, ‘-를’, ‘-의’, ‘-로’, ‘-와’와 결합 할 때 반드시 앞에 온다.

셋째, 격조사가 기타 조사들과 함께 나란히 놓일 때 엄격한 배열 제약이 있다고 지적하고 ‘어간+복수토+격토+도움토+격토+도움토’의 순서를 제시한다. 그 예는 다음 (5)와 같다.

(5) 학생 들 로 만 으로 도



(5)에서 ‘복수토’는 ‘-들’을 가리키고 도움토는 ‘특수조사’인 ‘-만, -도’를 가리킨다. (5)에서 보면 특수조사는 격조사의 앞에 붙는 경우와 뒤에 붙는 경우에 모두 존재하여 격조사 ‘-으로’의 앞뒤에 동시에 나타난다.

4) 다른 격들이 각각 그에 맞는 격토를 가지는데 반해 절대격만이 아무런 토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로써 한 격형태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형태를 ‘령형태’ 또는 ‘소극적 형태’라고 명명하였다(김기종·리영순 2006:168).

1.2.2.2. 서구의 격 문법 이론을 도입한 연구

연변 지역의 격조사 연구는 전통문법에 기반을 둔 북한 문법 규범에 많이 의존하였다. 따라서 전통문법 단계를 벗어나는 구조주의 문법적 견지에서의 격의 연구나 변형 생성 문법적 견지에서의 격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래에 이런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는데 대표적인 성과가 필옥덕(1993)이다.

필옥덕(1993)은 격문법 이론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자연언어 분석 기술로 ‘내면격 문법’을 주장하면서 22개의 내면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작주격에 ‘-가, -이, -는, -은, -께서, -도, -조차, -까지, -마저’, 반동작주격에 ‘-에게, -한테, -께’, 수동자격에 ‘-을, -를, -는, -은, -가, -이, -께서, -도, -조차, -까지, -마저’, 수량격에 ‘-을, -를, -가, -이’, 수익격에 ‘-에게, -한테, -에, -께’, 결과격에 ‘-(으)로, -가, -이’, 도구격에 ‘-(으)로, -(으)로써’, 자격격에 ‘-(으)로, -(으)로서’, 방향격에 ‘-(으)로, -에게로, -한테로, -에로, -께로’, 원인격에 ‘-(으)로, -에’, 목적격에 ‘-에’, 기준격에 ‘-에’, 조건격에 ‘-에’, 시간격에 ‘-에, -로’, 장소격에 ‘-에서, -에, -에게, -께’, 출발격에 ‘-부터, -(으)로부터, -에서, -에게서, -한테서, -께서’, 종점격에 ‘-까지’, 루격에 ‘-에’, 발생격에 ‘-에서, -에게서, -한테서, -께서’, 공동격에 ‘-와, -과’, 비교격에 ‘-보다, -처럼, -만큼’, 인용격에 ‘-(이)라고’가 제시된다.

이 연구는 북한 문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연변 지역에 서구의 격문법 이론을 소개한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격문법 이론에 의한 연변 지역어의 깊이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2.2.3. 연변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방언학적 연구

중국 연변 지역어를 자료로 한 격조사의 연구도 간간히 나타났는데 전영근·최희수(2000), 리윤구(2003), 정향란(2008)이 대표적이다.

전영근·최희수(2000)에서는 계량학적으로 잡지에서의 ‘격토’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격토’에는 주격토 ‘-가, -이’, 위격토 ‘-에서, -에게서’, 대격토 ‘-을, -를’, 조격토 ‘-(으)로, -(으)로서’, 속격토 ‘-의’, 구격토 ‘-와, -과’, 여격토 ‘-에, -

에게’, 호격도 ‘-아, -(이)야, -(이)여’ 등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격토’ 규범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연변 지역에서 출간된 잡지를 연구 자료로 삼아 연변 지역어 ‘격토’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려고 한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구어(口語)와는 거리가 먼 자료를 연구 자료로 선택하여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제적인 실현 양상을 고찰하지 못하였고, 고찰 대상인 격조사 목록은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리운구(2003)에서는 ‘중국 조선어’의 조사에 나타나는 방언 요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여기에는 격조사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는데 연변 지역어와 관련된 화룡현 아동지역의 격조사 실현 양상을 예를 들어 보겠다. ‘주격토’의 실현 양상에서는 ‘-가’가 실현될 자리에 ‘-이’가 실현되는 현상과 주격조사 ‘-이’가 ‘-이가’의 형태로 실현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여격토의 실현 양상에서는 ‘-에게’ 대신 ‘-께’가 실현되는데 여기서의 ‘-께’가 높임의 의미를 표시하지 않는 현상이 주목된다. 그리고 대격토가 ‘-을, -를’의 형태가 아닌 ‘-으, -르’의 형태로 실현되는 현상, 위격토 ‘-에서’가 ‘-서’로 실현되는 현상, 조격토 ‘-로, -으로’가 ‘-루, -으루, -르, -르루, -으르, -을루, -을르’로 실현되는 현상, 속격토가 ‘-의’가 아닌 ‘-에, -이’의 형태로 실현되는 현상, 구격토가 ‘-와, -과’가 아닌 ‘-가, -까, -하구’의 형태로 실현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이 연구는 연변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한국어 조사의 실현 양상을 반영하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조사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예문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러 격조사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을 안고 있다.

정향란(2008)은 중국 연변 용정 지역어의 곡용과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는 ‘곡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용정 삼합진(三合鎮)에서 총 네 분의 제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언어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격조사를 주격, 속격, 대격, 보격, 처소격, 여격, 구격, 공동격, 비교격, 인용격, 호격, 원인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주격조사에는 ‘-이, -께서’, 대격조사에는 ‘-으, -르, -르’, 속격조사에는 ‘-에, -으’, 처격조사에는 ‘-으, -르, -에, -에서, -서, -에다(가)’, 여격조사에는 ‘-는데, -인데, -에게(다), -데(다), -보구’, 구격조사에는 ‘-을르, -르르, -르’, 공동격조사에는 ‘-가, -까, -

이라메, -라메’, 비교격조사에는 ‘-보다, -마이, -마, -처리’, 인용격조사에는 ‘-이라구, -라구’, 호격조사에는 ‘-아, -야, -이, -에’, 원인격조사에는 ‘-올래(서)’가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연변 지역어를 직접 조사하여 격조사의 형태, 음운적 실현 양상을 고찰한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격조사들의 형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본고는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연변 지역어가 학교 규범이나 문법 연구에서 지나치게 북한에 기댄 점이 이 지역어에 대한 문법 연구에서 한국(남한)의 연구 성과들을 영입(迎入)하여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⁵⁾ 특히, 문법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격 및 격조사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구어(口語)와는 거리가 먼 자료를 연구 자료로 선택하여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제적인 실현 양상을 고찰하지 못하였고, 고찰 대상인 격조사 목록은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형태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셋째, 대부분 연구가 연변 지역어 격조사 형태를 제시하거나 조사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예문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격조사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을 안고 있다.

넷째, 연변 지역어 격조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양적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는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연변 지역어 격조사 실현 양상을 고찰하려고 한다.

5) 한·중 수교 후 연변 지역 한국어 사용자들은 서울 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어휘의 사용에서 그 영향을 실감할 수 있는데 이 연구와 관련하여 통사적인 영향을 살펴봤을 때 아직 미미하여 주의를 불러일으킬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된 문법 연구의 성과에 기대어 연변 지역어들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지역어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어를 가리킨다. 따라서 지역어의 연구도 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상적인 발화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어 조사 방법은 해당 조사 내용이 그 지역 전체의 언어에서 양적, 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관찰자가 제보자의 일상어를 관찰하기 위한 노력과 제보자가 관찰자를 의식하여 자신의 언어를 통제하는 행위 사이의 모순이 존재하며 비용도 많이 든다.

본고는 지역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지역어 조사 방법을 제안한다. 인터넷 게시글은 관찰자(또는 연구자)를 의식하지 않은 화자들의 언어를 짧은 시간 내에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상어와의 ‘괴리’ 현상을 걸러내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래에 인터넷 게시글이 지역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1.3.1. 연구 대상

1.3.1.1. 지역어 연구를 위한 인터넷 게시글의 이용 가능성

인터넷 게시글에서 지역어를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인터넷 게시글의 특성과 결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즉 인터넷 게시글이 일상어⁶⁾와의 유사점이 많아야만 가능하다.

일상어는 화자와 청자가 일상생활(비격식적인 환경)의 어느 한 시공간에서 언어적 수단과 비언어적 수단⁷⁾을 모두 동원하여 서로 교류하면서 이루어진다. 일상어는 친교적, 표현적 기능이 중시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인터넷 게시글은 일상어와 비슷한 세 가지 특성이 있다.

6) 여기에서는 격식적인 언어를 제외한 언어를 가리킨다.

7) 표정, 몸짓 등 일련의 제스처를 가리킨다.

첫째, 인터넷 게시글의 언어 환경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속도성과 양방향성의 특성이 있다. 이정복(2003:49)에서는 인터넷 언어의 빠른 전달성, 즉시성, 기존의 대중 매체⁸⁾와 달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양방향성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특성을 지적한다. 이런 양방향성의 특성은 ‘대화(對話)’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인터넷 게시자(화자와 청자)는 기타 물리적 실체와 함께 은폐되어 나타난다. 은폐의 결과 화자들 사이에는 익명성과 평등성이 보장되어 비격식적인 언어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환경에서는 누구나 담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언어로는 음성, 표정과 동작을 직접 보여줄 수 없다. 따라서 자판의 부호나 특수 문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담화자의 심리적 상태나 대상의 묘사, 그리고 언어적 표현까지 기호화하고 있으며 상징어(의성어, 의태어)도 나타난다(임규홍 2000:41).

셋째, 인터넷 언어는 일상어의 특성과 일상어와 괴리한 언어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일상어와의 괴리 현상을 임규홍(2000:35-40)에서는 맞춤법의 파괴 현상을 예로 들어 반형식주의에 기반한 ‘탈규범성’으로 해석한다. 또한, 화제(話題)와 언어 형태의 다양성도 지적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話題)는 선택에 따라 공간과 시간을 넘어설 수 있고 화자가 쉽게 바뀌면서⁹⁾ 이야기 폭도 넓어지고 다양해진다. 게시판에는 과거의 언어 표현¹⁰⁾, 여성어¹¹⁾, 아동어, 방언, 은어, 비속어, 외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나타난다. 이런 현상들을 신희삼(2004:210-211)에서는 전통의 거부로 해석한다. 인터넷 게시글에서 표준어가 아닌 일상어를 고집하는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터넷 게시글에서 일상어의 특징이 어떻게 체현되는지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터넷 게시글은 비격식적인 언어이다. 인터넷 게시글은 은폐성을 토대로 한 익명성, 평등성에 근거하여 비격식적인 언어의 형태를 보장 받는다. 또한, 반형식주의, 전통의 거부에 의존하여 비격식적인 언어의 형태를 고집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의

8)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을 가리킨다.

9) 청자와 화자의 자리가 쉽게 넘나든다.

10) 현재 시점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언어를 가리킨다.

11) 비격식 높임의 ‘-어요’체의 사용을 대표로 하는 일련의 언어현상을 가리킨다.

화자와 청자는 비격식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대화의 내용과 분위기,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대화를 진행한다. 이는 일상어의 언어 환경보다 더 자유로운 언어 환경이다.

둘째, 인터넷 게시글은 동일한 공간에서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특성은 대화의 동시성(同時性)을 보완 받게 해준다. 인터넷 언어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어떤 하나의 화제(話題)를 갖고 이루어진다. 따라서 비록 게시글에 참여하는 시간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화제와 동일한 인터넷 공간은 대화의 생생한 분위기를 보장해준다. 이런 대화 분위기는 현장감을 조성하여 일상어와 같은 효과를 준다. 또한, 인터넷 게시글은 매체의 특성상 화제의 선택에 따라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는 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자리가 쉽게 호환(互換)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는 일상어에서 말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의미한다. 더욱이 일상어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는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보완하여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 게시글은 친교적, 표현적 기능을 중시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글은 주로 재미와 오락성, 친목성(親睦性)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¹²⁾ 이는 일상어의 화제와 비슷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게시글은 일상어의 특성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하여 일상어를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글은 구어체 형식의 문장 언어이기 때문에 음장, 악센트와 같은 초분절적 음운 요소를 표현하는 데서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글을 조사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분절적 음운 요소에 대한 연구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제의 특성과 반형식주의의 정도로 말미암아 연구 목적과 걸맞은 인터넷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한다면 지역어 조사방법의 한 대안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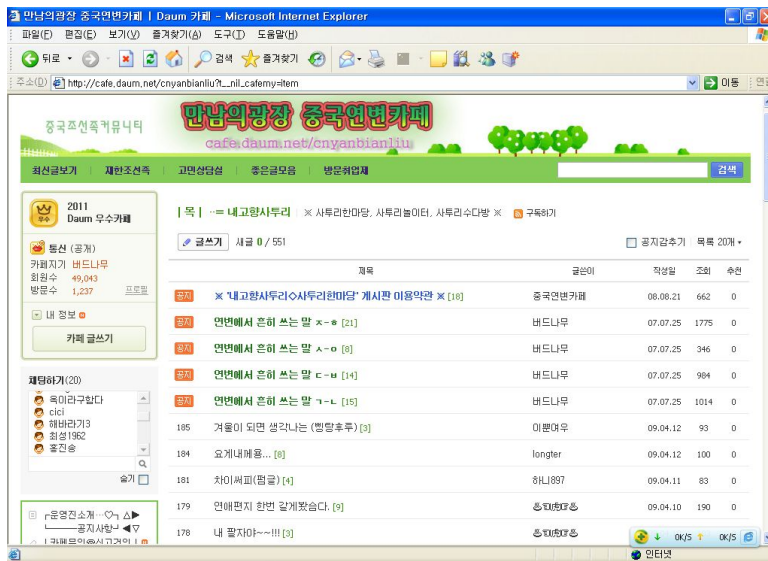
12) 인터넷 게시글에는 교육성, 평론성의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격식체의 범주에 속하므로 일상어를 연구하는 작업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1.3.1.2. 지역어 연구를 위한 인터넷 게시글의 조사 방법

인터넷 게시글에 의하여 일상어를 수집할 때, 어떤 게시판이 연구 대상으로 되기에 적합하고, 어떤 ‘게시자’와 ‘게시글’이 연구 대상으로 되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인터넷 게시판의 문제부터 살펴본다. ‘인터넷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커뮤니티, 자료 공유, 오락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회원들 사이의 ‘친목성’을 전제로 진행된다. 친목성을 쌓게 되는 원인은 공유하고 있는 취미(趣味), 직업과 같은 관심사에 의해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출신 지역이나 학교와 같은 성장배경(成長背景)에 의해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인터넷 게시판’은 이렇게 자기만의 ‘친목성’을 내걸고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데서 일상어를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선택할 때는 해당 지역 공동체를 ‘친목성’으로 하는 게시판을 선택하면 된다.

본고는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에 개설된 게시판 ‘내고향사투리’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는 한국 ‘다음’ 홈페이지에 개설된 카페로서 회원수가 49,043 명에 달한다¹³⁾. 그 화면을 캡처해서 보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만남의 광장 중국연변카페’ 캡처 화면

13) 2011년 기준.

이 카페에서 회원들은 자료를 공유하고 동아리를 조직하고 게임과 오락을 즐긴다. 특히 이 연구의 자료 출처인 ‘내고향사투리’ 게시판은 연변 지역을 고향으로 하는 회원들이 향수를 나누고 정감을 교류하는 열린 장(場)이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의 언어 환경과 연변 지역 출신들의 모임이라는 친목성이 뚜렷한 언어 환경, 더욱이 ‘연변사투리’를 전제로 한 게시글이라는 조건들은 연변 지역어의 직접 발화를 수집한 자료 못지않은 의의를 가진 언어 자료이다. 따라서 게시판 ‘내고향사투리’는 현실에서 연변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정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 ‘게시자’와 ‘게시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인터넷 언어에서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게시판’의 성격과 ‘게시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게시자’가 연구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게시판’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미 검토하였다시피 해당 게시판의 ‘친목성’을 근거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즉, 해당 지역을 ‘친목성’으로 전제한 게시판에 참여한 회원들은 대체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타 지역 출신들의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 출신 회원일지라도 그 지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고, ‘게시글’의 내용은 해당 지역어를 관찰하기 용이한 주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익섭(2004:58)에서는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평소 쓰는 대로의 언어 상태를 파악하는 일인데 관찰자의 모순(Observer’s Paradox)¹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극복방안으로 피 관찰자의 격식적인 면담 밖에서의 말, 제3자의 이야기,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아닌 말, 어린 시절의 노래 및 습관,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면담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언어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일상어를 조사할 때도 유효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된 언어 자료를 찾아내야 한다.

14) 조사자(調査者)가 앞에 있는 면접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말투가 사라지고 긴장하고 조심스러워 하는 말투가 쓰이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관찰자의 모순(Observer’s Paradox)이다(이익섭 2004:58).

본고는 상술한 선별 조건에 근거하여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의 ‘내고향사투리’ 게시판의 게시글에서 언어 자료를 추출하였다. 또한, 이익섭(2004)에서 제시한 관찰자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로 된 것을 선택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내용을 표로 보이면 <표 1>과 같다.

<표 1> 게시글의 내용 및 게시글과 게시자의 분포 상황

| 주제 | 게시글 | 게시자 (아이디) | 비율 |
|-----------------|------------|--------------|-------------|
| 놀랐던 이야기 | 1편 | | 1.3% |
| 외로움 호소하기 | 1편 | | 1.3% |
| 부탁하기 | 1편 | | 1.3% |
| 직접 연변 지역어 제시 | 2편 | | 2.6% |
| 유머 | 2편 | | 2.6% |
| 고민 털어놓기 | 3편 | | 3.9% |
| 말실수에 관한 이야기 | 4편 | | 5.3% |
| 연애, 혼인에 관한 이야기 | 5편 | | 6.6% |
| 어릴 때 이야기 | 6편 | 5 | 7.9% |
| 길에서 있었던 일 | 6편 | | 7.9% |
| 제3자의 이야기(고향) | 8편 | | 10.5% |
| 먹을거리 늘어놓기 | 8편 | 7 | 10.5% |
| 화가 났던 이야기 | 9편 | | 11.9% |
| 안부 전하기 | 9편 | 8 | 11.9% |
| 연변어 버전으로 ‘번역’하기 | 11편 | 10 | 14.5% |
| 합계 | 76편 | 61 | 100% |

*‘게시자’란의 빈자리는 게시글의 수와 일치함을 표시한다.

** ‘비율’은 해당 게시 내용이 전체 게시글에서 차지하는 백분비를 말한다.

<표 1>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작성된 게시글을 수집한 언어 자료의 내용 분포이다. <표 1>에서 보면, 수집대상에 포함된 아이디는 총 61개이고 게시글은 총 76편이다. 따라서 양(量)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게시자’란에 숫자를 따로 표기하여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게시자가 얼마나 편중(偏重)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이야기’를 내용으로 한 게시글은 6편이고, 게시자는 5명이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한 명의 게시자는 두 편의 게시글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게시자가 여러 개 주제의 게시글을 발표함으로써 편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반 조사 내용에서 개별 게시자가 차지하는 편중의 정도를 게시글과 게시자의 수량의 차이로 보여주었다. 즉, 전체 ‘게시글’이 76편이고 ‘게시자’가 61명이면 15편의 게시글은 게시자가 중복됨을 표시한다. 그중 게시자가 동일한 주제에서 반복되어 나타난 경우는 ‘어릴 때 이야기’, ‘먹을거리 늘어놓기’, ‘안부 전하기’, ‘연변어 버전으로 번역하기’등 네 개 주제이고 총 4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11편은 동일 게시자가 여러 개 주제의 게시글을 발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본고의 언어 자료는 ‘게시내용’이나 ‘게시자’ 면에서 모두 큰 편중을 보이지 않고 비교적 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의 ‘주제’는 한국어로 된 이야기나 노래가사를 연변어로 바꾸어 말하는 내용이 14.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놀랐던 이야기, 외로움을 호소하기, 부탁하기 등 내용이 1.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기타 내용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의 순위로 각각 안부 전하기, 화가 났던 이야기, 먹을거리에 관한 이야기, 제3자의 이야기, 길에서 있었던 일, 어릴 때 이야기, 연애와 혼인에 관한 이야기, 말실수에 관한 이야기, 고민 털어놓기, 직접 연변 지역어를 제시한 내용, 유머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관찰자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에 부합된다. 따라서 연변 지역어가 자연스럽게 구사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의 언어 환경과 연변 지역 출신들의 모임이라는 친목성이 뚜렷한 언어 환경, 더욱이 ‘내고향 사투리’를 전제로 한 게시글이라는 조건들은 연변 지역어의 직접 발화를 수집한 자료 못지않은 의의를 가진 언어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수집한 중국 연변 지역어 자료는 게시자(아이디)별로 한글 문서에 정리되어 표집단위로 사용된다. 이 표집단위는 다시 본 연구에 적절한 말뭉치로 구축되고 연변 지역어 격조사 실현 양상을 분석하는 데 용이(容易)하게 이용된다.

1.3.2. 연구 방법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연구 목적은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술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본다. 격조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일관된 입장은 지역어들에서 나타나는 격조사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에 필수적이다. 본고가 중국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어 격조사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어 격의 개념과 분류, 통사구조와 격조사 실현의 관계, 의미요소와 격조사 실현의 관계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밝혀 연변 지역어 격조사 실현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3장에서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연변 지역어를 조사·수집(調査·收集)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한 말뭉치를 구축한 다음 계량언어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격조사로 간주되는 형태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들 형태들은 검토하는 것을 통하여 연변 지역어 격조사 목록을 작성한다. 이는 4장에서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4장에서는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 첫째, 격조사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명사구와 서술어 각각의 의미자질을 분석하거나 이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고찰한다. 둘째, 격조사의 교체 양상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부사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교체 양상을 심층구조와 표층구조의 차이를 통하여 고찰한다. 셋째, 격조사별 대명사의 형태 교체 양상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대명사를 의문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로 분류하고 이들 대명사가 격조사 앞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고찰한다.

5장에서는 전반 논의를 정리하여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고찰을 마무리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한국어의 격조사는 한국어 문법 연구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이론의 변천과 함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꾸준히 검토되고 있다.¹⁵⁾ 그렇다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격조사에 대한 논의는 통일된 견해를 이루지 못하였다. 격조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일관된 입장은 지역어들에서 나타나는 격조사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과 아울러 본고의 입장을 밝혀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1. 격의 개념 및 분류

본고에서 상정할 격의 개념과 분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연변 지역어로 된 데이터에서 격조사를 찾는 작업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격조사 목록을 추출하고 그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말뭉치 구축의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 둘째,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을 분석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고는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격의 개념과 분류를 상정하려고 한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격 개념과 분류 방법이 제시되었다.¹⁶⁾ 특히 격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에서 주로 격 개념과 분류에 관한 내용들을 집중

15) 격조사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성과는 임동훈(2002), 채완(2006)에 정리되어 있다. 임동훈(2002)에서는 2000년 이전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격의 성격과 범위, 격조사의 통사적 지위와 분류, 결합 제약, 조사의 의미와 기능, 격조사구의 성격, 격조사의 역사적 변화, 특수조사 등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채완(2006)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표된 격과 조사에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격의 개념과 범주 설정, 격의 이론, 격조사의 형성, 격조사 교체, 격조사의 범주적 특성, 개별 조사의 기능, 격조사 중출, 복합조사의 설정과 목록, 조사의 배열순서, 특수 텍스트에서의 조사의 쓰임, 개별 조사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방언의 격조사, 한국어 교육에서의 격조사, 북한 문법의 토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다.

16) 홍중선(1999:83)은 초기의 전통 문법에서는 격을 인식하여 그 범위와 분류에 관심을 가지고 격조사의 형태를 찾았고, 구조주의 시대에는 전통 문법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격의 상관관계, 격조사의 변이 형태

적으로 다루었다.

한국어의 격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김규식(1908), 최현배(1937), 허웅(1983)을 든다. 이 삼자의 견해상의 관계를 정리하면 김규식(1908)은 격을 연구함에 있어서 의미적인 기능에 중심을 둔 반면, 최현배(1937), 허웅(1983)은 문법적인 관계에 중심을 두었다. 그리고 최현배(1937)은 격 연구에 체언과 서술어와의 관계 외에도 체언과 체언의 관계까지 포함시키고 허웅(1983)은 체언과 서술어와의 관계만을 포함시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규식(1908)은 “격(格)의 변체(變體)라 함은 명사가 타사자(他詞字)와 여하관계(如何關係)되는 자격(資格)을 시(示)한 것을 운(云)함”이라고 정의하여 체언이 문장 속의 다른 요소에 대하여 가지는 일정한 자격을 ‘격’이라고 한다. 그리고 격을 주격, 관형격, 목적격, 지명격(指名格), 원인격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¹⁷⁾ 이 견해는 조사가 가지는 의미적 기능의 수만큼 격을 설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로는 이희승(1949)에서 격을 주격, 호격, 목적격, 여격, 관형격, 상대격, 탈격, 처소격, 향진격, 유래격, 사용격, 변성격, 원인격, 자격격, 비교격, 동류격, 동반격, 열거격의 열여덟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이런 견해의 문제점은 수량상의 불일치로 인해 격과 문장성분의 일탈(逸脫) 현상을 초래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최현배(1937)은 “임자씨 아래에 붙어서 그 임자씨가 월(文)의 짝조각(組成分)으로서의 일정한 자리를 얻게 하는 토”라고 정의하고 “낱말이 월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다만 임자씨에 한할 것이 아님은 명백한 일이다”고 보충한다. 이는 체언이 문장성분으로서 핵(核,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대하여 갖는 문법적 관계를 ‘격’이라고 정의한 것인데 핵에 체언을 포함시킨 것이 주목된다. 그 격의 분류를 보면 주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보격(補格)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여기서 부사격은 다시 처소격, 기구격(器具格), 비교격, 여동격(與同格), 변성격(變成格), 인용격, 목적격으로 나뉜다.¹⁸⁾ 이 견해는 한국어의 핵이 두 가지로 나타

등을 살펴며 격의 체계성과 격의 기능에 유의하였고, 생성 문법이론에서는 심층구조에서 존재하는 심층격과 표층구조로 나타나는 표면격을 설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7) 주격에는 ‘-이, -가, -은’, 관형격에는 ‘-의’, 목적격에는 ‘-을, -를’, 지명격에는 ‘-에게, -께, -한테, -더러’, 원인격에는 ‘-(으)로’가 포함된다.

18) 주격에는 ‘-이, -가, -께서, -께옵서, -에서’, 관형격에는 ‘-의’, 호격에는 ‘-야, -여, -아, -이여, -시여’, 보격

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허용(1983)은 “자리(격)이란 임자씨가 한 짜임새 안의 다른 월 성분과 맺는 관계를 말함이니, 자리토씨(격조사)란 그러한 기능을 임자씨에 가지도록 하는 토씨란 뜻이다”고 정의하여 체언이 서술어에 대하여 갖는 문법적 관계만을 ‘격’으로 정의한다. 이 견해는 관형격, 공동격을 한국어의 격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본고는 상술한 견해들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 첫째, 격은 서술어와 명사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근거하면 주격, 목적격, 부사격의 분류는 타당성을 얻게 된다. 둘째, 문장성분과 격의 분류를 일치시키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근거하면 서술어와 명사구와의 관계를 벗어나는 관형격도 타당성을 얻게 된다. 셋째, 명사구와 기타 문장 요소와의 의미관계로 격을 설명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동일한 격 범주 안에 있는 여러 격조사 형태들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부사격이라는 범주 아래 ‘치격’, ‘공동격’, ‘향격’, ‘구격’, ‘비교격’과 같은 하위분류가 가능하게 된다. 본고는 상술한 내용들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용하여 격의 개념을 상정하려고 한다.

먼저, 서술어와 명사구의 관계로 격을 설명하는 견해를 받아들인다. 이때 관형격을 예외적인 경우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문제는 명사구가 서술어의 논항(명사구)와 갖는 통사적인 관계도 포괄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다음, 문장성분과 격을 일치시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 이때 ‘호격’, ‘서술격’, ‘보격(補格)’의 설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본고는 ‘호격’, ‘서술격’, ‘보격(補格)’을 설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호격’은 문장에서 독립성분으로 존재하는 명사구에 가능한 격인데, 독립성분은 서술어나 서술어의 논항과 모두 관계를 맺지 못하는 점을 빌어 제외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면 ‘영희야, 순희가 간다’에서 독립성분인 ‘영희’는 서술어 ‘가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다’의 논항과도 관계

에는 ‘-가, -이’가 포함된다. 그리고 부사격의 처소격에는 [+중착점]을 나타내는 ‘-에, -에서, -에게’, [+출발점]을 나타내는 ‘-에서, -서’, [+향방]을 나타내는 ‘-(으)로’가 포함되고 기구격에는 ‘-로, -로써’, 비교격에는 ‘-와, -과, -처럼, -같이’, 여동격에는 ‘-와, -과, -하고’, 변성격에는 ‘-가, -(으)로’, 인용격에는 ‘-라고, -이라고, -라’, 목적격에는 ‘-을, -를’이 포함된다.

를 맺지 못한다. 이는 서술어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서술어의 논항과는 관계를 맺는 관형어와 구별된다. 관형어의 경우 예문 ‘순희가 영희의 학교에 간다’에서 ‘영희’는 서술어 ‘가다’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지만, ‘가다’의 필수 논항인 ‘학교’와 관계를 맺으면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본고는 ‘관형격’은 설정하되 ‘호격’은 제외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서술격’은 ‘명사+이다’구문에서의 ‘이다’를 가리키고 ‘보격’은 ‘명사+이+되다’구문에서의 ‘-이’를 가리킨다. 본고는 ‘서술격’이 서술어에 강하게 의존되고 불가분되는 특성을 이유로 격 범주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서술격구문’과 ‘보격구문’으로 불리는 이런 성분은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한다. 따라서 본고는 격을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으로 상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2.1.에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명사구와 기타 문장 요소와의 의미관계로 격을 설명하는 견해를 부사격의 하위분류의 기준으로 상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2.2.에서 논의한다.

본고의 이런 입장은 격의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적인 기능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홍중선(1999), 성광수(1985), 최재희(2004)에 의해서도 그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홍중선(1999:85)에서는 “국어에서는 전통적으로 격의 범위를 문장의 모든 성분에서 체언으로 좁혀왔으며, 이들 성분의 문법적 기능을 위주로 하되 의미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였다”고 하였다. 성광수(1985:257)은 격을 일정한 정의로만 정의하기 어렵고 격의 형태는 변별적인 분류로 확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격의 대표적인 세 가지 분류기준을 제시한다.¹⁹⁾ 본고에서 상정한 격의 개념과 분류는 그중의 통사론적 격에 해당된다. 최재희(2004)도 순수하게 문법적인 관계만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격과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격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자를 통합하여 접근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이렇게 상정된 격의 개념과 분류는 연변 지역어의 격 실현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격의 실현 형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문장성분인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에 주목하여 일차적으로 대체적인 격조사 형

19) 그 세 가지는 구문 성분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통사론적인 격(syntactic case: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격의 형태나 의미에 의한 형태론적인 격(morphological case: 명격, 속격, 여격, 대격), 의미론적 격(semantic case: 위격, 구격, 객격, 달격, 처격 등)이다.

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변 지역어로 된 말뭉치를 구축함에 있어서 계량단위와 그 식별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2.2. 격조사 실현의 양상

본 절에서는 격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본고의 입장이 구체적인 격 실현을 분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이는 4장에서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실현의 양상을 분석하는 이론적인 배경지식이 될 것이다.

본고의 2.1.에서 상정한 격의 개념 및 분류는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적인 기능을 포괄하는 범주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격조사 실현을 살펴볼 때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²⁰⁾

2.2.1. 통사구조와 격조사 실현

한국어 격조사가 문법적인 기능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Chomsky(1965, 1981)을 기반으로 한 연구 성과들을 참조할 수 있다.

Chomsky의 문법이론은 격을 추상적인 격과 형태적인 격으로 구분한다.²¹⁾ 이런 논의는 한국어가 형상적 언어(configurational languages)인가, 비형상적 언어

20) 기능과 의미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과 다르게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격에 대해 연구한 논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재욱(2000)을 들 수 있다. 인지의미론에서는 격조사가 격 기능을 나타냄에 있어서 그 정도가 다른데 ‘전형성(典型性)’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전형성’에 근거하여 주격과 대격은 전형적인 격조사에 해당되고 처소격, 공동격, 도구격을 포함한 부사격조사들은 주변적인 격조사에 해당된다. 전형적인 격조사에서도 대격은 주격보다 쓰임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더 전형성을 띤다고 하였다. 같은 이유로 ‘처격조사> 도구격조사> 공동격조사’의 순으로 전형성이 높은 데서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전형성의 차이는 격조사들 사이의 결합에서도 나타나는데 주격, 대격은 전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격조사의 뒤에서 나타나 의미를 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전형성은 서로 다른 격들 사이의 격 기능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한 격 내의 의미 기능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처소격의 의미 기능에 장소, 공간, 시간, 원인, 단위, 기준점, 방편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중 ‘장소’를 전형적인 의미로 보고 이 전형적인 의미가 시간이나 배경을 뜻하는 주변적인 의미 기능으로 확장된 것으로 판단한다.

21) 영어나 중국어와 같이 격이 외현적인 형태소로 표시되지 않지만 격이 존재하는 경우를 추상적인 격으로, 한국어와 같이 격이 구체적인 형태소로 표시되는 경우를 형태적 격으로 보았다.

(non-configurational languages)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형상적 언어는 통사구조가 하나의 형상적, 계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계층적 구조는 어순변화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비형상적 언어는 그러한 문법기능이 형상적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논항명사구에 실현되는 형태적 격에 의해 일률적으로 표시된다고 본다. 한국어가 자유로운 어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국어가 비형상적 언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한국어의 격은 통사구조와 상관없이 명사구에 실현되는 격조사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격과 조사는 일대일의 대응을 이루지 못한다. 강명운(1999:681)에서는 이 현상을 “한국어와 같은 ‘비형상적 언어’에서 형태적 격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격이 모든 문법기능을 일률적으로 표시해줄 수 없으며, 또한 어순 자체도 완벽하게 반영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한국어에서도 격 표시 자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어떤 통사적 계층구조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견해에 의하면 격조사는 문법기능이나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해당 명사구가 계층적 통사구조에서 차지하는 통사적 위치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존재이다. 본고는 한국어의 격을 통사구조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 격조사는 격을 부여받은 결과의 한 반영(反映)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아래에 이런 통사구조를 뒷받침해주는 연구 성과들을 살펴본다.

먼저, 최재희(2004), 김의수(2006)에 기대어 Chomsky(1965, 1981)의 이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homsky(1965)는 문법 G에서 [+K], ...[α F]라는 계층적 연속체가 있고 이 경우 K가 어휘범주라면, 자질 [α F](α =+혹은-)는 G에서 어휘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문장 내에서 서술어와 체언의 관계는 기저에서 어휘 자체의 속성에 의해 주어지고 이것이 표면으로 도출하는 과정에 개념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Chomsky(1981)에 와서는 명사구의 어휘적 속성과 관계없는 통사적 관계에 의하여 격이 실현되는 것으로 발전된다. 즉, 구조적 형상성에 의해 격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명사구는 하위 범주화에 따라 {+_NP}의 환경을 갖는 동사에 지배될 때 목적격으로 실현되고, {NP_X'}의 형상에서는 관형격이 실현되며 AGR에 지배될 때 주격으로, 전치사에 지배될 때 ‘사격’으로 실현된다.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격조사를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성과들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로 강영세(1986), 임홍빈(1987), 김귀화(1994)를 들 수 있다.

강영세(1986)은 구조격을 주격, 목적격, 관형격, 사격으로 분류한다. 격 배당에 있어서 먼저 목적격을 배당하고 다음 주격을 배당하는 원리를 적용한다. 즉, 타동사에 의해 지배되는 명사구에 먼저 목적격 ‘-을, -를’을 배당하고 나머지 명사구에 주격 ‘-가, -이’를 배당한다. 관형격은 명사구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나 후치사구에 배당한다. 그리고 ‘-에’와 같은 조사를 후치사로 분류하고 후치사가 명사구에 사격을 배당한다고 주장한다.²²⁾ 강영세(1986)의 격 이론은 목적격, 주격, 관형격의 격 배당자가 ‘-을, -를’, ‘-가, -이’, ‘-의’가 아닌 외부에 있는 반면, 사격은 ‘-에’와 같은 후치사 자체에 있어서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이중주격구문의 문제는 설명이 가능한 반면 이중목적격구문은 설명하기 어려우며 ‘-에’와 같은 후치사를 설정하여 ‘-에’ 뒤에 다른 조사가 결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임홍빈(1987:32)는 동사구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주격을, 동사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목적격을, 명사구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관형격을 배당한다.²³⁾ 또한, ‘-에’, ‘-에게’와 같은 비구조적인 격을 어휘격으로 상정한다. 김귀화(1994)에서도 Chomsky(1981)의 격 부여 원리를 한국어에 적용하였는데 ‘-이, -가’, ‘-을, -를’은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추상적인 격의 형태적 실현이고 이를 제외한 기타 격조사들은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김귀화(1994)는 격 부여와 실현은 동시적이며 D-구조에서 S-구조로의 이동이 끝난 뒤, 어순재배치 구조 이전에 끝난다. 주격 ‘-이, -가’는 시제 요소의 지배를 받거나 [+

22) 강영세(1986)의 격 배당 원리는 다음과 같다.

- 가. 비상태동사의 자매항인 명사구에 대격조사 배당
- 나. 격표시되지 않은 모든 명사구에 주격조사 배당
- 다. 명사구와 후치사구는 명사구에 의하여 지배될 때 속격 배당
- 라. 명사구가 후치사에 의하여 지배될 때 사격 배당

23) 임홍빈(1987)의 격 배당 원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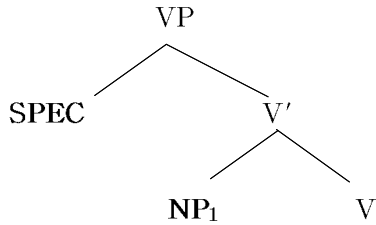
- 가. VP에 지배를 받는 NP에 [+Nominative]의 격 자질을 배당
- 나. V에 지배를 받는 NP에 [+Objective]의 격 자질을 배당
- 다. N'의 지배를 받는 NP에 [+Genitive]의 격 자질을 배당

상태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 동사의 지배를 받는다. 목적격 ‘-을, -를’은 [-상태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 동사의 지배를 받는다. 지배자의 자질은 그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까지 삼투(percolate)된다. 관형격 ‘-의’는 문맥적 격으로 보고 [NP_X]와 같은 환경에서 허가된다.²⁴⁾ 즉, 관형격은 특정한 격 할당자 없이 일정한 환경만 주어지면 허가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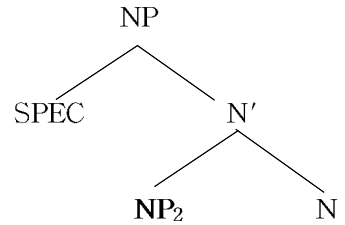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목적격은 동사(V)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배당되는 격으로서 그 동사는 [+비상태동사]의 자질을 가진다. 둘째, 관형격은 뒤에 오는 명사(N)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배당되는 격으로서 문맥에 의한 것으로 본다. 셋째, 주격은 강영세(1986)에서는 격 표시 되지 않은 모든 명사구에 배당되는 것으로, 임홍빈(1987)에서는 동사구(VP)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배당되는 것으로, 김귀화(1994)에서는 굴절소(INFL)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배당되는 것으로 보아 견해가 엇갈린다. 하지만, 김귀화(1994)의 “격 표시 되지 않은 모든 명사구에 주격이 배당된다”는 관점은 주격의 배당을 피동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김귀화(1994)와 강영세(1986)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임홍빈(1987)의 견해를 따른다. 그렇다면 주격, 목적격, 관형격의 통사구조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 다음 (1)과 같다.

24) 김귀화(1988)의 격 배당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가. 굴절소(INFL)의 시제(tense) 요소의 지배: 주격{-이/가}
 나. 동사의 지배
 ①. [+상태성]: 주격 {-이/가}
 ②. [-상태성]: 목적격 {-을/를}
 다. 문맥적 격: [NP_X]: 관형격 {-의}

(1)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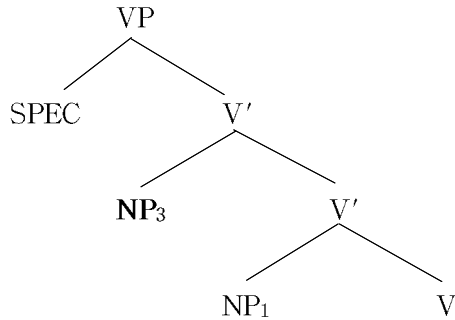
나.



(1가)는 통사구조에서 주격과 목적격의 자리를 보여주고, (1나)는 통사구조에서 관형격의 자리를 보여준다. 보다시피 (1가, 나)는 세 개 층위로 구성된다. 맨 아래 층위인 (1가)의 'NP₁-V'와 (1나)의 'NP₂-N'의 층위는 어휘 범주이다. 가운데 층위인 (1가)의 'V''와 'N''의 층위는 중간 범주이다. 맨 위에 놓이는 층위인 (1가)의 'VP'와 (1나)의 'NP'는 구 범주이다. (1가)에서 주격은 동사구(VP)의 지정어(SPEC) 자리에 배당된다. 그리고 목적격은 동사(V)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NP₁)에 배당된다. (1나)에서 관형격은 명사(N)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NP₂)에 배당된다. 또한, 명사구(NP)의 지정어(SPEC) 자리에는 명시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사구조에서 부사격의 자리는 어떠한가? (1가-나)에서 중간 범주에 'V''와 'N''가 포괄된다고 하였다. 부사격은 그 가운데 중간 범주 'V''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배당된다. 부사격이 배당받는 위치는 다음 (2)와 같다.

(2)



(2)에서 명사구(NP₃)이 부사격을 담당받은 자리이다. 즉, 부사격은 중간범주(V')가 지배하는 명사구(NP₃)에 담당된다.

본고는 상술한 논의들을 통하여 주격, 목적격, 부사격이 각기 다른 층위에 놓인 명사구들에 담당되는 구조를 상정하였고, 다시 명사에 지배되는 명사구에 관형격이 담당되는 구조를 상정하였다. 본고의 입장은 이남순(1998)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다. 이남순(1998)은 주격, 목적격, 관형격은 문장의 통사구조만으로도 격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사격은 그 하위 범주들 사이의 경쟁관계 때문에 격조사가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즉, 부사격도 통사구조에 의해 격을 담당받는다든 전제 아래, 그 하위 범주들은 의미 기능에 의해 구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2.2.에서 진행한다.

2.2.2. 의미 기능과 격조사 실현

한국어에서 부사격은 통사적으로는 중간범주(V')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담당되는 격이다. 하지만 부사격의 논의는 단순하지 않는데, 그 원인은 부사격에 여러 격조사 형태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손남익(1995)에서 지적하다시피 한국어 부사격의 논의는 문장에서의 위치나 조사와의 결합 방식을 위주로 연구하는 기존의 구조격에서의 논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의미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사격의 하위분류를 상정하는 문제는 의미 기능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의미 기능에 의하여 격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격조사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거나 또는 서술어와 명사구의 의미 및 의미관계를 통하여 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는 전통문법적인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Fillmore(1968)의 격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인데, 이 견해에 의하면 격은 ‘의미격’이다. 본고는 한국어의 격이 통사적인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Fillmore(1968)의 ‘의미격’과는 견해를 달리한다.²⁵⁾ 하지만, 의미 기능에 관련되는 격조사 실현 양상을 고찰할 때 Fillmore(1968)과 견해를 같이 하는 한국의 연구 성과들도 참조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통적인 연구 방법에서 부사격을 어떻게 하위분류하는지 살펴본다.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연구 방법은 격조사 자체의 의미에 관심하거나 서술어와 명사구 자체의 의미 및 서술어와 명사구 사이의 의미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

격조사 자체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 대표적인 성과는 김승곤(1992)이다. 김승곤(1992)에 의하면 한국어의 격은 실사(實辭)가 허사화(虛辭化)한 것에서 시작된다. 실사가 의미를 잃고 조사화된다는 것이다. 어떤 실사 형태가 조사화를 거쳐 조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뒤에는 격을 다른 실사에게 부여하게 된다. 이런 원리에 근거하여 문헌자료를 통하여 격조사의 어원을 밝히는 것으로 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논의한다.

서술어와 명사구 자체의 의미 및 서술어와 명사구 사이의 의미 관계를 통하여 부사격을 하위분류하는 연구 성과에는 박승빈(1931), 이회승(1949), 정인승(1956)이 있다. 박승빈(1931)에서 부사격은 아홉 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처소, 향진, 유래, 상대, 비교, 사용, 이유, 자격, 정도가 포함된다. 이회승(1949)에서 부사격은 열세 가지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상대격, 탈격, 처소격, 향진격, 유래격, 사용격, 변성격, 원인격, 자격격, 비교격, 동류격, 동반격, 열거격이 포함된다. 정인승(1956)에서 부사격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고 다시 더 작은 단위로 재분류된다. 첫 번째 부류인 “곳에 관한 움직임이

25) 김기혁(1989)에서도 생성의미론에서의 심층격은 한국어 전통문법에서 말하는 격과 이질적이기 때문에 격이라기보다는 통사적인 의미 역할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 상태를 꾸미게 하는 것”에는 두루곳(처소), 정한곳(정치), 나온곳(출처), 떠난곳(출발), 지낸곳(통과), 향한곳(방향), 주는곳(부여), 일러줌(운위)가 포함된다. 두 번째 부류인 “변동에 관한 움직임에 꾸미게 하는 것”에는 거리(재료), 연장(도구), 되기(변화), 때문(원인)이 포함된다. 세 번째 부류인 “움직임이나 상태의 형편을 꾸미게 하는 것”에는 자격, 종류, 제모양(현상), 늘임(연장), 견줌(비교), 함께(공동)이 포함된다. 이런 연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경험론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격조사나 같은 격조사 실현 양상도 견해의 차이에 따라 몇 가지 큰 부류로 묶이기도 하고 다수의 작은 부류로 세분화 될 수도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다.

다음, 한국어의 격을 Fillmore(1968)을 적용하여 해석한 연구 성과들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성광수(1978), 김원경(2007), 성광수(1999), 김영희(197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광수(1978)에서는 서술어와 명사구에 관계되는 보편적 의미자질로 [의지], [원인], [수단(방법)], [지배], [유정], [구체], [대칭], [가산], [시간], [장소], [방향(과정)]의 열한 가지 의미 자질을 제시한다. 이들 의미자질에 근거하여 부사격은 위격, 여격, 구격, 객격, 공격, 원격, 달격, 처격, 시격, 로격의 열 가지로 하위분류된다.²⁶⁾ 김원경(2007)에서는 Fillmore(1968)의 이론을 발전시켜 의미격을 분류하였는데 부사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덟 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혜자격, 도구격, 공동격, 원천격, 도달격, 처소격, 시간격, 경로격이 있다.

또한, 부사격 범주에 대한 논의에는 상위격(hyper cases)의 설정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성광수(1999)와 김영희(1973)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상위격은 기본격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차적인 격을 가리킨다. 성광수(1999:25)는 동작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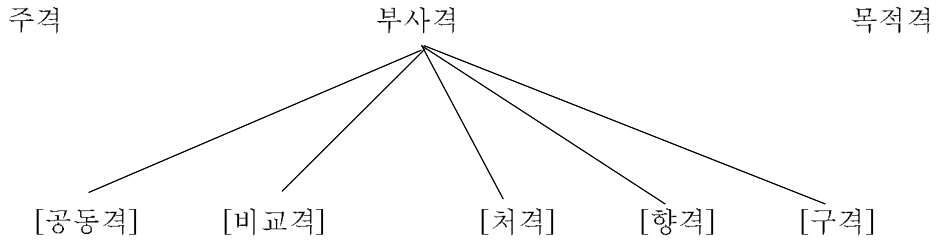
26) 위격은 [+의지, +원인, -수단, +지배, +유정,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 여격은 [-의지, -원인, -수단, +유정, -지배,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 구격은 [-의지, -원인, +수단, ±지배, -유정,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 객격은 [-의지, ±원인, -수단, ±유정, -지배,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 공격은 [-의지, -원인, -수단, -지배, ±유정,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 원격은 [-의지, -원인, -수단, -지배, ±유정,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 달격은 [-의지, -원인, -수단, -지배, ±유정,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 처격은 [-의지, -원인, -수단, -지배, -유정,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 시격은 [-의지, -원인, -수단, -지배, -유정,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 로격은 [-의지, -원인, -수단, -지배, -유정, ±구체, -대칭, -가산, ±장소, -시간, +과정]이다.

에 관계되는 명사의 격으로 기간, 거리, 정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격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것을 ‘산격’이라고 명명하였다. 또 김영희(1973)은 상위격으로 경로격, 거리격, 기간격을 설정한다. 이러한 의미격의 분류에 대하여 임채경(2007)에서는 Chapin(1972)의 견해를 인용하여 비판하였는데 Fillmore(1968)의 적용이 보편적이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기술을 위한 표지체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전통적인 견지에서의 연구이든 격문법적인 견지에서의 연구이든 모두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비슷한 주장을 하더라도 격조사의 의미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본고는 부사격의 하위분류들 사이의 관계를 상정할 때 주격과 목적격과의 의미 관계에 주목하려고 한다. 먼저, 주격 명사구와 상대적인 대등 관계를 이루는 명사구에는 공동격을 부여한다. 다음, 주격 명사구를 위한 기준으로 존재하는 명사구에는 비교격을 부여한다. 그 다음, 주격 명사구에 의하여 어떤 행위를 경험하는 명사구거나, 주격과 목적격 명사구의 시공간 배경이 되는 명사구에 처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주격 명사구와 목적격 명사구가 통일 ‘미래의 시공간’으로 될 수 있는 명사구에 향격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목적격 명사구의 한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명사구에 구격을 상정한다. 즉, 부사격은 처격, 공동격, 구격, 향격, 비교격의 다섯 격으로 하위분류된다. 부사격의 하위분류인 처격, 공동격, 구격, 향격, 비교격은 모두 중간범주(V')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배당된다. 따라서 서술어와의 통사적 관계에서 같은 층위에 놓인다. 그 관계는 다음 (3)과 같다.

(3) 부사격의 하위분류



(3)에서 보듯이 부사격의 하위 범주들은 서술어와의 통사적 관계에서 같은 층위에 놓인다. 따라서 부사격의 실현 양상에 대한 고찰은 이들 격조사에 연결된 명사구의 의미 자질이나 선행 주어 명사구와 후행 목적어 명사구의 의미 자질, 서술어의 의미 자질 및 이들 사이의 의미 관계에 의하여 진행된다.

제3장 연변 지역어의 말뭉치 계량 및 격조사 목록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조사·수집한 연변 지역어로 말뭉치를 구축한 다음 계량언어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격조사로 간주되는 형태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형태들의 격조사 여부를 검토하여 격조사 목록을 작성한다. 이는 4장에서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3.1. 연변 지역어 말뭉치

3.1.1. 말뭉치의 구축

말뭉치(corpus)는 언어 현실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들의 집합을 뜻하는데, 연구가 목적으로 하는 분야의 언어 현실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단일한 내용을 가지며 양적으로도 많지 않은 텍스트 각각도 말뭉치가 될 수 있다(남윤진 1997:12). 결국 ‘말뭉치’라는 용어는 이상섭(1990)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연구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말뭉치 구축 작업은 말뭉치 교정, 계량단위의 결정 및 식별, 계량형태로의 변환 등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매우 길고도 지루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처리 내용과 방법에 있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아래에 인터넷 게시글에서 수집한 연변 지역어를 이용하여 말뭉치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말뭉치 교정 작업을 한다. 본고의 계량 대상이 격조사이기 때문에 어휘, 띄어쓰기와 같은 계량 대상이 아닌 것은 교정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 게시글을 표집단위

로 하였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문장부호는 교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음, 계량 단위를 결정한다. 계량언어학적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들에서 거의가 지적하다시피 한국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과정이 순전히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형태소 분석기나 어절 분석기 같은 전자적 말뭉치 분석 도구의 수준 한계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김희찬(2000)에서 지적하였듯이 말뭉치의 어형 하나하나에 대하여 계량 단위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고, 계량 단위로 변환하고, 필요한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 없이 연구자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계량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해당 계량언어학 연구의 핵심이다. 본고는 격조사의 식별 기준을 상정할 때 문법적인 관계, 형태, 의미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첫째, 문법적인 측면은 2장에서 상정한 격조사의 분류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2장에서 한국어의 격을 문장성분과 대응시켜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을 상정한 바 있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의 자리에 나타난 조사 형태를 격조사로 간주되는 형태로 보고 일차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조사 형태들이 각 격의 대표형과의 치환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면 (1)은 부사어에 나타난 ‘-다’와 ‘-다가’의 형태이다.

(1) 가. 옛날에 부수깨다 옥시 구버먹던 생각이 나오.

(=옛날에 부엌 아궁이에 옥수수를 구워 먹던 생각이 나오.)

나. 대부분 교과서는 핵꼬다가 두구멍기구 멋을루 몇 개만 달랑넣구서 흔들흔들하멘 서리.(=대부분 교과서는 학교에 두고 다니고 멋내기용으로 몇 권만 가방에 넣은 채 흔들거리면서.)

(1)의 ‘부수깨’와 ‘핵꼬’는 모두 [+공간]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 명사이고 각각 ‘-다’, ‘-다가’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한다. (1가)의 부사어 자리에 나타난 ‘-다’는 처격조사의 대표형 ‘-에서’로 교체 가능하다. (1나)의 부사어 자리에 나타난 ‘-다가’는 처격조사의

의 대표형 ‘-에’로 교체 가능하다. 따라서 ‘-다’와 ‘-다가’를 연변 지역어 처격의 형태로 잠정 판단할 수 있다.

둘째, 형태적인 측면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기되어 온 격조사 목록을 참조할 수 있다. 앞에서 각 격의 대표형과의 치환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기존의 목록을 토대로 하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격조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남윤진(1997), 김희찬(2000) 등 계량언어학적 논문들에서 많이 채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본고는 차광일(1981), 리귀배(1988), 이기갑(2003), 방언연구회(2003)에서 제시한 격조사 목록을 참조한다. 그 목록을 제시하면 (2)와 같다.

(2)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격조사 목록

가. 주격 (nominative)

-이, -가, -이가, -에서, -거, -께서, -라, -라서, -라서느, -(이)란, -(으)로서, -래

나. 목적격 (accusative)

-을, -얼, -으, -오, -를, -럴, -르, -로, -으를, -으르, -(으)로, -르

다. 관형격 (genitive)

-의, -에, -어, -으, -우, -이, -스

라. 부사격

①. 처격 (locative)

-에, -에게, -에게서, -에서, -에가, -에다가, -에게다, -에게다가, -에서, -여, -을, -로, -이, -이라, -라, -이서, -의서, -인데, -인데, -으, -르, -게, -게다, -게다가, -게다가서, -게루, -게루다, -게루다가, -게루다가서, -게서, -기, -과, -과, -께, -께로, -께서, -께서, -끼, -다라, -더러, -드러, -드레, -떠러, -뚜로, -디, -디서, -레서, -드러, -서, -신티, -보고, -보구, -보다가, -보고다, -한테, -한테, -안테, -안티, -헌테, -헌테, -한티, -헌티, -한디, -한티가, -한테가, -항께, -자테

②. 공동격 (comitative)

-가, -광, -까, -과, -랑, -와, -과, -과, -카, -강, -하고, -하구, -허고, -허과, -하과, -허곡

③. 구격 (instrumental)

-으로, -으루, -이루, -을루, -이로, -을르, -으르, -의로, -더레, -러레, -레

④. 향격 (directional)

-으로, -으르, -으루, -이루, -을루, -이로, -을르, -의로, -더레, -러레, -레, -에,
-를, -로

⑤. 비교격 (comparative)

-같이, -만큼, -말루, -말로, -매루, -마냥, -마냥이루, -마니, -마이, -마니로,
-마이로, -마로, -매니, -매이, -매니로, -매이로, -매니롱, -매로, -맹기, -맹이, -맹
기로, -맹이로, -맹으로, -맹키, -맹키로, -맹클로, -마냥으로, -마냥이로, -만치로,
-만칠로, -맨치로, -매치로, -맹거로, -맹쿠로, -맨덜로, -맹구로, -맨지로, -만치, -만
큼, -만침, -만, -마, -마끔, -마치, -만창, -만땅, -만이, -보다, -보다가, -보딤, -부
담, -보담, -보단, -보돔, -부딤, -보구, -처럼, -치름, -철로, -치로, -철로, -치리,
-치리, -터르, -터리, -터러, -터루, -터림, -츄록, -추록, -추룩, -카마, -토림, -토롱

셋째, 의미적인 측면도 계량 단위를 상정하는 기준 가운데의 하나이다. 본고는 2장에서 주격과 목적격과의 의미 관계에 주목하여 부사격의 하위분류들을 상정한바 있다. 구체적으로 주격 명사구와 상대적인 대등 관계를 이루는 명사구에는 공동격을, 주격 명사구를 위한 기준으로 존재하는 명사구에는 비교격을, 주격 명사구에 의하여 어떤 행위를 경험하는 명사구나 주격과 목적격 명사구의 시공간 배경이 되는 명사구에 처격을, 주격 명사구와 목적격 명사구가 놓일 미래의 시공간으로 될 수 있는 명사구에 향격을, 목적격 명사구의 한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명사구에 구격을 상정하였다. 이 기준은 계량 단위를 판단할 때도 적용된다.

이상의 기준들에 근거하여 계량 단위가 확정되면 계량 단위에 계량 형태(식별 기호)를 상정하고 태그를 부착한다. 본고는 계량 형태를 영어 자모로 표기한다. 주격에는 ‘Nominative’의 첫 문자 ‘N’, 목적격에는 ‘Accusative’의 첫 문자 ‘A’, 관형격에는 ‘Genitive’의 첫 문자 ‘G’, 처격에는 ‘Locative’의 첫 문자 ‘L’, 향격에는 ‘Directional’의 첫 문자 ‘I’, 구격에는 ‘Instrumental’의 첫 문자 ‘D’, 공동격에는 ‘Comitative’의 첫 문자

‘C’, 비교격은 ‘Comparative’의 첫 문자가 공동격과 같은 ‘C’이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의 문자 ‘B’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또한, 격의 자리에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곳에는 ‘Empty category’의 첫 문자 ‘E’를 추가 표기한다.

이렇게 연변 지역어 말뭉치가 구축된다. 구축된 말뭉치의 일부분을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격조사를 계량단위로 구축된 말뭉치 보기

시래기하구C 다드배채AE 얼거등계NE 허더간에L 고델루있쓰꾸마
 나는 엄미CE 아부지NE 농민이N 대서리 맨날 김치르A 싸개꾸댕갓쓰꾸마!
아떼LE는 엄마보구L 탕쿨러장시NE 지나가른 엄미LE 돈이N 없는데두 무조건
 사내라구 떼질쓰 머라는지 압등?

<표 2>의 밑줄 그은 부분에서처럼 격조사 뒤에나 명사구(NP) 뒤에 계량 형태의 태그를 부착하였다. 여기에서 격조사가 실현된 것으로 ‘하구C, 에L, 이N, 르A, 보구L’가 보이고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형태로는 ‘CE, NE, AE, LE’가 보인다. 이렇게 태그가 부착된 계량 형태들은 말뭉치에서 격조사를 추출하고 계량할 때 사용된다.

3.1.2. 말뭉치의 계량

본 절에서는 한국어 말뭉치 분석 도구인 ‘깜짝새’²⁷⁾를 이용하여 3.1.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구축된 연변 지역어 말뭉치에서 격조사 형태를 추출한다.

한국어 말뭉치 프로그램인 ‘깜짝새’는 2B문서만 인식한다. 따라서 먼저 ‘한글’ 문서로 작성했던 말뭉치를 2B문서로 바꾼다. 이 단계에서도 ‘게시자’(아이디) 별로 문서를 저장한다. 다음, ‘깜짝새’에서 ‘게시자’ 별로 저장된 2B말뭉치 문서를 열고 ‘전문가탐색창 KWOC’를 이용하여 격조사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아래에 아이디가

27) ‘깜짝새’는 전주대학교 소강춘 팀에서 개발한 통합형 한글 개발 처리기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및 용례 추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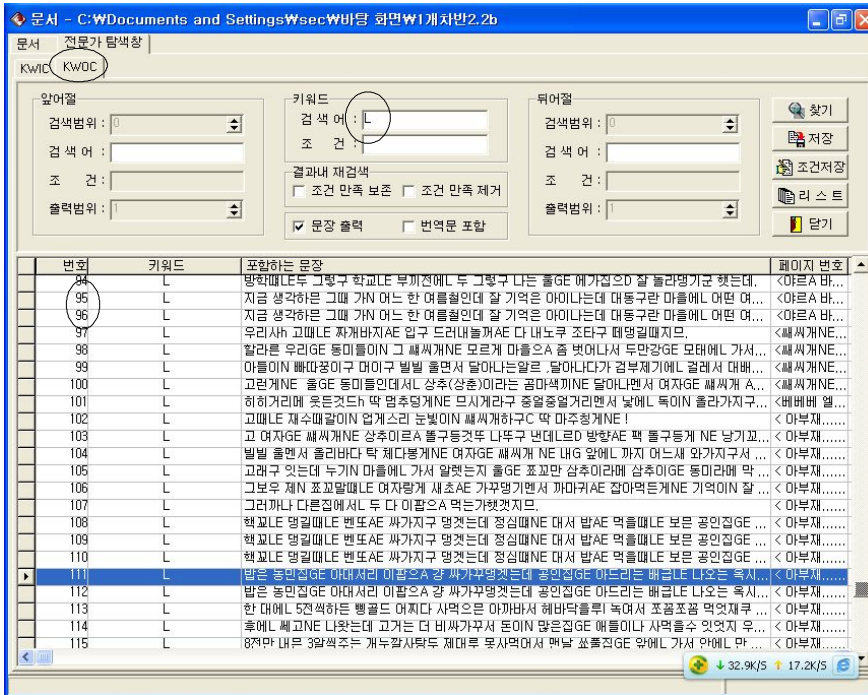
‘개차반’인 2B말뭉치에서 처격조사를 분류하는 작업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격조사의 분류 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그림 2]에서처럼 2B말뭉치 ‘개차반’ 문서를 ‘깜짝새’ 프로그램에서 실행한다.



[그림 2] ‘깜짝새’에서 2B문서 열기 캡처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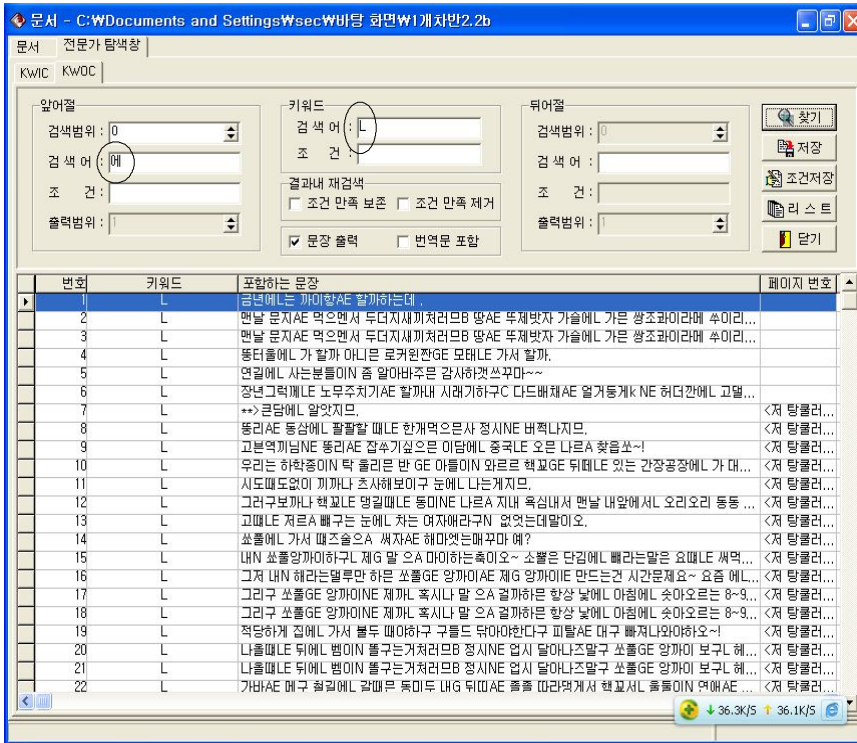
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탐색창 KWOC’를 이용하여 목표하는 계량단위를 ‘키워드’에 입력하고 ‘찾기’를 실행한다. [그림 3]은 처격조사를 목표 계량단위로 하여 분류한 결과를 캡처한 것이다.



[그림 3] '깜작새'를 이용한 치격조사 추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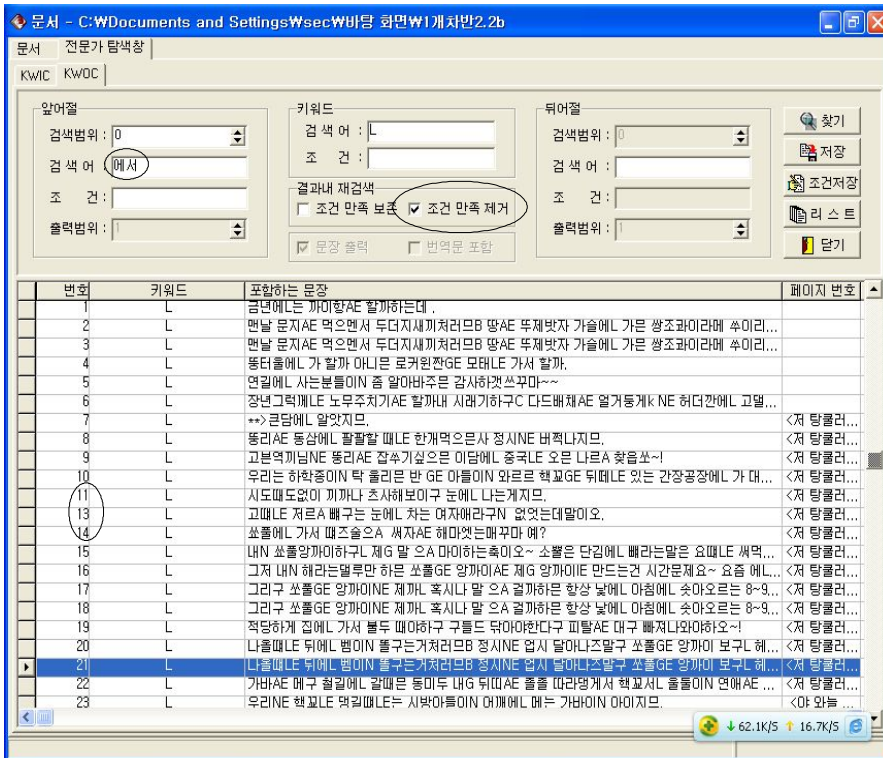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면 번호 95와 96의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이다. 이것은 해당 데이터 내에 검색대상인 치격 기호 'L'이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반복된 것이다. 이는 계량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다.

또한, 구체적인 분류를 위하여 '앞 어절'과 '뒤 어절'의 '검색어'에 필요한 형태를 입력하여 해당 데이터를 전부 추출한다. 예를 들면 [그림 4]는 '앞 어절'의 '검색어'에 '에'를 입력하여 추출한 결과를 캡처한 것이다.



[그림 4] 치격조사 '-에, -에서'의 추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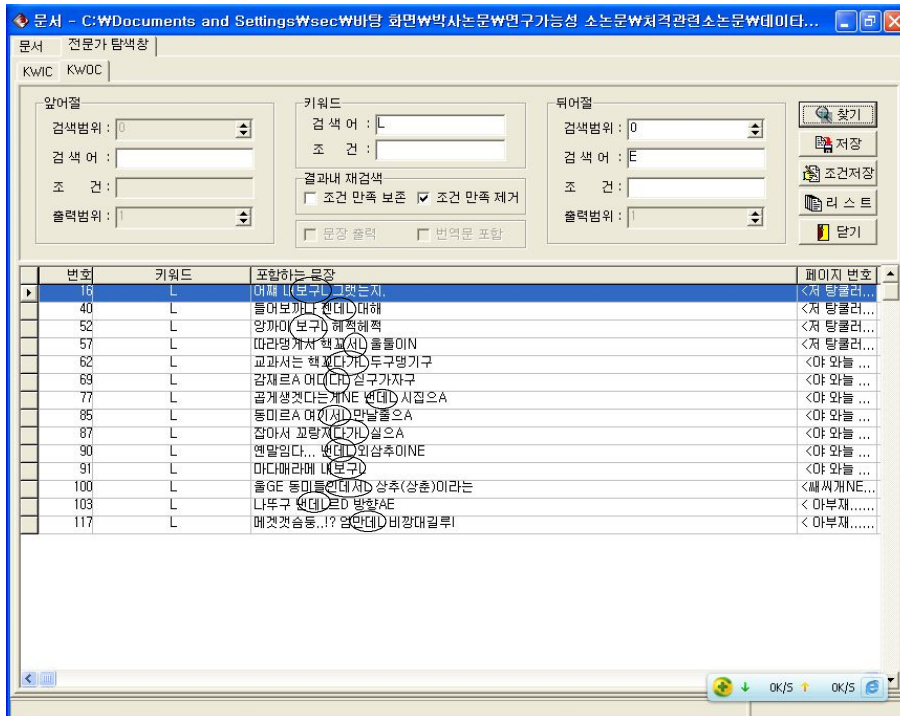
그리고 [그림 4]의 결과에서 '-에'만 추출하려고 하면 '결과내 재검색'의 '조건만족제거'를 이용하면 된다. '조건만족제거'를 선택하고 '앞 어절'의 '검색어'에 '에서'를 입력하고 '찾기'를 하면 '-에서'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전부 제거되고 '-에'의 데이터만 추출된다.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처격조사 ‘-에’의 추출 결과

[그림 5]에서 번호가 일괄처리되지 않고 ‘11-13-14’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를 제거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방법에 따라 격조사 형태를 추출하여 저장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추출된 계량단위를 ‘조건만족제거’를 이용하여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처격조사의 기타 형태들을 추출한다. 예를 들면 ‘뒤 어절’이 ‘E’인 데이터를 제거하여 형태가 실현되지 않은 처격조사를, ‘앞 어절’이 ‘에’, ‘에서’인 데이터를 제거하여 처격조사 ‘-에’와 ‘-에서’를 제외시킨다.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에’, ‘-에서’이외의 처격조사

[그림 6]에서 보다시피 열네 개의 데이터가 추출되었다. 그중 ‘-서’가 2차례, ‘-다’가 1차례, ‘-다가’가 2차례, ‘-보구’가 3차례, ‘-니데’가 5차례, ‘-니데서’가 1차례 출현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아이디어가 ‘개차반’인 2B말뭉치의 처격조사를 분류한 결과 그 목록은 ‘-에, -에서, -서, -다, -다가, -보구, -니데, -니데서’이다. 본고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격조사로 간주되는 형태 목록을 추출한다. 그 결과는 (3)과 같다.

(3) 말뭉치에서 추출된 형태 목록

가. 주격조사: -사, -이가, -(이)랑, -(이)람, -(이)라메, -랑게, -란게, -라는게, -ㄴ게,
-가, -이

나. 목적격조사: -(이)나, -(이)라메, -(이)랑, -(이)람, -을, -으, -우, -르, -를

다. 관형격조사: -의, -에, -이

라. 부사격조사

①. 처격조사: -에, -메, -에서, -메서, -서, -ㄴ, -ㄴ데, -에다, -에다가, -다, -다가,
-다대구, -에게, -보구, -한테, -한테서, -ㄴ데, -인데, -인데서

②. 공동격조사: -까, -(이)랑, -라메, -와, -과, -하구(하고)

③. 구격조사: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을러, -을르

⑤. 향격조사: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을러, -을르

⑥. 비교격조사: -같이, -마, -마이, -보다, -처럼, -처럼프

(3)의 형태 목록은 3.3.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다. 그 가운데 격조사로 판단되지 않는 일부 형태는 격조사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다.

3.2. 계량 결과 분석

본 절에서는 3.1.의 (3)에서 얻은 계량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연변 지역어 격조사 목록을 확인한다.

3.2.1. 문어체의 영향으로 나타난 형태

말뭉치에서 추출된 목록 (3)의 주격 자리에 나타난 ‘-가’, 목적격 자리에 나타난 ‘-을, -를’, 관형격 자리에 나타난 ‘-의’, 부사격의 하위범주인 공동격 자리에 나타난 ‘-와, -과’는 게시글의 특성상 문어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형태로 판단된다. 실제로 연변 지

역어에서 주격조사 ‘-가’는 나타나지 않고, 목적격조사 ‘-을, -를’은 음절말 자음이 탈락된 형태인 ‘-으, -르’로 실현되고, 관형격조사 ‘-의’는 ‘-에’나 ‘-이’로 실현되며, 공동격조사의 ‘-와, -과’는 음운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형태인 ‘-까’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는 말뭉치에서 추출된 목록 (3)에서 이상의 형태 ‘-가, -을, -를, -의, -와, -과’를 제외시킨다.

3.2.2. 표준어에 없는 형태

3.2.2.1. 격조사의 과도기적 형태

연변 지역어에는 주어 명사구에 ‘-이가’²⁸⁾의 형태가 실현되는 현상이 존재²⁹⁾하는데 그 예는 다음 (4)와 같다.

(4) 가. 빨간 꽃이가 곱다!

(=빨간 꽃이 곱다.)

나. 옷값이가 공자야 절반이다.

(=옷값이 월급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 저 따이가 우리네 아바이 따이다.

(=저 땅이 바로 나의 할아버지 땅이다.)

라. 저 군대말이가 쫓이게 빨리 댜다.

(=저 군대 말이 아주 빨리 댜다.)

마. 범이가 토끼보구 말했다.

28) 주어 명사구에 실현되는 ‘-이가’의 형태는 최명옥(1980), 천시권(1982), 이상규(1990), 김태엽(2001)에 의하여 경상도 방언에서 사용됨이 밝혀졌고, 이익섭(1981)에 의하여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사용됨이 밝혀졌고, 홍윤표(1978), 김영황(1990)에 의하여 전라도, 함경도 방언에서 널리 사용됨이 밝혀졌다.

29) 홍윤표(1980, 1994)에서는 주격조사로 보이는 ‘-이가’의 형태가 근대 한국어 단계부터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윤음언해」, 「첩해신어」, 「호남윤」, 「인선왕후어간」, 「숙종어간」에서 주격조사 ‘-이가’의 사용에서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한인이 중국 대륙으로 이주하는 규모가 대폭 늘어난 시기이다. 본고는 ‘-이가’의 형태가 이 시기에 연변 지역어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본다.

(=범이 토끼한테 말했다.)

(4)의 예는 표면상 각각 명사 ‘꽃’, ‘값’, ‘땅’, ‘말’, ‘범’에 격조사 ‘-이’와 ‘-가’가 결합된 ‘-이가’의 형태가 실현되어 있다. 이때 ‘-이가’의 형태를 주격조사로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연변 지역어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연변 지역어는 명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는바, (4)의 명사 ‘꽃’, ‘값’, ‘땅’, ‘말’, ‘범’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 ‘꽃이[꼬치]’, ‘값이[갑씨/가비]’, ‘땅이[따:이]’, ‘말(馬)이[마리]’, ‘범이[버미]’로 사용된다. 즉, 이 지역어에서 이들 명사의 기저형이 ‘꽃이[꼬치]’, ‘값이[갑씨/가비]’, ‘땅이[따:이]’, ‘말이[마리]’, ‘범이[버미]’인 것이다.³⁰⁾ 이런 현상에 비추어 보면 (4)의 예문에서 명사 뒤에 결합된 ‘-이’는 격조사라기보다는 명사 기저형의 마지막 음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어 명사구에 실현되는 ‘-이가’의 형태에서 ‘-이’를 접미사로 보는 관점은 천시권(1982), 황대화(1998), 이기동(1999)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천시권(1982)에서는 ‘-이가’를 접미사 ‘-이’와 주격조사 ‘-가’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 ‘-이가’의 ‘-가’를 주격조사로 보는 관점은 본고와 다르지만, ‘-이’를 접미사로 보는 데서는 관점을 같이 한다. 황대화(1998)에서는 ‘로한즈던’에 나타나는 어휘자료와 함경방언의 어휘자료를 통하여 명사의 말음이 ‘ㅣ’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사로서 ‘-이가’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기동(1999)에서도 함경 방언에서 ‘농사’를 ‘농새’, ‘모자’를 ‘모채’로 쓰는 등 명사의 마지막 음절에 ‘ㅣ’가 첨가된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통시적으로는 주격 ‘ㅣ’가 결합된 형식이나, 공시적으로는 주격과 무관하다고 보았다.

연변 지역어에서 기저형에 접미사 ‘-이’가 없는 명사에는 ‘-이가’의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데 그 예는 다음 (5)와 같다.

(5) 가. 용정 사가배 \emptyset 일똥 맛있다!

30) 이 지역어에는 이런 유형의 명사들이 많은데, ‘돈→돈이[도이]’, ‘옷→옷이[오시]’, ‘뱀→뱀이[배미]’, ‘닭→닭이[다기]’, ‘역서(曆書, 달력)→역서이[역세:]’, ‘말→말이[바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용정의 사과배가 가장 맛있다!)

나. 교과서 ϕ 언제 오니?

(=교과서가 언제 도착해?)

다. 뎨노우 ϕ 마사제서 수리하느라구 이제 왔다.

(=컴퓨터가 고장 나 수리하느라고 늦었다.)

라. 양로우첼이 먹기 싫어 죽을뻔했다.

(=양꼬치 구이가 먹고 싫어 죽을 뻔했다.)

마. 녹음이 어제 잘 아이데니?

(=웬 영문인지 녹음이 잘 안되네.)

(5)에서 명사 ‘사과배[사가배]’, ‘교과서[교까서]’와 중국어 차용어 ‘뎨노우’, ‘양로우첼’은 접미사 ‘-이’가 결합되지 않는 명사들이다. 이런 명사들은 기저에 ‘-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면구조에 주격조사를 의심케 하는 ‘-이가’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5가-다)의 명사 ‘사과배[사가배]’, ‘교과서[교까서]’, ‘컴퓨터[뎨노우]’는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나고 주어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무표성을 띠어 주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았다. (5라-마)의 명사 ‘양로우첼’과 ‘녹음’은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로 끝나고 주격조사 ‘-이’가 실현되었다. 이는 이상규(1999)에서 ‘코(鼻)+가’, ‘이매+가’, ‘치매+가’, ‘털/터리+가’의 예들에서 격표지 ‘ㅣ’가 어간말음이 /i/와 대칭기능의 상실(a loss of contrast)로 인하여 주격표지 ‘ㅣ’가 어간말음 ‘-이’로 굳어진 주격형에서만 ‘-이가’로 실현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래에 연변 지역어에서 ‘-이가’의 다른 예를 들어 보겠다.

(6) 가. 김철이가 니까 머이라 하데?

(=김철이 너에게 뭐라고 귀뽀하던?)

나. 순남이가 너르 오라더라.

(=순남이 너를 데려오라고 하더라.)

(6)은 인명(人名)에 ‘-이가’가 결합된 예인데, 여기서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연변 지역어에서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로 끝나는 인명에는 접미사 ‘-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에서 ‘김철이’, ‘순남이’의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접미사 ‘-이’이다.

본고는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연변 지역어의 주어 명사구에 나타난 ‘-이가’의 형태가 단순히 ‘-이’와 ‘-가’의 문제가 아닌 ‘명사+-이’와 ‘-가’의 문제임을 밝혔다.³¹⁾ 여기서 명사의 마지막 음절에 결합된 ‘-이’는 연변 지역어에서 기저에 존재하는 요소로 보고, 이를 접미사 ‘-이’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가’의 ‘-가’는 어떠한 문법적 성격을 지닌 요소일까? 선행 연구 성과들에는 주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가’의 ‘-가’를 특수조사로 보는 견해가 한영순(1967), 황대화(1986), 정용호(1988), 홍윤표(1994), 김태엽(2002)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김영황(1990)에서는 동해안 지방의 방언에 ‘-이가’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가’가 후기에 생겨난 것임을 실증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래 강조의 뜻을 가지는 보조조사였음을 말해준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조조사는 본고의 특수조사³²⁾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한영순(1967)에서는 육진 방언에는 강조의 ‘도움토’로 ‘-가’가 있지만 주격의 ‘-가’는 없어 개음절 뒤에서도 ‘-이’가 쓰이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황대화(1986)에서는 ‘-이가’를 주격조사 ‘-이’와 강조의 ‘보조사’ ‘-가’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 정용호(1988)에 의하면 ‘-이가’에서 ‘-이’는 의미 표현의 주가 되며 ‘-가’는 단지 ‘-이’를 취한 단어의 문법적 의미와 기능을 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홍윤표(1994)에서는 근대 한국어의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다가’의 형태에서 ‘-가’가 삭제되고 ‘-다’만 사용되더라도 문장의 명제

31) 본고의 견해와는 다르게 주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가’를 주격조사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서 잠깐 살펴보겠다. 김태엽(2002:6)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가’는 주격조사의 한 형태라고 하였다. 그 근거는 유아기에 ‘-이가’를 사용하다가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그 사용이 중단되고, 노년기에 들어서서 다시 ‘-이가’를 사용하는 현상을 들었다. 그런데 이 견해는 모든 명사구에 ‘-이가’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에 소홀하였다. 연변 지역어에서는 위에서 들었던 예 (9)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된다. (9)의 명사구에는 ‘-이가’가 결합되지 않는다. 즉, 김태엽(2002)의 견해는 ‘-이가’가 실현되는 제약환경을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32) 특수조사는 어느 한 가지 격을 담당하지 않고, 어떤 의미적 정보를 담당하는 조사이다. 이들은 그 분포에 있어서도 체언 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사 뒤에도 나타날 수 있고 몇몇 활용형 뒤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를 격조사와 구분하여 특수조사라고 한다(최재희 2004: 104).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가’가 그때로부터 이미 덧붙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태엽(2002)에 의하면 ‘-이가’를 하나의 격조사로 보는데, ‘-이가’는 주격조사 ‘-이’와 덧붙은 요소 ‘-가’의 결합으로 분석하였다. 홍윤표(1994), 김태엽(2002)은 비록 ‘-이가’의 ‘-가’를 ‘덧말’ 요소로 보고 특수조사라는 용어를 피하였지만, ‘덧말’에는 명제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어떤 의미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견해대로 연변 지역어에서 ‘-이가’의 ‘-가’도 특수조사라면 주격 이외의 환경에서도 그 분포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연변 지역어에서 ‘-가’는 앞에서 제시한 예문과 같은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서 특수조사로 보기 어렵다.³³⁾

일찍이 이희승(1947)에서는 ‘-이가’를 ‘-가’가 주격조사로 발달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하였다. 뜻인즉, 근대 한국어 단계에서 사용된 ‘-이가’의 ‘-가’는 아직 주격조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 시기 한인이 한반도에서 연변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변 지역어에서 주격조사 ‘-이’의 지위가 동요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될 수 있다. 즉, 연변 지역어에서 조사 ‘-가’는 주격조사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가’의 ‘-가’를 따로 주격조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가’의 ‘가’는 ‘-가’가 주격조사로 발달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아직 주격조사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연변 지역어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의 예 (4)에서 ‘-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겠다. (4가)에서 서술어 ‘곱다’는 ‘감탄’을 나타내는 서술어이고, (4나)에서 ‘공자야 절바이다’는 ‘놀라움’을 나타내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이때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명사구 ‘빨간 꽃이’와 ‘웃값이’에 ‘-가’가 결합된 것은 ‘초점’, ‘강조’의 기능을 한다. (4다-라)는 명사구 ‘땅이’와 ‘군대말이’ 앞에 지시대명사 ‘저’가 붙고, 그 지시대상의 상태를 분명하게 해주는 서술어 ‘우리네 아바이 따이다’와 ‘쪽이게 빨리 댕다’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때 명사구 ‘땅

33) 연변 지역어에 ‘-에가, -다가, -에다가’의 형태가 존재한다. 이때의 ‘-가’와 ‘-이가’의 ‘-가’가 어원상 동일 요소인지도 의심스럽고 또한, ‘가’의 분포가 이 정도로 국한된다면 역시 특수조사로서 규정되기까지는 더 많은 논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와 '군대말이'에 '-가'가 결합된 것은 '지시', '초점', '강조'의 기능을 한다. (4따)에서 '토끼'보다 관념적인 우세를 갖는 '범이'에 '-가'가 결합된 것도 '초점', '강조'의 기능을 한다. 실제로 '선생님이가[선재이가] 너르 오란다', '교장님이가[교자이가] 너르 찾는다'와 같은 경우에는 '-가'가 실현되는 반면, '동생이[동새이] 내보구 말했다'와 같은 경우에는 '-가'가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6)과 같은 이름 뒤에도 무조건 '-가'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특별히 '지시'하거나 '초점화'시키거나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만 실현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가'는 '-가'가 주격의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형태이다. 따라서 주격조사의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3.2.2.2. 특수조사

연변 지역어에는 주어 명사구에 '-(이)랑', '-(이)라메', '-(이)란게(랑게, 라는게, ㄴ게)', '-(이)사'의 형태, 목적어 명사구에 '-(이)라메', '-(이)랑', '-(이)나'의 형태, 관형어 명사구에 '-(이)라메', '-(이)랑'의 형태가 실현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들 조사들은 격조사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준 한국어의 격조사에는 없는 형태이다. 이들 형태들은 명사구에 문법적 기능을 행하기보다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들 형태들을 특수조사로 보고 격조사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그렇다면 아래에 이들 형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2.2.2.1. '-(이)랑', '-(이)라메'

'-(이)랑'은 일반적으로 열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특수조사이다. 열거를 나타내는 용법은 연변 지역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예 (7)과 같다.

(7) 가. 머이랑 샀니?

차메라메 수박이라메 땅까리라메...맛있능거 마이 샀다.

(=뭐랑 샀니? 참외랑 수박이랑 파³⁴리랑...맛있는 것으로 많이 샀어.)

나. 나라메 영숙이라메 다 곱게 생긴 축이지머.

(=너랑 영숙이랑 다 예쁘게 생긴 편에 속한다.)

(7)에서는 ‘-(이)랑’, ‘-(이)라메’가 열거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사용되어 특수조사로 작용한다. 이때 그 의미는 ‘포함’, ‘복수’이다. 즉, ‘-(이)랑’, ‘-(이)라메’는 어떤 대상을 해당 집합체에 귀속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집합체는 적어도 둘 이상의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랑’, ‘-(이)라메’를 사용하였을 때는 항상 ‘그 외에 또 다른’ 대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연변 지역어에서 특이한 것은 조사 ‘-(이)랑’, ‘-(이)라메’가 주격, 목적격, 공동격의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아래에 이들 형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주격의 자리에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8), (9)와 같다.

(8) 가. 우리 아버지랑 쌍발 할때면 긴 파차에다 개털모자를 쓰시구 땡겼지므.

(=나의 아버지께서 출근할 때면 긴 외투에 개털모자를 쓰시고 다녔어.)

나. 가는 인사이랑 얼마나 좋은두우 모른다!

(=개는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우리때는 배급이랑 그런게 없는데.

(=우리의 시대에는 배급³⁵⁾이 없었는데.)

(9) 가. 내라메 핵꼬 땡길때는 재정거 타구 다녔지므.

(=내가 학교에 다닐 적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나. 우리 헤이라메 공부 여영 잘했다!

(=나의 형이 공부를 아주 잘했다!)

(8)에서 보다시피 연변 지역어에서 주격조사의 자리에 ‘-(이)랑’이 나타났다. (8가)는

34) 중국 동북지역에서 나는 과일 열매의 일종이다.

35) 계획경제하에서 가구당 식량을 분배하는 정책을 ‘배급제’라고 한다.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인 경우 ‘-랑’이 결합된 예이고, (8나-다)는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인 경우 ‘-이랑’이 결합된 예이다. (8)의 명사 ‘우리 아버지’, ‘인상(印象)’, ‘배급’은 비록 독립적인 하나의 행위 주체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외의 또 다른 대상’까지 염두에 두고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8가)에서 ‘출근할 때 긴 외투에 개털모자를 쓰’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만의 특징이 아닌 그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의 특징이다. (8나)의 경우도 ‘가’는 ‘인상’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기타 부분도 좋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8다)의 경우도 ‘우리의 시대’에는 ‘배급’만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시대의 기타 내용들도 없는 것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또한, ‘-(이)랑’은 (9)에서처럼 ‘-(이)라메’로도 사용되는데, 화자에 따라 수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9가)와 같이 명사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인 경우 ‘-라메’가 결합되고, (9나)와 같이 명사의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인 경우 ‘-이라메’가 결합되기도 한다. (9)의 경우, ‘나라메’는 ‘나를 포함한 그 시절에 학교 다니던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고, ‘혀이라메’는 ‘혀를 포함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즉, ‘-(이)랑’, ‘-(이)라메’는 비록 주어의 위치에서 실현되고 단독 행위 주체로 나타나지만, 행위 주체가 소속된 집합체(그룹)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형태는 주격조사가 아닌 특수조사이고 ‘복수(複數)’, ‘포함’의 의미 기능을 한다.

다음, 연변 지역어에서 ‘-(이)랑’, ‘-(이)라메’는 목적격조사의 자리에도 나타나는데 그 예는 (10)과 같다.

(10) 가. 요즘에 거기 마이 추버졌다던데 우티랄 마이 주서입구 멩게라.

(=거기 요즘 상당히 추워졌다고 들었는데 옷을 많이 껴입고 다녀라.)

나. 돈이랑 마니 벌구 뺨츠 몰구 다시오라.

(=돈을 많이 벌어 뺨츠를 몰고 다시 찾아와.)

다. 주인집에 모에서 꼭 바가지라메 뚜드리메 노는데.

(=주인집에 모이면 어김없이 바가지 장단을 치며 놀았는데.)

라. 감주타령이라메 부르른 자라이들이 좋타구 죽짐.

(=‘감주타령’을 부르면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10)에서 보다시피 연변 지역어에서 목적격조사의 자리에 ‘-(이)랑’이 나타난다. (10가)는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인 경우 ‘-랑’이 결합된 예이고, (10나)는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인 경우 ‘-이랑’이 결합된 예이다. 이 지역어에서 ‘-(이)랑’은 ‘-(이)라메’로도 사용되는데, 화자에 따라 수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10다)와 같이 명사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인 경우 ‘-라메’가 결합되고, (10라)와 같이 명사의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인 경우 ‘-이라메’가 결합되기도 한다. (10)의 명사 ‘우티’, ‘돈’, ‘바가지’, ‘감주타령’은 비록 독립적인 하나의 행위 주체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외의 또 다른 대상’까지 염두에 두고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0가)에서 ‘마이 주서입구’는 ‘우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껴입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10나)의 경우도 ‘마니 별구’의 내용은 ‘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돈을 망라한 모든 채부’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10다)의 경우도 ‘뚜드리’는 대상은 ‘바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 그릇, 밥상 등등 기타 내용들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10)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감주타령이라메’는 ‘감주타령을 비롯한 기타 노래’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이다. 즉, ‘-(이)랑’, ‘-(이)라메’는 비록 목적어의 위치에서 실현되고 단독 대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는 대상이 소속된 집합체(그룹)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형태는 목적격조사가 아닌 특수조사이고 그 의미 기능은 ‘복수’, ‘포함’이다. 이 의미 기능은 주격조사의 자리에 나타난 ‘-(이)랑’, ‘-(이)라메’의 의미 기능과 같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연변 지역어에서 ‘-(이)랑, -(이)라메’의 형태는 공동격조사의 자리에서도 나타난다. 그 예는 (11)과 같다.

(11) 가. 영메라메 둘이서 하토치기 했는때(=영매와 단 둘이서 화토치기를 했다네)

나. 코플레기라메 놀아?(=별명이 코플레기인 애와 놀았어?)

(11)에서 보다시피 연변 지역어에서 공동격조사의 자리에도 ‘-(이)랑’이 나타난다.

(11)의 명사 ‘영매’, ‘코플레기’는 비록 독립적인 하나의 행위 주체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외의 또 다른 대상’까지 염두에 두고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8가)에서 ‘하토치’는 행위는 ‘영매’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토 치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11나)의 경우도 ‘함께 놀’ 대상은 ‘코플레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코플레기를 비롯한 기타 친구’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즉, ‘-(이)랑’, ‘-(이)라메’는 비록 공동격의 위치에서 실현되고 단독 대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면에는 대상이 소속된 집합체(그룹)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형태는 공동격조사가 아닌 특수 조사이고 그 의미 기능은 ‘복수’, ‘내포’이다. 이 의미 기능은 주격조사의 자리에 나타난 ‘-(이)랑’, ‘-(이)라메’의 의미 기능과 같게 나타난 것이다.

3.2.2.2.2. ‘-란게(랑게, 라는게, ㄴ게)’

‘-(이)란’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경우와 어떤 대상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차광일1981: 59-60).³⁶⁾ 연변 지역어에는 주격조사의 자리에 ‘-란게(랑게, 라는게, ㄴ게)’가 나타나는데 그 예는 (12)-(14)와 같다.

(12) 가. 한국남자랑게 알씨 좀만 기다려 했짐.

(=한국 남자가 ‘알았어, 좀만 기다려’라고 했다)

나. 짜개바지랑게 어찌 틀리꾸마.

(=짜개바지가 왜 틀리죠?)

(13) 가. 어찌 남자란게 그랜다니?

(=남자가 왜 그런대?)

나. 수수감부지라는게 멍까 옥씨짜그래재? 먹으무 달작지근한거.

(=수수대가 뭐죠? 옥수수대를 가리키잖아요? 먹으면 달콤한 것을!)

36) 차광일(1981:59-60)에서 든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그 아이는 사과란 도무지 먹지 않는다(직접보어); 나) 집에서란 그런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야(장소상황어).

다. 마다메라는게 어느마이 높게말하무 애기 놀라서 울겠소?

(=큰어머니가 얼마나 높이 말하였으면 애기가 놀라서 울까요?)

(14) 가. 한족아는게 어찌 몰라쓸까?

(=한족애가 왜 몰랐을까?)

나. 새간게 어찌이 복자바네 하는지...

(=다 큰 계집애가 얼마나 부산을 떠는지...)

(12)는 ‘-랑게’의 형태로 쓰인 예이고, (13)은 ‘-란게(라는게)’의 형태로 사용된 예이고, (14)는 ‘-는게’로 사용된 예이다. 이들 형태들은 화자에 따라 수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되는바 특수조사 ‘-(이)란’에서 변형되어 나타난 형태로 보인다. (12-14)의 예문에서 주어 명사 ‘한국남자’, ‘짜개바지’, ‘남자’, ‘수수감부지’, ‘마다메’, ‘한족아’, ‘새가’는 ‘-란게(랑게, 라는게, 는게)’와 결합하여 단순한 행위 주체나 상태(狀態)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된다. 즉, 이들은 ‘한국 남자의 속성’, ‘짜개바지의 속성’, ‘남자의 속성’, ‘수수감부지의 속성’, ‘마다메의 속성’, ‘한족아의 속성’, ‘새가의 속성’으로 사용된다. 이런 ‘속성’은 경우에 따라 일정한 ‘자격’, ‘개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란게(랑게, 라는게, 는게)’의 형태와 결합된 명사는 문장에서 ‘초점’화 되거나 ‘강조’가 되기 쉽다. (12가)의 ‘한국남자랑게’는 단순히 ‘한국 남자’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 예문이 사용된 언어 환경은 ‘연변 남자’와 ‘한국 남자’의 언어 표현 방식을 대조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변 남자’와 대조를 이루게 될 ‘한국 남자’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랑게’가 사용되었다. (12나)의 ‘짜개바지랑게’는 ‘짜개바지’의 용어적 ‘속성’을 나타낸다. 이 예문은 ‘짜개바지’라는 용어가 옳다고 주장하는 ‘화자’가 그 용어가 틀리다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따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짜개바지’의 용법이 ‘초점화’된다. (13가)의 ‘남자란게’는 ‘남자’의 ‘속성’에 의거하여 ‘남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13나)의 ‘수수감부지라는게’는 ‘수수감부지’의 ‘속성’이 ‘개념’으로 작용하고, ‘마다메라는게’는 ‘마다메’의 ‘속성’이 ‘초점’으로 작용한다. (14가-나)의 ‘한족안게’, ‘새간게’는 그들의 ‘속성’이 ‘강조’되면서 그 ‘속성’과 위배되는 현상에 대하여 강한 의문

을 나타낸다. 즉, ‘한쪽애’가 당연히 알아야 할 어떤 일을 모르는 것과 당연히 체신을 지켜야 할 ‘다 큰 계집애’가 부산을 떠는 행위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위임을 표현한다. 즉, ‘-(이)란게(랑게, 라는게, ㄴ게)’는 ‘속성’, ‘자격’, ‘개념’, ‘강조’, ‘초점’의 의미 기능을 하는 특수조사이다.

3.2.2.2.3. ‘-(이)사’

연변 지역어에는 주격조사의 자리에 ‘-(이)사’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 지역어에서 형태 ‘-사’는 특수조사 ‘-야’를 가리킨다. 특수조사 ‘-야’가 ‘-사’로 사용되는 현상은 연변 지역어뿐만 아니라 경상도 방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어 명사구에 실현된 ‘-(이)야’의 의미 기능을 차광일(1981)은 [+대조·구별], [+조건의 강조]로, 리영순·김기중(2006)은 [+강조]와 [+선택되는 조건]으로 본다. 백낙천(2006)에서는 조사 ‘-야’는 선택에서 제외된 내용이 배제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선택된 내용이 필수적이고 당연히 할 경우에 화자의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아래에 연변 지역어에서 주격조사의 자리에 나타난 ‘-사’의 형태를 살펴본다. 그 예 다음 (15)와 같다.

(15) 가. 제사 쏘사하느라구.

(=오히려 본인이 향수를 누리느라고.)

나. 울 엄마 산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셔!)

다. 북경이사 머나 다 발달했지.

(=북경이야 당연히 무엇이든 다 발달했지.)

라. 가네 집이 인물이사 좋지!

(=개네 집 식구들이 인물은 좋지!)

(15가-나)는 음절말 자음이 개음절인 주어 명사구에 ‘-사’가 결합된 예이고, (15다-라)는 음절말 자음이 폐음절인 주어 명사구에 ‘-이사’가 결합된 예이다. (15)의 예문에서 명사구 ‘제’, ‘울 엄마’, ‘북경’, ‘인물’에 ‘-(이)사’가 결합되어 이 명사구들과 같은 계

열에 있는 기타 대상들과 구별된다. ‘제(자기)’는 ‘자기가 아닌 기타 사람’, ‘올 엄마’는 ‘나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 ‘북경’은 ‘북경이 아닌 기타 도시’, ‘인물’은 ‘인물이 아닌 품성, 재력, 기타 등등’과 변별성을 이룬다. 이런 구별을 하는 이면(裏面)에는 ‘비교’의 속성이 작용할 것이고 그 효과는 ‘강조’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사’는 ‘비교·구별’, ‘강조’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5다)의 경우 ‘인물’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제기한 ‘조건’ 혹은 ‘선택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겠으나, ‘조건’은 어떤 행위나 상태의 ‘결론’에 이르러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사’는 이런 ‘결론’이나 ‘대책’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능을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선택’, ‘조건’을 주어 명사구에 실현되는 ‘-(이)사’의 의미 기능으로 보지 않는다.

3.2.2.2.4. ‘-이나’

연변 지역어에서 ‘-이나’는 목적격조사의 자리에 나타난다. 그 예는 (16)과 같다.

(16) 가. 풀이나 마이 심어주소.

(=풀을 많이 심어주세요.)

나. 연길 시스창 모태 가서 땅쿨러 장시나 해볼까 하는데 어뜨케 잘떨꺼 같슴등?

(=연길 서시장 부근에서 과일꼬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다. 감제이삭 좃게하른 설깔에 근들이 술이나 대접할까 했는데.

(=수확하고 난 뒤에 남은 감자를 줍게 하면 설에 근으로 파는 술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16)에서 ‘-이나’는 목적격조사의 자리에 나타난다. 연변 지역어에서 ‘-(이)나’는 “그 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특수조사 ‘-이라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최선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임을 나타낸다. (16가)에서 ‘풀이나 많이 심(다)’는 인터넷에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라는 표현인데, ‘더 이상은 바라지 않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면 만족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이나’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선택’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16나)는 여러 가지 장사 항목

가운데서 ‘땅쿨러 장사’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하는데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16다)는 ‘감자를 줍게 하는’ 보답으로 ‘근들이 술을 대접’하려고 하였음을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이나’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선택’의 의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나’는 연변 지역어에서 여러 가지 가운데서 ‘선택’된 대상에게 나타나고, 이 선택은 ‘비교적 만족스러움’이나 ‘비교적 합리적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이나’는 의미 기능을 더해주는 특수조사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고는 연변 지역어 주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랑’, ‘-(이)라메’, ‘-(이)란게(랑게, 라는게, ㄴ게)’, ‘-(이)사’의 형태, 목적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라메’, ‘-(이)랑’, ‘-(이)나’의 형태, 관형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라메’, ‘-(이)랑’의 형태가 격조사가 아닌 특수조사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랑’, ‘-(이)라메’에서는 ‘복수’, ‘포함’의 의미 기능이, ‘-(이)란게(랑게, 라는게, ㄴ게)’에서는 ‘속성’, ‘자격’, ‘개념’, ‘강조’, ‘초점’의 의미 기능이, ‘-(이)사’는 ‘비교’, ‘강조’의 의미 기능이, ‘-(이)나’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선택’,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의 의미 기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형태들을 (3)의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3.2.3. 연변 지역어에 없는 격조사 형태

표준 한국어 격조사에는 주격조사에 개음절 아래에서 실현되는 ‘-가’의 형태와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께서’의 형태가 있다. 하지만, (3)에서 보듯이 연변 지역어에는 이 두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래에 이 두 형태가 연변 지역어에서 나타나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준 한국어에서 주격조사 ‘-가’는 개음절 아래에서 실현되어 ‘-이’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하지만, 연변 지역어에서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나는 명사구가 주어의 위치에 놓일 때 주격은 무표성을 띠어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 예는 (15)와 같다.

(15) 가. 썩썩개 ϕ 온다!

(=정신질환자가 온다!)

나. 상추이란아 ϕ 대다이 놀랬지므.

(=상춘이 대단히 놀랐다.)

다. 내 친구들두 그재나두 구삼에 저나 ϕ 가득옴데다.

(=그렇잖아도 '9.3'³⁷⁾에 내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어요.)

라. 나는 엄마 ϕ 농민이 대서리 맨날 김치를 싸개꾸멍갯쓰구마!

(=엄마가 농민인 관계로 나는 매일 도시락에 김치를 싸서 다녔어요.)

(15)는 주어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나는 예이다. 이 경우 표준 한국어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실현되지만 연변 지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15가-나)는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는 명사 '썩썩개'와 '상추이란아'에 주격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은 예이다. (15다-라)는 서술어 '옴데다', '이(다)'가 나타내는 상태의 주체인 '전화'와 '엄마'에 주격조사 '-가'가 실현되지 않은 예이다. 이렇게 연변 지역어에서는 격식적인 언어 환경을 제외하고는 주격조사 '-가'의 실현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에 관한 논의는 한국어 격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연변 지역어처럼 주어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나는 환경에서 주격조사 '-가'가 일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이 지역어에 애당초 주격조사 '-가'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심하게 한다.

본고는 한인(韓人)이 연변 지역으로 이주한 배경과 주격조사의 발달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주격조사 '-가'가 형성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박명동(1996)은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주격조사의 형태 '이'와 'ㅣ'가 15세기에 개·폐음절 모두에 사용되었고, 주격조사의 형태 '-가'는 16세기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영준(1999:463)에 의하면 '-가'의 형태는 16세기 후반에 이중모음을 이루는 'ㅣ'뒤에서

37) '9.3'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 기념일이다.

제약적으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여 18세기부터 오늘과 같은 주격조사 ‘-가’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 그 근거는 16세기 후반에는 선행 체언 말음이 ‘이’나 ‘ㅣ(y)’ 모음이면, 주격조사가 ‘ ϕ ’의 형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가’를 진정한 의미의 주격조사로 보기 어렵고 주격조사 ‘ ϕ ’ 다음의 첨사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주격조사로서의 완전한 자격은 18세기부터 주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본고에서도 박영준(1999)의 견해에 비추어 주격조사 ‘-가’는 16세기 후반에 형태를 나타내어 17세기에는 주격조사로서의 기능을 획득하는 과정에 처해있었고 18세기부터 점차 주격조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다음, 연변 지역의 역사 환경을 살펴보겠다. 김동소·최희수·이은규(1994)에 의하면 연변 지역의 조상들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중국 대륙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자기의 언어를 잃고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었다고 한다. 그 뒤로 고려·이조초기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 동북 지역에 정착하였는데, 이 시기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전승하였다. 이 시기가 14세기 초·중반에서 20세기 초반에 해당된다. 15세기에 사용되던 주격조사 ‘-이, ㅣ’의 형태도 이 시기에 연변 지역어의 형성에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고 18세기에 주격조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주격조사 ‘-가’의 형태는 왜 연변 지역어의 형성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본고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 기인한 현상으로 추정한다.

첫째, 한반도와 중국 대륙 간의 교류가 중단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한다. 1677년부터 근 200년간 당시의 중국 청나라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천여 리 지구(地區)를 청조(淸朝, 청나라)의 발상지라 하여 봉쇄해 버렸다. 그리하여 연변 지역에 남아 있던 한인(韓人)들은 고립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한반도에서 진행된 언어 현상은 연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이다. 주격조사 ‘-가’가 그 대표적인 예인바,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는 주격조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전환의 시기에 처해 있던 이 언어 현상은 연변 지역어의 형성에 합류하지 못하였다.³⁸⁾

둘째, 연변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의 출신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김철호(2004)에 의하면 1860년부터 1870년까지의 11년간 한반도에는 자연재해가 끊임 없이 일어났다. 특히 주목되는 사건은 1869년 기사년(己巳年)에 함경도의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흥 등 6진에 덮쳐든 한재(旱災)이다. 이 시기 함경도 난민(難民)들은 청나라의 봉금령에도 불구하고 월경하여 연변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청나라는 연변 지역에서 주류를 차지하게 된 한인(韓人)들에게 거주증(居住證)을 발급하고 봉금령을 폐지하였다. 본고는 이 시기 이주민이 주로 함경도 출신인 점에 주목하였다. 보수적인 언어 특징을 지닌 함경도 방언은 고립된 연변 지역어와 합류하는데 크게 모순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연변 지역 이주민들 가운데 함경도 출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사실도 연변 지역어에 주격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주격조사 ‘-이’는 고립되었던 연변 지역어에서 깊은 뿌리를 내렸고, 이런 현상은 200년 뒤에 한반도와 중국 대륙 간의 교류가 재기된 뒤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다.³⁸⁾ 연변 지역어에서 주어 명사구의 음절말이 ‘이’로 끝나거나 ‘이’가 결합된 형태일 때, 주격조사처럼 보이는 ‘-이가’가 나타나는 현상도 17, 18세기에 진행된 이 언어 현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연변 지역어에는 지금도 주격조사 ‘-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격조사 ‘-가’가 실현되어야 할 자리에 기타 특수조사가 나타나거나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준 한국어에서는 [+존대]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구 뒤에 격조사가 실현될 때 ‘-께서’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말뭉치에서 추출된 형태 목록 (3)에서 보다시피 연변

38) 교류가 중단되기 전과 재기된 후에 일부 이주민들은 ‘-가’의 형태를 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변 지역에서 ‘기존의 언어’는 새로운 이주민들에 의해 이입(移入)되는 ‘새로운 언어’ 현상에 비하여 주류(主流)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발달 과정에 있던 ‘-가’의 형태를 접한 ‘새로운 이주민’들도 이 지역의 주류 언어에 합류하여 ‘-가’의 형태를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상은 이주민의 언어 현상을 분석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들에서 증명되고 있다. 또한, 연변 지역어가 보수적인 함경도 방언을 토대로 형성된 점을 참조할 때 ‘-가’의 형태가 기존의 주격조사 ‘-이’와의 경쟁에서 절대적인 약세에 처했을 것임이 예상된다.

39) 중부방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19세기까지 남아 있었음이 확인된다. 가) 조선 전국이 태평호야 나라이 강하고 ; 나) 두 나라이 서로 싸흔제에 위의 예문은 <<독립신문>>(1896)에서 나타난 것인데 체언 말음이 모음인데도 주격표지 ‘-이’가 나타나고 있다(이상규1999: 128).

지역어에는 존대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예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가. 우리 아버지랑 쌍발할때면 긴 따차에다 개털모재를 쓰구 땡겼지므.(=나의 아버지께서 출근하실 때면 긴 외투에 개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다니셨어.)

나. 선재 ϕ 지금 너르 오란다.

(=선생님께서 지금 너더러 오라고 하셔.)

다. 니네 엄마 ϕ 집에 있나?

(=너의 어머니께서 집에 계셔?)

(16)에서 ‘아버지’, ‘선생님’, ‘어머니’는 [+존대]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이다.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는 이들 명사가 주어로 나타날 때 [+존대]를 나타낼 수 있는 주격조사 ‘-께서’가 실현된다. 하지만 연변 지역어에서 이런 명사들에 주격이 실현될 때는 (16)에서와 같이 ‘-께서’가 실현되지 않고 [-존대]를 나타내는 기타 형태가 나타나거나,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연변 지역어에는 존대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께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는 그 원인을 주격조사 ‘-께서’가 나타난 시기와 연변 지역의 역사 환경을 통하여 찾으려고 한다. 김승곤(1992)에 의하면 15세기에는 ‘-이’가 존비칭에 통용되었다. ‘띄셔’는 ‘그어귀’계의 ‘그귀’의 축약형 ‘찌’에 ‘이시어>이셔>셔’가 합하여 된 것으로 보아진다. 이 형태는 주로 17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하다가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존대]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께서’는 주격조사 ‘-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7세기에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쳤는바, 이 시점에 연변 지역은 고립되어 있었고 한반도와의 교류가 중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존대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께서’도 연변 지역어 형성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연변 지역어에는 주격조사 ‘-가’와 ‘-께서’의 형태가 없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변 지역어 격조사가 표준 한국어에 비해 특이한 부분이다.

3.3. 격조사 목록

본고는 말뚝치에서 추출된 형태 목록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주격의 자리에서 발견된 ‘-가’, 목적격 자리에서 발견된 ‘-을, -를’, 관형격 자리에서 발견된 ‘-의’, 부사격의 하위범주인 공동격조사의 자리에서 발견된 ‘-와, -과’는 게시글의 특성상 문어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형태로 판단되어 (3)의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주격의 자리에 나타나는 ‘-이가’의 형태를 격조사 ‘-가’가 주격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형태로 보아 역시 (3)의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주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랑’, ‘-(이)라메’, ‘-(이)랑게(랑게, 라는게, ㄴ게)’, ‘-(이)사’의 형태, 목적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라메’, ‘-(이)랑’, ‘-(이)나’의 형태, 관형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이)라메’, ‘-(이)랑’의 형태가 격조사가 아닌 특수조사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들 형태들도 (3)의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그렇다면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형태 목록은 (17)과 같이 정리된다.

(17) 연변 지역어 격조사 목록

가. 주격조사: -이

나. 목적격조사: -으, -우, -르

다. 관형격조사: -에, -이

라. 부사격조사

- ①. 처격조사: -에, -메, -에서, -메서, -서, -ㄴ, -ㄴ 데, -에다, -에다가, -다, -다가, -다대구, -에게, -보구, -한테, -한테서, -ㄴ 데, -인데, -인데서
- ②. 향격조사: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을러, -을르
- ③. 구격조사: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을러, -을르
- ④. 공동격조사: -까, -하구

⑤. 비교격조사: -같이, -마, -마이, -보다, -처럼, -처럼프

(17)의 목적격조사에 ‘-우’의 형태가 발견된다. 이는 목적격조사 ‘-으’가 선행 음절의 음운 자질에 의하여 동화 현상을 겪어서 나타난 형태이다. 따라서 ‘-우’는 ‘-으’의 음운상의 이형태이다. 관형격 자리에 나타난 ‘-에, -이’의 형태도 관형격조사 ‘-의’가 상대적으로 발음하기 쉬운 ‘에’와 ‘이’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에’와 ‘-이’ 역시 음운상의 이형태이다. 구격조사와 향격조사의 자리에서 나타난 ‘-을루, -을러’와 ‘-르, -루, -러’ 역시 화자의 발음에 따른 수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들 형태들도 각각 음운상의 이형태이다.

제4장 연변 지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

본 장에서는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격조사 의미 실현, 격조사 교체, 격조사에 따른 대명사의 형태 교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4.1. 격조사의 의미 실현

본 절에서는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의미 실현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격조사의 의미 실현 양상은 격조사의 선행 명사구의 의미, 서술어의 논항 및 의미와 관련시켜 고찰된다.

4.1.1. 주격조사

연변 지역어에서 주격조사는 3장에서 제시한대로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한국어의 주격조사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변 지역어에서도 주격조사 ‘-이’의 실현은 음운적인 실현 양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현대 한국어와 비슷하게 사용되어 특별히 논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서는 연변 지역어의 주격조사 ‘-이’에 대하여 확인하는 차원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 연변 지역어에서 주격조사 ‘-이’는 (1), (2)와 같이 실현된다.

(1) 가. 해질녁에 간에 나가 모까하므 물이 때때부리항게 영 좋습더구마.

(=해질녁의 강은 물이 따뜻하여 목욕하기 아주 좋았어요)

나. 세세끼랑 염소라메 뿔이 잇지 개느 월래 뿔이 없그등.

(=소나 염소한테 뿔이 있고 개한테는 원래부터 뿔이 없거든.)

다. 그래두 일뚱 하니 기부^의 영 좋습다.

(=하찮은 것이라도 일등을 하니 기분이 아주 좋아요.)

라. 요즘 사람들은 입^의 고급이라서 아무거 먹어두 별루 맛있는거 모르집.

(=요즘 사람들은 입맛이 고급스러워서 뭘 먹어도 맛을 못느낀다.)

(1)에서 주격조사가 실현된 명사구 ‘물’, ‘뿔’, ‘기분’, ‘입’은 모두 음절말이 폐음절로 끝난 명사이고, 동사구에 실현된 ‘때때부리하(다)’, ‘있(다), 없(다)’, ‘좋다’, ‘고급이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2) 가. 속^의 후들후들 거려서 말^의 나가지 않^는구나.

(=마음이 긴장되어 말이 안 나간다.)

나. 오늘저녁 가짜 알귀토우 매상^의 또 올라갈게다.

(=오늘 저녁에 또다시 가짜 알귀토우⁴⁰⁾ 술 매상이 올라갈 거야.)

다. 나의 일뻘한 삶에도 깜짝 소식^의 왔으람 좋겠^다.

(=어정쩡한 나의 삶에도 깜짝 놀랄만한 좋은 소식이 오면 좋겠다.)

라. 어우야, 신경질^의 난다야!

(=아이, 짜증나!)

(2)에서 주격조사가 실현된 명사구 ‘속’, ‘말’, ‘매상’, ‘소식’, ‘신경질’은 모두 음절말이 폐음절로 끝난 명사구이고, 동사구에 실현된 ‘후들거리(다)’, ‘나가(다)’, ‘올라가(다)’, ‘오(다)’, ‘나(다)’는 모두 동사이다.

예문 (1)과 (2)를 통해서 보다시피 주격조사 ‘-이’는 모두 음절말이 폐음절로 끝난 명사구에 실현된다. 그중 (1)의 예는 서술어가 형용사로 되어 있고, (2)의 예는 서술어가 동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연변 지역어에서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로 끝나는 주어 명사구 뒤에는 일반적으로 주격조사 ‘-이’로 실현된다.

40) 중국의 이과두주(二鍋頭酒)를 가리킨다.

연변 지역어에서 주격조사 ‘-이’는 특이하게 (3)과 같은 인용문에서도 실현된다.

(3) 가. 택시 사기한테 하는 말인 “師傅 前面 突然 左拐, 剎車巴”.(=택시기사에게 “아저씨, 앞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꺾고 급정거하세요.”라고 말하였다.)

나. 싸우면서 하는 말인 “這個 你 土地 啊?”.

(=싸울 때 “이게 너의 땅이야?”라고 대들었다.)

다. 우쭐대며 하는 말인 “아드르 잘 뵈지예?”

(=우쭐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들 잘 두셨지요?”이다.)

라. 마지막에 아이되므 하는 말인 “니 똥이 굶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을 때면 “너의 똥이 굶다”라는 욕설을 퍼붓는다.)

(3)에서 보다시피 연변 지역어에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였다’라는 인용문을 표현할 때 ‘-라고 하였다’를 사용하지 않고 ‘누가 하는 말이’ 뒤에 인용구를 직접 사용하여 끝맺는다. 즉, 인용문 뒤에 본래 있었을 서술격조사 ‘이다’가 생략되었다. 이 경우의 주격조사 ‘-이’가 나타난 문장구성은 한문(漢文)에서 동사 ‘왈(曰)’⁴¹⁾이 나타나는 문장구성과 비슷한 구성형식을 보인다. 본고는 이런 현상을 중국어(漢語)의 영향을 받은 연변 지역어의 한 특징으로 본다.

4.1.2. 목적격조사

연변 지역어의 목적격조사는 3장에서 제시한대로 ‘-으’와 ‘-우’, ‘-르’의 형태가 존재한다. 먼저, 목적격조사 ‘-으’, ‘-르’의 실현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 (4)와 같이 나타난다.

41) 왈(曰)은 ‘공자 왈’, ‘맹자 왈’과 같은 예문에서 ‘가로되’, ‘가라사대’의 의미 기능을 한다.

(4) 가. 그냥 삶아논 수돼지처럼 눈으 감구 가야겠다.

(=삶은 수돼지처럼 눈을 딱 감고 가야겠다.)

나. 내 거털중에 씹은 데게 잘하는 아 있다.

(=내 친구 중에 싸움을 아주 잘하는 애가 있다.)

다. 나두 너르 행폐없이 사랑한다.

(=나도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다.)

(4가-나)에서 보다시피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이면 목적격조사는 ‘-으’거나 ‘-우’의 형태로 실현된다. (4다)에서처럼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일 때 그 폐음절이 [+lab]의 자질을 가진 원순자음으로 끝나면 목적격조사 ‘-으’는 동화되어 [+lab]자질을 가진 원순모음인 ‘-우’로 실현된다.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이면 목적격조사는 ‘-르’로 실현된다. 즉, ‘-으’와 ‘-르’는 음운 조건에 따른 이형태이다. 목적격조사 ‘-으’, ‘-르’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격조사는 일반적으로 행동이 미치는 대상에 실현된다. 연변 지역어에서도 이런 의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예는 (5)와 같다.

(5) 가. 동미 글쎄 나르 생각해서 중매서주는거는 고마븐데.

(=당신이 나를 관심하여 중매를 서주는 데 대해서는 고마운데.)

나. 넘죽한들으 놓구 그거서 빨래한다말이꾸마.

(=넙적 돌을 놓고 그 위에서 빨래를 한다 말이요?)

다. 허전한 마음으 달래려고 가짜 알귀토르 한병 담새기다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자 가짜 술을 한 병 마시다가.)

라. 술이란 이관으 무사하게 넘지못하른 왈라왈라!

(=금주(禁酒)의 고비를 못 넘기면 다 끝이야!)

(5가-나)는 구체적인 대상인 ‘나’, ‘돌’에 목적격조사 ‘-르’, ‘-으’가 실현되어 서술어 ‘생각하다’, ‘놓다’의 대상으로 작용한 예이다. (5다-라)는 추상적인 대상인 ‘마음’, ‘관(關)’

에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되어 서술어 ‘달래다’, ‘넘다’의 대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5)의 목적격조사는 [+대상]의 의미 기능을 한다. 이들 명사구는 모두 서술어의 행동이 미치는 대상으로서 이때 목적격조사는 [+대상]의 의미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 기능은 연변 지역어 목적격조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기능이다.

둘째, 연변 지역어의 목적격조사는 공간 범주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결합되어 유동성(流動性)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 (6)과 같다.

(6) 가. 내일이르 영길으 떠나우.

(=내일에 연길을 떠나요.)

나. 식따아 차린게 다 망하구 이번에 유씨탕으 시작하우.

(=식당을 차렸더니 다 망하고 이번에 새롭게 게임방을 시작해요.)

다. 지금 생각해보니 눈물이 앞으 가립다.

(=지금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라. 그우에르 걸어다녔재.

(= 그 위를 걸어 다녔잖아.)

(6가)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 ‘영길’에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되어 서술어 ‘떠나다’와 함께 ‘출발점’의 의미 기능을 한다. (6나)는 명사구 ‘유씨탕’에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되어 서술어 ‘시작하(다)’와 함께 ‘시작점’의 의미 기능을 한다. (6다-라)는 ‘배경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 ‘앞’, ‘그우에’에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되어 서술어 ‘가리(다)’, ‘걸어다니(다)’와 함께 ‘경유지’의 의미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목적격조사 ‘-으’, ‘-르’는 (6가-나)에서처럼 [+장소], [+공간]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와 서술어의 관계에 의해서거나, [+출발점], [+시작점]의 의미자질을 가진 서술어에 의하여 ‘출발점’, ‘시작점’, ‘경유지’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6)의 목적격조사는 ‘유동성’의 의미 기능을 한다.

셋째, 연변 지역어 목적격조사는 [+수량], [+횟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결합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 예는 (7)과 같다.

(7) 가. 고치갈그 한수르 나두 나는 예 매바서 눈물흘리끄마.

(=나는 고춧가루 한 술만 넣어도 매워서 눈물을 흘려요.)

나. 매일매일 운동자아 두고패르 도니까 잠이 잘 옵데!

(=매일 운동장 두 바퀴를 도니 잠이 잘 왔어요.)

다. 오들오들 떨메 한시간으 기다리구 또 한시간으 기다리구.

(=오들오들 떨면서 한 시간을 기다리고 또 한시간을 기다리고...)

라. 엄마 하루밤은 자고나른 온다했다.

(=엄마는 하룻밤만 자면 온다고 했어.)

(7가)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구 ‘한술’에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된 예이고, (7나)는 [+횟수]를 나타내는 명사구 ‘두고패’에 목적격조사 ‘-르’가 실현된 예이다. (7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한시간’, ‘하루밤’에 목적격조사 ‘-으’, ‘-우’가 실현된 예이다. 이들 예문은 행동이 미치는 대상에 목적격조사가 실현된 것이 아니라 그 보충적인 내용인 ‘수량’, ‘횟수’, ‘시간’에 목적격조사가 실현된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심층구문을 제시하면 (8)과 같다.

(8) 가. 고치글그르 한술 나두

나. 매일매일 운동장으 두고패 도니까

다. 오들오들 떨메 (누구)르 한시간 기다리구

라. (잠)으 하루밤 자고나른

(8)에서 보면 심층구문에서 목적격조사는 ‘고치갈기’, ‘운동장’, ‘누구’, ‘잠’에 실현된다. ‘한술’, ‘두고패’, ‘한시간’, ‘하루밤’은 이런 목적어의 보충적 내용으로서 행동이 실제로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연변 지역어에서는 (8가-나)와 같이 목적어를 분명하게 표현해주는 ‘한술’, ‘두고패’에 목적격조사가 실현되거나, (8다-라)와 같이 목적어가 표

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지만 목적어의 보충적인 내용인 ‘한시간’, ‘하루밤’에 목적격조사가 실현되어 그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분명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이때, 목적격조사 ‘-으’, ‘-르’는 ‘보충’, ‘명시성’의 의미 기능을 한다.

4.1.3. 관형격조사

연변 지역어의 관형격조사는 3장에서 제시한대로 ‘-에’와 ‘-이’의 형태가 있다. 먼저, 관형격조사 ‘-에’, ‘-이’의 실현 환경을 살펴본다. 그 예는 (9)와 같다.

(9) 가. 8월이무 간변옆에 옥시밭에 옥시 뜻따가 낫으 든 밭임잔데 쫓길땐데.(=8월이면 간변 옆의 옥수수밭의 옥수수를 뜯다가 낫을 든 밭주인에게 쫓겨날 때인데.)

나. 옥썤에 옥씨알으 뜯어먹어라.

(=옥수수의 알을 훔어서 먹어봐라.)

다. 남이 집으 어째 들따보니?

(=왜 남의 집을 들이보지?)

라. 일본놈이 시커먼 속으 우리 모를까바.

(=우리가 일본 사람의 검은 속셈을 모를까봐.)

(9가)에서 관형격조사 ‘-에’는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로 끝난 명사구 ‘간변옆’, ‘옥시밭’에 실현된다. (9나)에서 관형격조사 ‘-에’는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난 명사구 ‘옥썤’에 실현된다. 이렇게 관형격조사 ‘-에’는 음운 조건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현된다. 이에 반하여 관형격조사 ‘-이’의 쓰임은 본 말뭉치에서 (9다-라)의 예문을 제외하고 더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9다-라)의 공통점은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원순자음 ‘ㄹ’로 끝난 것이다. 하지만, ‘바람의 영향’, ‘가뭇의 날씨’와 같은 예문에서 관형격조사는 ‘-이’가 아닌 ‘-에’로 실현되어 ‘바라메 영향’, ‘가뭇메 날씨’로 사용된다. 따라서 마지막 음절이 ‘ㄹ’로 끝나는 것과 관형격조사 ‘-이’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이 지역어에서 관형격조사 ‘-이’는 ‘남’, ‘놈’과 같은 특정 단어에만 실현되는 특수한 현상으로 보인다. 관형격조사 ‘-에’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 지역어에서 관형격조사 ‘-에’는 소속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 예는 (10)과 같다.

(10) 가. 우리집에 로무주는 죽두 아이먹구 꼬디만 쓰지.

(=우리 집의 암돼지는 죽도 안 먹고 심술만 부린다.)

나. 양로우첼뎨에 양념이 초우스서 사먹는거보다 더 맛있지않니?

(=양꼬치구이집의 양념이 마트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잖아?)

다. 조이에 글째 지내 쩌꼬매서 어디 보겠니!

(=종이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어디 보이니!)

라. 초우스에 떠우나이 여영 잘 팔린다!

(=마트의 두유가 아주 잘 팔린다!)

(10)은 앞 명사구(NP1)와 뒤의 명사구(NP2) 사이의 소속관계를 나타내는데 ‘NP1이 NP2에 소속되어 있음’을 표현한다. (10가)에서 ‘로무주’는 ‘우리집’의 가축이고, (10나)에서 ‘양념이’는 ‘양로우첼뎨’에 있는 대상이고, (10다)의 ‘글째’는 ‘종이’위에 찍여져 존재하고, (10라)의 ‘떠우나이’는 ‘초우스’에서 파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때의 관형격조사 ‘-에’는 ‘소속단위’의 의미 기능을 한다.

둘째, 연변 지역어에서 관형격조사는 어떤 조건이나 범위를 한정할 때도 사용된다. 그 예는 (11)과 같다.

(11) 가. 글구 농촌에 베모철에 일 끝나구

(=또한 농촌의 모내기철의 일이 끝나고 나서)

나. 그래두 화룽에 옥시 맛있지.

(=역시 화룽의 옥수수가 맛있다.)

다. 하기가 쫄꼬말때 나쁘 지금에 장동건처럼 잘생겼지.

(하긴, 나도 어릴적에 지금의 장동건처럼 잘 생겼었지.)

라. 열에 아홉은 그런 애들이다.

(=열 명중의 아홉 명은 그런 애들이다.)

(11가)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 ‘농촌’과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베모칠’에 관형격조사 ‘-에’가 실현된다. 이 경우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모두 뒤에 오는 명사 ‘일’의 장소와 시간 범주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11나)의 경우도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 ‘화룡’은 뒤에 오는 ‘맛있는 옥시’의 조건(출처)를 제한한다. (11다)의 경우,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지금’은 뒤에 오는 ‘장동건’이 출현한 그 시대적인 조건을 한정해준다. (11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관형격조사 ‘-에’가 실현된 예이다. 여기서 ‘아홉’은 ‘열명’안에 국한된다. 따라서 (11)에서 관형격조사 ‘-에’는 수량,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구(NP1)가 다른 명사구(NP2)의 조건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 기능을 한다.

셋째, 앞의 명사구(NP1)가 뒤의 명사구(NP2)의 ‘비유적 속성’이나 ‘비유적 특성’을 나타낼 때에도 관형격조사 ‘-에’가 실현된다. 그 예는 (12)와 같다.

(12) 가. 썩새미 정신으 발휘해서

(=썩새미의 정신을 발휘하여)

나. 옛날에는 강철에 정신, 강철에 손, 강철에 의지 요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니!

(=옛날에는 강철의 정신, 강철의 손, 강철의 의지와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니!)

(12가)에서 명사구(NP1)인 ‘썩새미’는 [+벌레]로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여기서 ‘썩새미’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땅에서 부지런히 기어 다니는 특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12나)에서 ‘강철’은 실제 ‘강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속성’을 의미한다. 즉, ‘강철’은 뒤에 따라오는 ‘정신’, ‘손’, ‘의지’의 [+비유적 속성]인 [+단단함], [+굳셈]을 의미한다.

4.1.4. 부사격조사

4.1.4.1. 처격조사

연변 지역어의 처격조사는 3장에서 제시한대로 ‘-에, -때, -에서, -때서, -서, -ㄴ, -ㄴ데, -에다, -에다가, -다, -다가, -다대구, -에게, -보구, -한테, -한테서, -ㄴ데, -인데, -인데서’의 형태가 포함된다. 아래에 이들 형태들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처격조사 ‘-에’는 일반적으로 공간범주나 시간범주를 나타내는 명사구의 뒤에 실현된다. 그 예는 다음 (13)과 같다.

(13) 가. 설깔에 근들이 술이나 대접할까 했는데.

(=설 기간에 근으로 떠서 파는 술이나 대접하려고 했는데)

나. 비 구질구질 오는날에 바지르 쑥 거더올리구서 놀라라메가구.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날에 바지를 쑥 걸어 올리고 놀러 다니고)

다. 손뜨에 올려놓구 보배보배시집가라 이런것두 잘놀았재꾸마. (=무당벌레를 손등에 올려놓고 ‘보배보배 시집가라’라는 노래를 부르는 놀이도 늘 했잖아요)

라. 쏘푸톨라지에 앉아서 두두두두하면서 잘 땡겼는데.(=늘 트럭에 앉아 입으로 두두소리를 내면서 놀았는데)

(13)은 전형적인 처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보여주는 예이다. (13가-나)에서 시간범주를 나타내는 명사구(NP) ‘설깔’, ‘비 구질구질 오는날’에 ‘-에’가 실현되어 각각 ‘술이나 대접하’는 사건과 ‘바지르 쑥 거더올리구서 놀라라메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시간적 배경의 의미 기능을 한 것이다. (13다)에서 보면 처격조사 ‘-에’의 앞음절 말음 ‘ŋ’이 탈락되는데 이는 이 지역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음절말음 탈락현상이다. (13다-라) 역시 전형적인 처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보여주는 예인바, 공간범주를 나타내는

명사구 ‘손뜨’, ‘쏘푸톨라지’에 ‘-에’가 실현되어 ‘장소’의 의미 기능을 한다. 처격조사 ‘-에’와 연결되는 명사구의 의미자질보다는 서술어에 의한 의미 기능이 주목되는 예들도 존재한다. 다음 (14)에서처럼 서술어 ‘있다’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14) 가. 내 거털중에 싸우 데게 잘하는 아 있다.

(=나의 절친들 가운데 싸움을 아주 잘하는 애가 있다)

나. 뺨들이랑게 모까하다가 개발헤염치다가 물에 반듯이 서 있다가 뒤로 그대로 자 빠지는 게 뺨들이지무.(=‘뺨들’이란 목욕하고 난 뒤에 ‘개발’수영을 하다가 물속에 반듯하게 서는 자세를 취한 뒤에 뒤로 넘어지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14)에서 (14가)의 ‘거털중’은 공간적 범주를 나타내지 못하는 명사구이고, (14나)의 ‘물’은 공간범주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이다. 따라서 (14)는 처격조사 ‘-에’가 실현되는 명사구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서술어 ‘(-이, -아/어)있다’에 의하여 의미 기능을 갖게 된다. (14가)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애’의 존재범위를 ‘내 거털중’으로 한정하였고, (14나)에서는 ‘반듯이 서잇’는 행위의 존재범위를 ‘물속’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14)는 처격조사 ‘-에’가 실현됨으로 하여 대상의 존재범위를 한정시키는 작용을 하는바 ‘범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처격조사 ‘-에’가 서술어와 명사구의 의미가 공동으로 관여하여 ‘조건’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문 (15)와 같다.

(15) 가. 얼마나 추웠던지 입김에 털모재 털이 젖으메 얼음이 따닥따닥 얼어붙었지.

(=얼마나 추웠으면 입김에 털모자의 털이 젖어서 얼음이 되어 대롱대롱 달렸다.)

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 악착스럽게 매달겨있는 쪽썰미 정신을 발양하여.

(=흔들리는 바람에도 악착스레 나뭇잎에 붙어 있는 벌레의 정신으로.)

다. 지금까지 저축통장은 빈타시구 쏟로의 생활은 매일 비에 젖어있는다.

(=여태껏 빈 저축 통장으로 보내는 쏟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비에 젖은 것처럼 우울하다.)

라. 그 인물체격에 왜 아직두 새기없냐고, 바보 아인가 하멘서리.

(=그 좋은 인물과 몸매로 왜 아직까지 신붓감이 없냐고, 바보가 아니냐고 하면서)

(15)의 명사구 ‘입김’, ‘바람’, ‘비’, ‘인물체격’은 모두 [+자연조건]이다. 또한, (15가-다)의 서술어 ‘젓(다)’, ‘흔들리(다)’는 [-의지], [+결과적인 상태]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15라)에서 처격조사 ‘-에’와 관련된 서술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구 ‘인물체격’은 화용론적 환경에 의하여 ‘결혼조건’으로 통하기 때문에 ‘결혼상대를 찾기 유리함’의 의미정보를 갖는 서술어를 내재한다. 이 내재 서술어 또한 의지와는 상관없는 결과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15)에서처럼 명사구가 [+조건]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서술어가 [-의지], [+결과적인 상태]의 의미자질을 가질 때 처격조사 ‘-에’는 이들 서술어와 명사구의 의미관계에 의하여 ‘조건’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연변 지역어에서 ‘-에’는 의존 명사의 뒤에서 실현되면서 갖는 의미 기능도 있는데 그 예는 (16)과 같다.

(16) 가. 이걸 보구 매쓸에 정신이 나서 답장으 써버렸다.

(=이것을 보고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욕이 생겨서 답장을 썼다)

나. 개차반아즈바이 까이항하는 바람에 합또 해는 도투새끼는 물레야 겠으꼬마.

(=‘개차반’아저씨가 직종을 바꾸는 바람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던 돼지는 환불받아야 하겠어요)

(16가)에서 처격조사 ‘-에’가 실현된 명사구 ‘매쓸’은 ‘정신이 나’는 이유적인 설명이다. 연변 지역어에서 ‘매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어김없이 처격조사 ‘-에’가 실현된다. (16나)에서 처격조사 ‘-에’와 결합한 명사구 ‘개차반아즈바이 까이항하는 바람’은 서술어 ‘물레야 겠으꼬마’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나바람’에는 ‘상황에 따른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역시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어김없이 처격조사 ‘-에’가 실현된다. 따라서 (16)에서 ‘-에’는 의존명사 ‘매쓸’과 ‘바람’이 나타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작용하며, ‘원인’의 의미 기

능을 나타낸다.

(17) 가. 아직 좀기다림소에, 내 밖에 나갔다가 인차올게예.

(=내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올테니 좀 기다려 주세요.)

나. 헤떼르 가르물멘서 치매르 까꼴르 쓰구 헤란가에 뛰어드는 심칭이 심저임다.

(=혀를 가로 물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헤란강에 뛰어드는 심칭의 심정입니다.)

다. 금방 쏘츠뿌에 전화해서 피쥬르 갯다달라구 했네라.

(=방금전에 매점에 전화하여 맥주를 주문하였다.)

(17)에서 처격조사가 실현된 명사구 ‘밖’, ‘헤란가’, ‘쏘츠뿌’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 예문에서 서술어 ‘나갔다’, ‘뛰어드(르다)’, ‘전화하다(전화걸다)’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방향성을 갖는 행위이다. 따라서 (17)의 명사구는 ‘배경장소’나 ‘존재의 장소’가 아니라 ‘목표장소’이다. 이때 (17)의 처격조사 ‘-에’는 ‘도달점’의 의미 기능을 한다.

처격조사 ‘-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간범주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에서’가 결합되어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된다. 연변 지역어에서도 이러한 쓰임이 확인되는데 그 예는 (18)과 같다.

(18) 가. 자꾸 물어보는게 시꾸러바서 뒤골목에서만 어세빈다.

(=자꾸 물어보는 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피하여 뒤골목에서만 활동한다)

나. 어간에서 동미 소개시케농구서 시집살이 할까바 걱제 대서 그러오!

(=가운데서 친구를 소개시켜준 관계로 괜한 시집살이를 하게 될까 걱정돼서 그런다)

다. 머사달란테 안사주무 쏘푸리에서 막 드러누워서 애먹었다꾸마.

(=상점에서 사주라는 것을 안 사주면 막 드러누워서 애를 먹이셨대요)

(18가)의 ‘어세빈다’는 연변 지역어로서 ‘두리번거리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뒷골목’은 ‘어세빈다’의 활동장소로 작용한다. (18나)에서 ‘어간’은 연변 지역어에서 ‘가운데’ 혹은 ‘사이’ 대신에 사용되는 단어인데, 소개받은 두 사람 사이에 끼인 관계를 말한다. 즉, ‘어간’은 ‘소개’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배경이 된다. (18다)에서 ‘쏘푸리’는 ‘상점’을 뜻하는데 ‘막 드러누워서 애떡’이는 장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18)의 처격조사 ‘-에서’는 활동배경의 의미 기능을 한다.

처격조사 ‘-에서’는 공간의 전이(轉移)를 나타내는 서술어에 의하여 의미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예문 (19)와 같다.

(19) 가. 사리마대 거르마이에서 돈 꺼내 채소 사구.

(=바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채소를 사고)

나. 그것도 책에서 빼껴쓰느라구.

(=그나마 책에서 빼껴 쓰느라고)

다. 립해설원에서 나오는 양자영이 쓴 그런 개털모자 봤음지.

(=“립해설원”에서 나오는 양자영이 쓴 그런 개털 모자를 봤겠조)

(19)에서 서술어 ‘꺼내다’, ‘빼끼다’, ‘나오다’는 하나의 장소에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두 공간 사이의 전이를 통하여 일어나는 행위이다. (19가)에서 ‘거르마이’는 ‘돈’의 출처가 되고, (19나)에서 ‘책’은 ‘빼껴쓰’는 내용의 출처가 되며, (19다)에서 ‘립해설원’은 주인공 ‘양자영’의 출처가 된다. (19라)의 ‘짜이’ 역시 ‘사진’의 출처이다. 따라서 (19)의 처격조사 ‘-에서’는 ‘출처’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 ‘-에서’는 ‘-에’가 탈락된 ‘-서’의 형태로도 사용된다. 그 예는 (20)과 같다.

(20) 가. 내 글두 우리 동네서는 지씨 잘 나가네라.

(=내가 이래봐도 우리 동네에서는 꽤 잘 나간다)

나. 올림픽대회서 금메달 타는 기분처럼 말임다.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타는 기분처럼 말입니다)

다. 아메들의 사리마대를 입구 호랑나비춤춘 그사진으 줌 싸이선 지워주우.

(=할머니들의 바지를 입고 호랑나비 춤을 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싸이에서 지워주세요)

(20가)의 경우는 처격조사 앞에 연결된 명사구 ‘동네’의 마지막 음절이 처격인 ‘-에’와 같은 음소 /e/로 끝났다. 따라서 ‘-에’의 탈락은 충분히 가능한 음운현상이다. 그러나 (20나-라)의 경우는 이런 음운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가 탈락되었다. 여기서 (20)의 처격조사 ‘-서’의 앞 음절이 모두 개음절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 ‘-에서’는 개음절 아래에서 실현될 때에는 ‘-에’가 탈락된 ‘-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 ‘-에다’가 실현된 예는 (21)과 같다.

(21) 가. 거러마이에다 까마치랑 너쿠다니다가 배때 고평팬 부스레기까지 훌훌 불어 먹었잼두.(=호주머니에 누룽지를 넣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면 마지막 부스레기마저 훌훌 불어 먹었잖아요)

나. 밖에다 가매르 걸고 살마먹고 구워먹고 했는데.

(=밖에 가마를 걸어놓고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했는데)

(21가)에서 ‘호주머니’의 뜻으로 쓰이는 ‘거러마이’의 ‘마이’는 ‘망’의 음절말 자음 ‘ŋ’이 탈락되면서 장음화로 나타난 것이다. 처격조사 ‘-에다’에 의하여 ‘거러마이’는 ‘까마치’를 넣을 장소로 지목된다. (21나)에서도 처격조사 ‘-에다’에 의하여 ‘밖’은 ‘가매르 걸’ 장소로 지정(指定)된다. 즉, (21)의 처격조사 ‘-(에)다’는 (21가)의 대상 ‘까마치’와 (21나)의 대상 ‘가마’가 ‘놓이는 장소’의 의미 기능을 한다.

연변 지역어에서는 처격조사 ‘-에다’처럼 ‘놓이는 장소’의 의미 기능을 하지만 ‘-에’가 탈락된 ‘-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 예는 다음 (22)와 같다.

(22) 가. 싸뜰주먼지다 모다둔 잔돈으 척 꺼내주곤 했는데.

(=새우깡봉투에 모은 잔돈을 척 꺼내주곤 하였는데)

나. 근데 감채르 어디메단 싱구가자구 그래오?

(=그런데 감자를 어디에 싣고 가려고 그러나요)

(22가)에서 처격조사 ‘-다’에 의하여 ‘잔돈으 모다둔’ 장소로 ‘싸뜰주먼지’가 지목되고, (22나)는 ‘감채르 싣고’갈 장소로 ‘어디메’를 지정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22)의 처격조사 ‘-다’는 처격조사 ‘-에다’가 실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놓이는 장소’의 의미 기능을 한다. ‘-다’가 ‘-에다’와 다른 점은 음운적인 환경이다. ‘-에다’는 (21)에서처럼 폐음절로 끝나는 명사구에 실현된 반면, ‘-다’는 (22)에서처럼 개음절로 끝나는 명사구에 실현된 것이다.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 ‘-에다’는 어떤 의미자질을 공유하고 있는 명사구들 사이에서 실현됨으로 하여 갖는 의미 기능이 있는데 그 예는 (23)과 같다.

(23) 가. 난 시라지 장물에다 밥으 꿍꿍 말아서 가지 찢거 마늘 간자에다 뚝뚝 찍어 먹었습다.

(=나는 시라지국에 밥을 말고, 찢 가지를 마늘간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나. 난 씩짜에다 디비를 영구 불랑불랑 끄레서...

(=나는 청국장에 두부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서...)

다. 게도내복에다 소케웃으 입구 뜨개바지다 소케바지 입구 니룽양말에다 왕바신 시넛는데.(=세타에 솜옷을 입고, 털실 바지에 솜바지를 입고, 나일론 양말에 솜신을 신었는데)

라. 파란색에다 흰줄이 있는거. (=파란색에 흰 줄이 있는 것을)

(23)의 ‘장물’, ‘씩짜’, ‘내복’, ‘파란색’은 각각 후속 명사구와 [+β]의 의미자질을 공유한다. (23가)의 ‘장물’은 후속 명사구 ‘밥’과 [+음식]의 의미자질, (23나)의 ‘씩짜’는 후속 명사구 ‘디비’와 [+음식]의 의미자질을, (23다)의 ‘내복’은 후속 명사구 ‘소케’와 ‘따뜻

한 의복'의 의미를, '니룽양말'과 후속 명사구 '왕바신'은 '따뜻한 발 용품'의 의미를, (23)의 '파란색'은 후속 명사구 '흰줄'과 [+색채]의 의미자질을 공유한다. (23가)에서는 명사구 '장물', '밥', '가지 찢거', '간자'가 함께 '한 끼의 식사'로 통일된다. (23나)에서는 처격조사 '-에다' 뒤에 놓이는 명사구 '두부'가 앞에 놓이는 명사구 '씩장'에 포함되면서 하나로 통일된다. (23다)에서는 명사구 '계도내북', '소캐옷', '뜨개바지', '소캐바지', '니룽양말', '왕바신'이 함께 '따뜻한 옷차림'으로 통일된다. (23라)는 명사구 '흰줄'이 '파란색'에 포함되면서 하나로 통일된다. 따라서 (23)에서 처격조사 '-에다'는 '겉들임' 또는 '추가함'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바, '-에다'가 실현됨으로 하여 그 앞뒤 명사구가 하나로 통일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 기능은 개음절 아래에서 나타나는 처격조사 '-다'에도 나타나는데 그 예는 (24)와 같다.

- (24) 가. 그 왜지 한광재단 핑귄리 뒤 광재 해서 대련에 줌 보냅소
 (=자두 한 박스에 사과배 두서너 박스를 대련에 줌 보내세요)
 나. 난 연변 배채김치단 입팍 머거야겠슴다.
 (=나는 연변 김치에 쌀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다. 빼주단 피주 막 섞어마세따.
 (=백주에 맥주를 막 섞어마시었다)

(24가)에서 '한광재'와 후속 명사구 '뒤 광재'는 '수량'으로 통일되고, (24나)의 '배채김치'와 후속 명사구 '입팍'은 '한 끼의 식사'로 통일되며, (24다)의 '빼주'와 후속 명사구 '피주'는 '술'로 통일된다. 따라서 개음절로 끝나는 명사구에 처격조사 '-다'가 실현될 때의 의미 기능은 폐음절로 끝나는 명사구에 처격조사 '-에다'가 실현되는 경우와 같다.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 '-에다가'가 실현된 예는 (25)와 같다.

- (25) 가. 노래빠에다가 잔뜩 토해놓구.
 (=노래방에 많이 오바이트하고)

나. 공안에다가 말하든 다 해결테우.

(=공안국에 말하면 다 해결돼요)

다. 꽃에다가 물을 아이 줬더니만 말라죽어쏘.

(=꽃에 물을 안 주어 말라 죽었어요)

(25가)에서 ‘-에다가’는 서술어 ‘토해놓’은 배경장소로서의 의미 기능을 하고, (25나)에서 ‘-에다가’는 ‘지정된 장소’의 의미 기능을 하며, (25다)는 ‘수혜자’의 의미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 기능들은 처격조사 ‘-에’, ‘-에다’에 의해서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에’에 결합된 ‘-다가’는 화용론적인 ‘초점’의 의미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

처격조사 ‘-에다’가 개음절 아래에서 ‘-다’로 나타나듯이 처격조사 ‘-에다가’도 개음절 아래에서는 ‘-다가’로 나타난다. 그 예는 (26)과 같다.

(26) 가. 등싸디다가 머 잔뜩 그레가지고 다니더라.

(=등에 뭘 많이 그리고 다니더라)

나. 소곰재 잡아서 꼬랑지다가 실으 매가꾸서 잘 놀아재쿠머임둥.

(=잡은 잠자리 꼬리에 실을 매서 자주 놀았잖아요)

다. 대부분 교까지는 핵꼬다가 두구멍기구 멋을루 몇 개만 달랑넣구서 흔들흔들 하벤서리. (=교과서 대부분은 학교에 두고 다니고, 몇 개만 멋으로 넣고 흔들흔들 하면서 다녔다)

(26가)에서 ‘등싸디’는 ‘머 잔뜩 그레’는 장소로, (26나)에서 ‘꼬랑지’는 ‘실으 매’는 위치로, (26다)의 ‘핵꼬’는 ‘대부분 교과서’를 ‘두구멍기’는 장소로서 모두 ‘놓이는 장소’의 의미 기능과 함께 화용론적인 ‘초점’의 의미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 기능은 처격조사 ‘-에다가’에 의해서 확인된바 있다. 여기서 ‘-다가’가 ‘-에다가’와 다른 점은 음운적인 환경이다. ‘-에다가’는 (25)에서처럼 폐음절로 끝나는 명사구에 실현된 반면, ‘-다가’는 (26)에서처럼 개음절로 끝나는 명사구에 실현된 것이다.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에가’가 실현된 예는 (27)과 같다.

(27) 가. 개차반동미두 학교가서 공부 아이하고 광커하구 철길에가 앉아잇재쿠며요.

(=‘개차반’ 당신도 학교에 공부하러 안가고 철길에 앉아있었잖아요)

나. 오내루 찾아뎡긴게 채소밭에가 있재요.

(=하루 종일 찾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채소밭에 있었잖아요)

(27)에서 ‘-에가’는 공간범주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실현된 예이다. 여기서 밑줄 그은 ‘-에’는 처격조사 ‘-에’이다. 문제는 뒤에 연결된 ‘-가’이다. 이기갑(2003)에 의하면 ‘-에가’의 ‘-가’는 동사 ‘가-’에서 문법화된 것이다. 즉, 동사 ‘가-’는 의미 속성상 처격조사 ‘-에’나 ‘-한테’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 ‘가 있는’ 행위는 후행절의 상황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을 말해 주기 때문에 ‘-에 가(서)’의 ‘-가’가 의미적으로 잉여성을 갖기 때문에 문법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가-’의 동작성이 사라지고, 앞선 처격조사‘-에’와 어울려 ‘-에가’라는 조사의 결합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때, ‘-에가’는 ‘변경된 장소’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27)의 ‘-에가’는 처격조사의 대표형 ‘-에’로 교체할 수 있는데 ‘-에가’의 어원에서 갖는 ‘변경된 장소’의 의미 기능 외에 서술어 ‘있다’에 의한 ‘존재’의 의미 기능도 함께 한다.

(28)도 공간범주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에가’가 실현된 경우인데 (27)과 다른 점은 서술어이다.

(28) 가. 가 옆에가 탁 치이까니 놀래가지구.

(=그의 옆에서 탁 치니까 놀라서)

나. 어릴적 들에가 놀다가 감태랑 보문 먼저달아가서 <요게 내꺼용>하문.(=어릴 때 들에서 놀다가 감태를 보면 일단 뛰어가 ‘이것이 내꺼야’하고 째해두면)

다. 령맨은 북무대로에가 먹자.

(=냉면은 ‘북무대로’에서 먹자)

(28가-다)의 명사구 ‘옆’, ‘들’, ‘복무대로’는 공간범주를 나타내는 명사구이다. 여기에 처격조사 ‘-에가’가 실현되어 다른 장소에서 ‘옆’, ‘들’, ‘복무대로’로 이동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27)의 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 ‘있다’와는 달리 (28)의 서술어는 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치다’, ‘놀다’, ‘떡다’이다. 따라서 이때의 처격조사 ‘-에가’는 처격조사 ‘-에서’로 교체할 수 있는데 ‘-에가’의 어원에서 갖는 ‘변경된 장소’의 의미 기능 외에 서술어 ‘치다’, ‘놀다’, ‘떡다’에 의한 ‘활동배경’의 의미 기능도 함께 갖는다.

중국 연변 지역어에는 ‘-ㄴ데’의 쓰임이 활발하다. 이 지역어에서 ‘-ㄴ데’는 문법화된 처격의 한 형태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 (29)는 개음절로 끝난 명사구에 처격조사 ‘-ㄴ데’가 실현된 경우이다.

- (29) 가. 우리팀에서 표현한 그 입에다 구썬분 바르구 여자들의 긴양말으 수꽁기부터 모가진데까지 들이쓰구. (=우리 팀에서 표현했던 그거 있잖아. 입술에 립스틱 바르고 여자들의 스타킹을 머리부터 목에까지 들이 쓰고)
 나. 눈이 허린데까지 왔따더라.(=눈이 허리에까지 내렸대요)
 다. 우리핵꾼데 놀라가개? (=우리학교에 놀러 갈래)

(29가-나)는 처격조사 ‘-ㄴ데’의 뒤에 특수 조사 ‘-까지’가 결합되어 나타나서 ‘중착점’의 의미 기능을 한다. (29다)에서는 특수 조사 ‘-까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술어 ‘놀러 가다’의 목적지인 ‘핵꾼’에 처격조사 ‘-ㄴ데’가 결합되었는바, 역시 ‘중착점’의 의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처격조사 ‘-ㄴ데’의 어원을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관형형 어미 ‘-ㄴ’과 ‘장소’의 의미를 갖는 의존명사 ‘-데’가 결합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9)의 명사구와 ‘-ㄴ데’ 사이에 동사구를 가정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에 근거하여 그 동사구를 ‘존재’의 의미를 갖는 ‘있-’으로 상정한다면 (29가)의 ‘모가진데까지’는 ‘모가지가 있는 데까지’에서, (29나)의 ‘허린데까지’는 ‘허리가 있는 데까지’에서, (29다)의 ‘핵꾼데까지’는 ‘핵꾼이 있는 데까지’에서 문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처격조사 ‘-ㄴ데’는 [+유정성]의 의미를 갖는 명사구에서 실현될 때 훨씬 더 문법화

된 모습을 보이는데 예문 (30)과 같다.

(30) 가. 니 처깁으로 넌데 썼다는 펜지르 내 이제 곰마 받아봤다.

(=방금 전에 네가 처음 나에게 쓴 편지를 받아보았다)

나. 그 귀한 시래기를 도투새끼데 멕인단 말입니껴.

(=그렇듯 귀한 시래기를 돼지에게 먹인다고요)

다. 엄만데 비깡대길루 영치두 쌌게 맞앗지므.

(=엄마께 빗자루로 영덩이를 많이 맞았어요)

라. 8월이무 깰변옆에 옥시바트에 옥시 뜰따가 낫으 든 발입 깰데 쫓길 깰데. (=8월은 강가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따다가 낫을 든 발주인에게 쫓겨날 때인데)

(30)에서 보면 명사구와 ‘-ㄴ데’사이에서 동사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변 지역어의 ‘-ㄴ데’가 문법화된 처격조사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연변 지역어 처격조사의 대표형 ‘-한테’의 쓰임과 비슷하게 ‘-ㄴ데’도 [+동물]의 의미를 갖는 명사구나 [+존대]의 의미를 갖는 명사구 모두에 실현된다. (30나)는 처격조사 ‘-ㄴ데’가 [+동물]의 의미를 갖는 ‘도투새끼’에 실현된 예이고, (30다)는 처격조사 ‘-ㄴ데’가 [+존대]의 의미를 갖는 ‘엄마’에 실현된 예이다. (30가-나)에서 처격조사 ‘-ㄴ데’가 실현된 명사구 ‘내’와 ‘도투새끼’는 서술어에 의하여 ‘수혜자’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30다-라)에서 처격조사 ‘-ㄴ데’는 [+피동]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에 의하여 ‘행동주’의 의미 기능을 한다.

처격조사 ‘-ㄴ데’는 폐음절로 끝나는 명사구에 실현될 때 (31)에서처럼 음절 ‘이’가 삽입되어 ‘-인데’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31) 가. 저 산인데까지 가자.

(=저 산에까지 가자)

나. 눈인데 머이 들가따.

(=눈에 뭐가 들어갔다)

다. 애들인데 몰기우는게 베룩이새끼처럼 몰기더구나.

(=애들에게 베풀어줌 당하듯이 따돌림 당하더라)

라. 내 소학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들한테서 받은 연애편지만 해두 책상뿔에 두 개
 꽂쪽하다. (=내가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들에게서 받은 연애편지만 하여
 도 책상 서랍 두 개가 가득하다)

(31가-나)는 [+무정성]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명사구에 처격조사 ‘-ㄴ데’가 실현된 경
우이고, (31다-라)는 [+유정성]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명사구에 처격조사 ‘-ㄴ데’가 실현
된 경우이다. 이들 명사구들은 모두 끝음절이 폐음절이다. 연변 지역어에서는 처격조사
‘-ㄴ데’의 앞에 음절 ‘이’가 삽입되어 음절말 자음들이 충돌되는 현상을 막아낸다. 여기
서 처격조사 ‘-ㄴ데’의 의미 기능은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게 나타난다. 즉, (31가-나)
에서는 ‘종착점’의 의미 기능을, (31다-라)에서는 ‘행동주’의 의미 기능을 한다.

아래에 처격조사 ‘-한테’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김승곤(1992:299)에 의하면
‘한테’와 ‘한테’는 20세기 초에 나타났다. 15세기의 ‘훈디’가 ‘훈+디’로 두 단어가 합하여
하나의 조사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뜻은 ‘하나의 장소, 같은 장소’라는 뜻이다. ‘-한테’
는 [+유정성]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에 실현된다. 연변 지역어에서 ‘-한테’는 [+유정
성]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에 실현되는 처격조사 ‘-ㄴ데(인데)’와 같은 의미 기능을
한다. 다만, 이 지역어에서 ‘-한테’는 ‘-ㄴ데’에 비하여 화용론적인 의미 기능을 수행할
때 선택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는 (32)와 같다.

(32) 가. 내 정마 니한테 빈다.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빈다)

나. 개차반님도 그 양카이한테 내좋은말 많이 해줍소.

 (=개차반님도 그 여편네한테 나에게 유리한 말을 많이 해주소)

다. 그리고는 토끼가 사자한테 가서 말해찌브~!

 (=그리고 나서 토끼가 사자에게 가서 말했다)

라. 한족아 한내 사장한테 어찌두 알락방기르 하는지.

 (=한 한족애가 사장께 아침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32가-나)에서 ‘니’와 ‘그 양끼이’는 [-존대]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구이고, (32다)의 ‘사자’는 [+동물]로서 역시 [-존대]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구이다. 그러나 (32라)에서 ‘사장’은 [+존대]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구이다. 따라서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 ‘-한테’는 [+존대]의 의미를 갖는 명사구에 모두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2)에서 보면 처격조사 ‘-한테’가 실현된 명사구는 상대적인 우세(優勢)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32가)에서 ‘니’는 용서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32나)에서 ‘그 양끼이’는 아침을 받는 대상이며, (32다)에서 ‘사자’는 ‘토끼’에 비하여 강한 동물이다. 따라서 (32)에서 처격조사 ‘-한테’는 화용론적 의미인 ‘강조’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격조사 ‘-한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 근원지로서의 의미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예문 (33)과 같다.

(33) 가. 울 실장님이 나한테 단다이 화난거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대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나. 너무 자기한테 비판실망하지 말구 좀 모택똥아바이 얘기한것처럼 앞으 내다바라.(=자기한테 너무 비판, 실망하지 말고 모택동 할아버지 말씀처럼 앞을 향해 보세요)

(33가)에서 서술어 ‘화난’ 결과는 ‘나’로 인해서이고 (33나)에서 서술어 ‘비판실망하’는 결과는 ‘자기’로 인해서이다. 여기서 ‘나’와 ‘자기’는 구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근원지이다. 이처럼 처격조사 ‘-한테’가 실현된 명사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근원지로서의 의미 기능과 함께 화용론적인 ‘강조’의 의미 기능을 받는다.

처격조사 ‘-한테’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에 의하여 의미 기능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예문 (34)와 같다.

(34) 가. 눈물 불러온나그네한테 딱 들켰잖두.

(=눈물 보러 온 남정네한테 바로 들켰잖아요)

나. 토끼가 놀라서 도망 칠라 하다가 그만 범이한테 잡혔뿌렸단 말이~!

(=토끼가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그만 범한테 잡혔었다)

(34가)의 서술어 ‘들켰재’와 (34나)의 서술어 ‘잡혔뿌렸다’는 [+피동]을 나타낸다. 여기서 처격조사 ‘-한테’가 실현된 명사구 ‘나그네’와 ‘범’은 [+행위자]의 의미를 갖게 되고, 피동의 대상에 비해 화용론적인 ‘강조’의 의미 기능을 받는다. 따라서 (34)의 처격조사 ‘-한테’는 ‘행위자’의 의미 기능과 함께 화용론적인 ‘강조’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 ‘-보구’는 사역(使役)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의 처격을 실현할 때 나타난다. 그 예는 (35)와 같다.

(35) 가. 아때는 엄마보구 탕쿨러장시 지나가른 엄마 돈이 없는데두 무조건 사내라구 떼 질쓰른 머라는지 암둥? (=어릴 때 얼린 과일꼬치를 파는 장수가 지나갈 때면, 돈이 없는 어머니께 무조건 사주라고 졸라대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올동삼에는 우리엄마보구 부쳐달래야지.

(=금년 겨울에는 우리 어머니께 부쳐주라고 부탁해야지)

다. 그래서 친구보구 거기서 나오자니까 그냥 거기서 먹자해서.

(=그래서 친구더러 거기에서 나오자고 하였더니 그냥 거기서 먹자고 하기에)

라. 니 가보구 온쩌낙에 나오라해라(=네가 개더러 오늘 저녁에 나오라고 전해라)

(35)의 서술어 구조는 복합적인 구성을 이루었는데 각각 ‘사내(다)+라구+떼질쓰다’, ‘부쳐달라+(고)+(해)야지’, ‘나오자+(고)+(말하다)’, ‘나오라+(고)+(전)해라’이다. (35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문 동사 ‘떼질쓰다’의 행동주는 ‘화자’,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대상은 ‘엄마’이고, 하위문 동사 ‘사내다’의 행동주는 ‘엄마’이고 수혜자는 ‘화자(話者)’이다. (35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위문의 수혜자는 하위문의 행동주가 된다. 이런 관계에 의하여 서술어는 ‘행위지시(行爲指示)’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데, 한국어에서 처격조사 ‘-더러’가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변 지역어에서는 ‘-더러’가

사용되지 않고 ‘-보구’가 실현된다. 이처럼 연변 지역어에서 ‘-보구’는 ‘행위지시’를 받는 명사구 즉 하위문의 행동주에 실현된다. 이기갑(2003)에 의하면 동사 ‘보-’에서 문법화한 ‘보고’ 또는 ‘보구’가 [+유정]의 체언 다음에서 처격의 기능을 하는데, 이런 현상은 한반도 전역에서 동일하다고 한다.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 ‘-보구’의 사용이 특이한 점은 (35가-나)의 ‘엄마’와 같이 [+존대]가 요구되는 대상에도 ‘-보구’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연변 지역어의 구어에서 격식적인 환경을 제외하고는 존대의 ‘-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부합된다.

4.1.4.2. 향격조사

연변 지역어에서 향격조사는 3장에서 제시한대로 ‘-루, -러, -르루, -르러, -올루, -으루, -러, -올러, -올르’의 형태로 사용된다. 그 예를 보면 (36)과 같다.

(36) 가. 대문밑에 짬이 난텔루 손으 너가지구서 두병 꺼내먹엇쓰구마.

(=대문 밑에 틈이 난 데로 손을 넣어 콩으로 빻은 떡을 꺼내 먹었어요.)

나. 토끼가 범이를 사자굴러 데리구 갓쨌꾸 머야~!

(=토끼가 범을 사자 굴로 데려갔잖아.)

다. 사자가 열이 나서 바깥을루 불이 나게 떼 나갔단 말이~!

(=사자가 화가 나서 바깥으로 부리나케 뛰어 나갔어요.)

라. 드살 썬아주마이들은 된살쪽을러 영치살,다리살 많이 사갔다.

(=억척 아주머니들은 살코기 쪽으로 엉덩이, 다리 부위를 많이 사갔다.)

(36가)는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난 명사구에 향격조사 ‘-르루’가 실현된 예이다. (36나)는 마지막 음절의 자음이 유음 ‘ㄹ’로 끝나는 명사구에 향격조사 ‘-러’가 결합된 예이다. 이때 ‘-러’는 향격조사 ‘-르러’의 형태상의 유사성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현상으로 명사구가 자음 ‘ㄹ’로 끝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36다)는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로 끝난 명사구에 향격조사 ‘-올루’가 실현된 예이다. (36라)의 예 역시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로 끝나는 명사구에 향격조사가 나타난 예인데, ‘-을루’가 아닌 ‘-을러’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지역어에서 ‘-르루’와 ‘-르러’, ‘-을루’와 ‘-을러’, ‘-루’와 ‘-러’는 발화자의 발화에 따른 수의적인 현상으로서 의미상 변별되는 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연변 지역어에서 나타난 향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겠다.

첫째, 연변 지역어에서 향격조사는 행동의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 예는 (37)과 같다.

(37) 가. 뒸러 그대로 자빠지는게 뺨들이지무.

(=뒤로 누워서 치는 수영이 뺨들이지요.)

나. 사자가 열이 나서 바깥을러 불이 나게 떼 나갔단 말이~!

(=사자가 화가 나서 바깥으로 부리나케 뛰어 나갔어.)

다. 도투고기두 배불리 못잡숫구 세월이 좋아지자하가나 하늘나라룬 가구.

(=생활이 좋아질 무렵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돼지고기도 배부르게 못 드셨어요.)

라. 토끼가 범이를 사자굴러 데리구 갓꿨쿠 머야~!

(=토끼가 범을 사자 굴로 데리고 갔어.)

(37가)에서 명사구 ‘뒸’는 [+방향]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37나-라)에서 명사구 ‘바깥’, ‘하늘나라’, ‘사자굴’은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서술어 ‘자빠지(다)’, ‘떼 나가(다)’, ‘가(다)’, ‘데리구 가(다)’는 [+이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조건에는 향격조사뿐만 아니라 처격조사로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문장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서 향격조사는 자체의 의미자질이 관건적인 역할을 한다. 향격조사 ‘-르러’, ‘-루’는 방향이나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에 연결되어 서술어의 이동방향이나 이동장소를 나타내되 ‘목표’가 아닌 ‘지향성’으로 나타낸다. 즉, (37)에서 향격조사는 ‘지향점’의 의미 기능을 한다.

둘째, 연변 지역어에서 향격조사는 옹근 장소나 공간이 아닌 부분 장소나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서도 나타난다. 그 예는 (38)과 같다.

(38) 가. 여길러 드레다바라, 잘 보인다.

(=여기로 보면 잘 보여.)

나. 기냥 걸을러 좋은체하능게다.

(그냥 걸으로 좋은 척 하는 거야.)

다. 속을러느 그렇게 생각 아이 할께다.

(=맘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야.)

라. 그래니까 총적을러 말해서 내 니 신타는 말이다.

(=한마디로 내가 너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38가-다)에서 명사구 ‘여기’, ‘걸’, ‘속’은 용근 하나의 ‘장소’로서가 아니라 해당 장소의 일부분이다. 구체적으로 (38가)의 ‘여기’는 창문(門)의 한 틈새를 가리킨다. (38나-다)의 ‘걸’과 ‘속’은 사람 심리의 보이는 부분인 ‘걸’과 보이지 않는 부분인 ‘속’을 전제로 하였을 때 역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38라)의 ‘총적’은 전반 언어 과정을 놓고 볼 때 역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는 향격조사의 이러한 작용을 [+측면]의 의미 기능으로 본다. (38가-다)에서 향격조사는 ‘사물의 측면’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한다. (38라)에서 향격조사는 ‘사건의 측면’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데 예문에서는 ‘전체 측면’을 나타낸다.

셋째, 연변 지역어에서 향격조사는 행동의 시간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도 나타난다. 그 예는 (39)와 같다.

(39) 가. 잔치날짜르 다음달러 정했다.

(=잔치 날짜를 다음달로 정했다.)

나. 거기서 니까 처음으루 뽀뽀르 했재쿠뤄야.

(=너와 거기서 처음으로 키스 해잖아.)

다. 열개 셀셀러 당장 오라!

(=열개 세는 동안에 당장 오거라!)

라. 그럴셀르른 하내래두 공부 더 하겠다.

(=그럴 여유가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

마. 그 홀리는 까딱 소식이 없다.

(=그 뒤로는 전혀 소식이 없다.)

(39)에서 향격조사 ‘-르러, -으루, -르르’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실현된다. 구체적으로 (39가)에서는 명사구 ‘다음달’에 실현되어 서술어 ‘정(하다)’와 함께 ‘시간약정(約定)’의 의미 기능을 한다. (39나)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처음’에 실현되어 ‘순서’의 의미 기능을 한다. (39다-라)에서는 명사구 ‘열개 셀 새’에 실현되어 ‘시간한정(限定)’의 의미 기능을 한다. (39마)에서는 명사구 ‘후’에 실현되어 ‘지속상태(持續狀態)’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 ‘까딱 소식이 없다’에 의하여 ‘발단시간(發端時間)’의 의미 기능을 한다.

넷째, 연변 지역어에서 향격조사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보이는 의미 기능을 한다. 그 예는 (40)과 같다.

(40) 가. 그게 아이데무는 갈아치우던지 우리쪽을루 한나 골라서.

(=그게 안 되면 우리 편으로 한 명 골라서 교체하든지.)

나. 마대나 조만지 콩겔루 가꾸오 양.

(=자루나 비닐봉투를 용량이 큰 것으로 가져와요.)

다. 드살 썬아주마이들은 서로 된살쪽으르 살려구싸움도 많았징.

(=억척 아주머니들이 살코기 쪽으로 사려고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지.)

(40)에서 명사구 ‘우리쪽’, ‘콩거’, ‘된살쪽’은 [+공간]이나 [+시간]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 않는 명사와 [+경향성]의 의미자질을 갖는 의존명사 ‘쪽’, ‘거’로 구성된다. 그리고 서술어 ‘고르(다)’, ‘갖고 오(다)’, ‘사(다)’는 대상을 취(取)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 명사구와 서술어의 관계에 관여하는 구격조사는 ‘경향성’, ‘취(取)함’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이 ‘경향성’의 의미 기능은 앞에서 논의한 향격조사의 의미 기능인 ‘지향성’과 유사(類似)하다.

다섯째, 서술어가 ‘되다’, ‘변하다’, ‘만들다’와 같이 [+변화]의 의미자질을 가질 때 실현되는 향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예 (41)과 같다.

(41) 가. 가네 사라브 다 멀리 만들었니?

(=개네가 사람을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어?)

나. 어제 환율이 7로 됐답데야!

(=어제 중국 인민폐와 한국 원화의 환율이 7로 됐다면서요!)

다. 반자알리 위림이 어떠야?

(=위림을 반장으로 선거하는 것이 어때?)

(41)의 예문은 향격조사 ‘-르러, -러’가 [+변화]의 의미자질을 가진 서술어에 의하여 ‘변화의 결과’의 의미 기능을 가진다. 이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전성’의 의미 기능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정주리(1999)에서는 ‘변하다’와 같은 상태나 속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의 개념 구조도 시간성이 들어 있는 이동의 과정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통사 구성방식은 ‘N1이 N2로 V-다’의 형식을 취하고 상태 변화를 입는 대상이 주어로 범주화하는 구조로서 N1은 경험자, N2는 변화되는 자격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구, V는 변화나 피동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범주화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자격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로’가 결합함으로써 ‘-로’는 ‘속성변화’의 의미가 활성화되어 변화의 의미가 들어 있는 사건 구조이므로 시간성을 전제한 이동의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때는 이동의 과정이 구체적인 신체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거나 물리적인 속성이나 자질들이 변화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정주리(1999)의 해석은 본고에서 (41)의 예문을 향격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4.1.4.3. 구격조사

연변 지역어의 구격조사는 3장에서 제시한대로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을러, -을르’의 형태로 사용된다. 아래에 그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구격조사는 도구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연변 지역어에서도 이런 의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예는 (42)와 같다.

- (42) 가. 한 대에 5전씩하든 빵골드 어찌다 사먹으른 아까바서 헤바닥을루 녹여서 쫄쫄 쫄쫄 먹엇재쿠 며이오.(=하나에 5전 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때면 아까워서 입과 혀로 살살 빨아서 먹엇잖아.)
- 나. 농촌에서 씨푸투라질러 콩탈곡할때.
(=농촌에서 트랙터로 콩을 탈곡할 때)
- 다. 그 실장아르 오른족 쓰레빨루 왼쪽 나뻐대기르 답쎬게놓소.
(=오른쪽에 신은 슬리퍼로 그 실장의 왼쪽 뺨을 때려놓소.)
- 라. 엄만데 비깡대길루 영치두 쎬게 맞앗지르.
(=어머니께 빗자루로 엉덩이를 많이 맞았어요.)

(42)에서 서술어 ‘녹이(다)’, ‘탈곡하(다)’, ‘답쎬기(다)’, ‘맞(다)’가 요구하는 논항 가운데서 [+도구]의 의미자질을 갖는 부사어는 필수로 요구되는 논항이 아니다. 하지만, 구격조사 ‘-을루’, ‘-르러’, ‘-르루’가 명사구 ‘헤바닥’, ‘씨푸투라지’, ‘쓰레빠’, ‘비깡대’에 연결되면서 서술어의 내용은 행위에 참여한 도구를 포함시키면서 구체화된다. 여기서 구격조사는 ‘도구’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둘째, 구격조사는 수단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연변 지역어에서도 이런 의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예는 (43)과 같다.

- (43) 가. 옴치, 정말 내 반짝반짝올리 유혹하르 개차만동미 헤헤하며 따라땡겼지.(=맞어, 내가 노래 ‘반짝반짝’으로 유혹하면 친구 개차만이 헤벌쭙 웃으며 따라다녔지.)

나. 간장이 한쪽말루 생각나지 않아서 “黑水有嗎?”하는 애들을 봤습다.

(=중국어로 간장을 뭐라고 부르던지 생각 안 나서 “검은물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애들도 봤습다.)

다. 완전 연변사투릴러 제텔루 도배했구나.

(=전부 연변 사투리로 인터넷을 도배했네.)

(43가)에서 ‘반짝반짝’은 연변 지역의 동요(童謠) “반디불”을 가리킨다. 여기서 ‘반짝반짝’은 서술어 ‘유혹하다’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43나-다)에서는 명사구 ‘한쪽말’, ‘연변사투리’ 자체가 [+언어수단]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이들 명사구에 의하여 구격조사는 ‘수단’의 의미 기능을 한다.

셋째, 연변 지역어에서 구격조사는 행동의 양태(樣態)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데 그 예는 다음의 (44)와 같다.

(44) 가. 감지야 바가지채르 먹어야 먹은갈우라지.

(=동동주는 바가지로 마셔야 제 맛이지요.)

나. 대부분 교과서는 핵꼬다가 두구댕기구 멋을루 몇 개 만 달랑넣구서 흔들흔들하 멘서리.(=교과서 대부분을 학교에 두고 다니고 몸에는 몇 권만 멋으로 지니고 다녔다.)

다. 심심풀이^루 작은거 놀브 되쩨까?

(=큰 도박 말고 작은 도박을 심심풀이로 하면 되겠습니까?)

(44)에서 서술어 ‘먹(다)’, ‘다니(다)’, ‘놀(다)’의 필수논항에는 그 행동의 형식(形式)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44)의 명사구 ‘바가지채’, ‘멋’, ‘심심풀이’에 구격조사가 연결되면서 이들 명사구는 서술어 ‘먹(다)’, ‘다니(다)’, ‘놀(다)’의 형식(形式)으로 되어 나타난다. 다음의 예 (45)도 이와 비슷한 경우이다.

(45) 가. 백메다 속들르 다라가멘서

(=백 미터 경주할 때의 속도로 달리면서.)

나. 내 너르 이전보다 백배론 더 써거지게 사랑해주겠다.

(=내가 너를 예전의 백배로 사랑할거야.)

다. 꼬꼬란 아두 요새 얼귀터르 상자들이론 피발해갈께다.

(=꼬꼬라고 하는 친구도 최근에는 이과두주를 박스로 도매하여 마신다고 한다.)

(45)에서 명사구 ‘백배다 속도’, ‘이전보다 백배’, ‘상자들이’는 행동의 모양새를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행동이라고 하면 ‘방식(方式)’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들 예는 그 ‘모양새’, ‘행위효과’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동의 형식이나 모양새를 가리키는 용어로 양태(樣態)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때의 구격조사는 ‘양태’의 의미 기능을 한다.

넷째, 연변 지역어에서 구격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표시하는 의미 기능을 하는데 그 예는 (46)과 같다.

(46) 가. 까옥까옥 까마기두 짝이 있다능데 나능 왜서 이렇게 보틀이론 살아야 하나?

(=까마귀도 짝이 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홀로 살아야 하나?)

나. 가는 그잘랑거두 자랑올러 생각한다.

(=개는 그깟 짓을 자랑으로 여긴다.)

다. 작사두 하구 댄스가수론 뛰구

(=작사도 하고 댄스 가수로 활약하고)

(46)에서 서술어 ‘살(다)’, ‘생각하(다)’, 그리고 ‘활약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뛰(다)’는 [+자격]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명사구 ‘보틀이’, ‘자랑’, ‘댄스가수’에도 [+자격]의 의미자질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구격조사 자체에 의한 의미 기능으로 보인다. (46)에서 구격조사는 ‘자격’의 의미 기능을 한다. 이는 표준 한국어의 ‘-(으)로서’의 의미 기능에 해당된다.

다섯째, 연변 지역어에서 구격조사는 원인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데 그 예는 (47)과 같다.

(47) 가. 무슨 목적으러 이러니

(=무슨 목적으로 이러니?)

나. 내 이러다가 쌍쓰뽕으루 인차 써거질가봐 겁이 난다.

(=내가 이러다가는 상사병으로 금방 죽어버릴까 두렵다.)

다. 무슨 벼으루 돌아갔니?

(=무슨 병으로 돌아갔니?)

(47)에서 서술어 ‘이렇(게 행동하다)’, ‘써거지(다)’, ‘돌아가(다)’는 [+결론] 또는 [+결과]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이들 서술어는 그 결론이나 결과에 따른 원인을 나타내는 논항을 내재하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명사구 ‘목적’, ‘쌍쓰뽕’, ‘병’도 [+원인]의 의미자질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구격조사 자체에 의한 의미 기능으로 보인다. (47)에서 구격조사는 ‘원인’의 의미 기능을 한다.

4.1.4.4. 공동격조사

연변 지역어의 공동격조사는 3장에서 제시한대로 ‘-까, -하구’의 형태로 사용된다. 공동격조사 ‘-까’는 선행 음절의 개폐여부와 상관없이 ‘-까’의 형태로 실현된다. 그 예를 보면 다음 (48)과 같다.

(48) 가. 니 가까 좋아하재?

(=너 그 애와 좋아하잖아?)

나. 거기서 니까 처음으루 뽕뽕르 했재쿠뭐야.

(=거기서 처음으로 너와 키스를 했잖아.)

다. 개차반넙까 먼가 통하는게 잇는것 같으꾸마.

(=개차반넙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48가-나)는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나는 대명사 ‘가’, ‘니’에 공동격조사 ‘-까’가

실현된 예이고 (48다)는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로 끝나는 대명사 ‘개차반님’에 공동격조사 ‘-까’가 실현된 예이다. 이렇게 이 지역의 공동격조사는 음운 이형태를 갖지 않고 ‘-까’의 형태 하나로만 실현된다. ‘-까’는 일반적으로 ‘-와/과’의 방언 형태로 알려졌다.⁴²⁾ (48)에서 서술어 ‘좋아하(다)’, ‘뽀뽀르 하(다)’, ‘통하(다)’는 두 대상의 관계나 협동을 요구한다. 공동격조사 ‘-까’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두 대상의 관계나 협동’을 실현시키는 의미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 기능은 공동격조사 ‘-하구’에 의해서도 실현되는데 그 예는 다음 (49)와 같다.

- (49) 가. 오늘도 내하구 아무 반응 없는 실장님 하고.
 (=오늘도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실장님과.)
 나. 내라구 우째 곱게생긴 여자하구 살기싫겠소.
 (=내가 왜 예쁘게 생긴 여자와 살기 싫겠어요?)
 다. 나두 연길 있으면 친구들하구 무조건 꾸이훈했짐.
 (=나도 연길에 있으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을 꺼야.)

(49)에서 보다시피 공동격조사 ‘-하구’ 역시 개·폐음절 모두에 실현된다. 또한, 공동격조사 ‘-까’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술어 ‘반응하(다)’, ‘살(다)’, ‘꾸이훈하(다)’는 두 대상의 관계나 협동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최화(2010:192)에서 언급하다시피 ‘-하구’는 ‘-까’와 교체하여 사용하여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48)의 공동격자리에 ‘-하구’를, (49)의 공동격자리에 ‘-까’를 넣어보면 (50), (51)과 같다.

- (50) 가. 니 가까(하구) 좋아하재?
 나. 거기서 니까(하구) 처음으루 뽀뽀르 했재쿠뭐야.
 다. 개차반님까(하구) 먼가 통하는게 잇는것 같으꾸마.

- (51) 가. 오늘도 내하구(까) 아무 반응 없는 실장님 하고.

42) 경북방언에서도 공동격조사가 ‘-까’로 실현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나. 내라구 우째 곱게생긴 여자하구(까) 살기실겘소.

다. 나두 연결 있으면 친구들하구(까) 무조건 꾸이훈했짐.

(50)과 (51)에서 보다시피 처격조사 ‘-까’의 자리에 ‘-하구’를, ‘-하구’의 자리에 ‘-까’를 넣어도 모두 가능한 문장이고 기본 의미도 변함이 없다. 다만, 연변 지역어에서 공동격조사 ‘-까’가 ‘-하구’에 비하여 일반적인 형태임을 감안할 때 ‘-하구’의 사용은 화용론적인 의도로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 이 두 형태를 따로 나누지 않고 공동격조사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다.

첫째, 연변 지역어에서 공동격조사는 대립의 의미 기능으로 사용되는데 그 예는 (52)와 같다.

(52) 가. 우리반까 3반이 딱 붙었지므.

(=우리반과 3반이 맞붙었다.)

나. 자전거 타구 가다가 三輪車하구 부딪쳤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삼륜차와 부딪쳤는데.)

다. 고때 재수때같이 업게스리 눈빛이 썩시개하구 딱 마주치게.

(=그때 마침 재수 없이 정신질환자와 눈빛이 마주쳤더니.)

(52)의 서술어 ‘(시비가) 붙(다)’, ‘부딪치(다)’, ‘마주치(다)’는 [+대립]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때 대립의 의미는 공동격조사 ‘-까’, ‘-하구’가 명사구 ‘우리반’과 ‘3반’, ‘자전거’와 ‘삼륜차’, ‘나의 눈빛’과 ‘썩시개의 눈빛’을 대립의 쌍으로 연결시키면서 실현된다. 따라서 이때의 공동격조사는 [+대립]의 의미 기능을 한다.

둘째, 연변 지역어에서 공동격조사는 두 명사구가 비교의 대상으로 될 때도 사용되는데 그 예는 (53)과 같다.

(53) 가. 그래서 반찬하구 이팝으 바까먹을래기 하멘서리.

(=그래서 반찬과 쌀밥을 바꿔먹기를 하면서)

나. 가까 나르 자꾸마 비기지마쇼예.

(=자꾸 그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까 아버지 누기 더 곱니?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누가 더 곱니?)

(53가)에서 명사구 ‘반찬’과 ‘이팝’은 서술어 ‘바까떡(다)’에 의하여 ‘어떤 가치’에 근거한 교환(交換)의 대상이 된다. ‘교환’은 ‘가치 비교’를 전제로 한다. 공동격조사 ‘-하구’는 이 비교의 쌍을 조성(組成)하는 의미 기능을 한다. (53나)는 [+비교]의 의미자질을 갖는 서술어 ‘비기(다)’가 직접 사용되어 명사구 ‘가’와 ‘나’를 비교한다. 이때 공동격조사 ‘-까’ 역시 비교의 쌍을 조성(組成)하는 의미 기능을 한다. (53다)에서 명사구 ‘어머니’와 ‘아버지’는 [+선택]의 의미를 갖는 서술어 ‘더 곱니’에 의하여 피 선택(被選擇)의 대상이 된다. ‘선택’은 ‘비교’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때의 공동격조사 ‘-까’ 역시 비교의 쌍을 조성(組成)하는 의미 기능을 한다.

셋째, 연변 지역어에서 공동격조사는 두 대상을 혼합(混合)시키는 의미 기능으로도 사용되는데 그 예는 (54)와 같다.

(54) 가. 까지까 고치 볶아먹구, 멥난두 찍어먹구.

(=가지와 고추를 볶아먹고, 멥난두 찍어먹고.)

나. 눈까 비 막 섞에서 온다!

(=눈과 비가 뒤섞이며 내린다!)

다. 오누비자이랑게 햇장하구 묵은 텐장 버무래 만든거 말한다.

(=오누이장은 새로 만든 된장과 묵은 된장을 버무려 만든 것을 말합니다.)

(54가)에서 서술어 ‘볶(다)’는 [+혼합]의 의미자질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서술어 ‘볶(54다)’는 명사구 ‘까지’와 ‘고치’의 두 대상을 가지면서 [+혼합]의 의미자질을 갖게 된다. 이 의미 기능은 공동격조사 ‘-까’에 의해 실현된다. (54나-다)에서 서술어 ‘섞(다)’, ‘버무리(다)’는 [+혼합]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54나)의 명사구 ‘눈’과 ‘비’, (54다)의 명사

구 ‘헛장’과 ‘묵은 텐장’은 공동격조사 ‘-까’, ‘-하구’에 의하여 ‘혼합’의 대상으로 묶인다.

넷째, 연변 지역어에서 공동격조사는 두 대상 사이의 행위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예는 다음 (55)와 같다.

(55) 가. 내 니까 머랬니?

(=내가 너와 뭐라던?)

나. 니 우리까 따저두 소용없다.

(=네가 우리와 따져봐야 소용없다)

다. 니 어제 제까 꺾부우취하니?

(=너 왜 자기에게 모질게 대하니?)

라. 니 엄마하구 말하지 말라 응!

(=너 어머니와 말해서는 안 돼, 알았지!)

마. 내 니하구만 말한다.

(=내가 너와만 말하는 거다)

(55)의 예문은 ‘한 대상(n1)이 다른 대상(n2)에게 어찌(v)하다’의 문장구성이다. 여기서 (55가-라)의 서술어 ‘뭐라고 (조언, 경고)하다’, ‘따지다’, ‘꺾부우취하다’, ‘말(으) 하(다)’는 모두 행동을 취하는 대상(n1)이 다른 대상(n2)과의 관여 속에서만 그 행위를 성사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즉, 이런 서술어들은 두 대상의 ‘접촉(마찰)’을 전제로 한다. 다만, 주어로서의 대상(n1)은 이런 ‘접촉(마찰)’을 일으키는 대상이고, 부사어로서의 대상(n2)는 ‘접촉(마찰)’에 응하는 대상이다. (55)의 서술어는 두 대상의 접촉을 전제로 하지만 두 대상에게 ‘공동성(共同性)’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즉, 주어로서의 대상에게 ‘주동성(主動性)’의 의미를, 부사어로서의 대상에게 ‘수동성(受動性)’의 의미를 부여하여 어떤 행위의 흐름을 보여준다.

4.1.4.5. 비교격조사

연변 지역어의 비교격조사는 3장에서 제시한대로 ‘-보다’, ‘-마’, ‘-마이’, ‘-같이’, ‘-처럼’, ‘-처럼뜨’가 있다. 아래에 이들 형태들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보다’의 의미 기능부터 살펴본다. 연변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보다’는 다음 (56)과 같이 나타난다.

(56) 가. 그때생각이 말이 우리사람보다 더 맛있는거 먹는다 했지.

(=그때는 어린 마음에 말이 사람보다 더 맛있는 먹이를 먹는다는 생각이 들었지.)

나. 내 너르 이전보다 백배루 더 써거지게 사랑해주겠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예전보다 백배로 더 사랑해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56가)는 ‘NP1이 NP2보다 어떠하다’의 문장구성을 갖는 예이다. 이때 두 번째 명사구(NP2)가 비교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56가)에서 앞 명사구 ‘말’은 뒤의 명사구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가 이루어진다. (56나)는 ‘NP2보다 어떠하다’의 문장구성을 갖는 예이다. 여기서 비교에 참여하는 앞 명사구(NP1)는 존재하지 않고 뒤의 명사구(NP2) ‘이전’에 비교격조사 ‘-보다’가 결합되어 비교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이전’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되는 대상은 ‘이후’일 것이다. 즉, (56)의 예들에서 뒤의 명사구(NP2)는 ‘비교의 기준’의 의미 기능을 한다. 연변 지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교격조사 ‘-보다’의 다른 예를 보이면 다음 (57)과 같다.

(57) 가. 될수록 쓰룬보다 써우푸낫소 힘쓰는데말이요.(=힘을 집중하려면 될수록 네 바퀴 달린 차보다 손잡이 트랙터를 사용하는 게 나아요.)

나. 저보다 한발 느저썸다.

(=저보다 한 발 늦었습니다.)

(57가)는 ‘NP1보다 NP2이 어떠하다’의 문장구성을 갖는 예이다. 이때 첫 번째 명사구(NP1)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다. 앞 명사구(NP1) ‘쓰룬’은 뒤의 명사구(NP2) ‘씨우푸’와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대상이다. (57나)는 ‘n1보다 어떠하다’의 문장구성을 갖는 예인바, 비교 대상 하나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명사구 ‘저’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다. 즉,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은 명사구가 누구든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명사구 ‘저’이다.

아래에 비교격조사 ‘-마’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변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마’는 다음 (58)과 같이 나타난다.

(58) 가. 우야!longter 님은 우리때만 더 개고새 헛쓰꾸마 예.

(=우야! longter님은 우리가 할 때보다 더 고생을 했네요.)

나. 누구는 니만 몰라서 이러구 있는가 하재?

(=누군 너보다 몰라서 이러는지 알아?)

(58)의 비교격조사 ‘-마’의 자리에 ‘-보다’를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즉, 비교격조사 ‘-마’도 ‘-보다’처럼 두 대상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때의 ‘차이’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에 유리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비교 결과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은 우열의 위치에 모두 놓일 수 있다. 비교격조사 ‘-보다’와 ‘-마’는 사용양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비교격조사 ‘-보다’는 서술어에 제한이 따르지 않는 반면, 비교격조사 ‘-마’는 서술어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어야 한다. (58가)에서 서술어 ‘더 개고새 헛쓰꾸마’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비교격조사 ‘-마’는 명사구 ‘우리때’를 ‘비교의 우위’에 놓이게 한다. (58나)에서 서술어 ‘몰라-’ 역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비교격조사 ‘-마’는 명사구 ‘니’를 ‘비교의 열세’에 놓이게 한다. 비교격조사 ‘-마’와 ‘보다’가 모두 실현 가능한 경우는 서술어가 ‘좋다, 나쁘다’, ‘낫다, 못하다’, ‘곱다, 밋다’, ‘길다, 짧다’, ‘높다, 낮다’와 같이 반의어로 짝을 이루는 형용사에 한정된다.

아래에 비교격조사 ‘-마이’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변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마이’는 다음 (59)와 같이 나타난다.

(59) 가.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연변마이 조은데 업썸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도 연변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나. 내 비록 전지현마이 체격은 안되구 김태희마이 생긴게 쪼끔 미안하지만은야.

(=내 비록 전지현의 체형만큼 안 되고, 김태희의 얼굴보다 못생겼지만.)

(59)의 비교격조사 ‘-마이’는 표준 한국어의 ‘-만큼’에 해당된다. 비교격조사 ‘-보다’, ‘-마’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 비교의 대상과의 비교에서 우열의 위치에 모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이’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 항상 우세에 놓인다. (59가)에서 비교격조사 ‘-마이’와 결합된 명사구 ‘연변’은 항상 우위에 있어 비교의 대상은 ‘연변’을 초과할 수 없다. (59나)에서 비교격조사 ‘-마이’는 명사구 ‘전지현’, ‘김태희’에 결합되어 비교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우위에 놓인다. 비교의 대상은 이 기준을 초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마이’는 그와 결합되는 명사구로 하여금 ‘비교의 우위’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게 한다.

아래에 비교격조사 ‘-같이’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다. 연변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같이’의 형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 지역어에서 ‘-같이’가 실현된 예는 다음 (60)과 같이 나타난다.

(60) 가. 쏘련 마다매 체격에 메지처럼 생게두 마음씨 하나만은 비단결같이 고바서 그기

메 빠졌지무.(=쏘련 아주머니들 체형에 메주처럼 생겼어도 마음만은 비단결같이 고와서 그 매력에 빠진 거야.)

나. 가 생긴게 로개이판같이 생겼다.

(=개가 생김생김이 죄수같이 생겼다.)

(60가)에서 비교격조사 ‘-같이’는 명사구 ‘비단결’에 실현되어 마음씨의 예쁜 정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0나)에서 비교격조사 ‘-같이’는 명사구 ‘로게이판’에 실현되어 ‘생김생김의 험상궂은’ 정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비교격조사 ‘-같이’의 자리에 ‘-처럼’이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같이’를 사용한 이유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비단결’과 ‘로게이판’이 아주 과장된 비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비교격조사 ‘-같이’는 과장된 비교대상과의 비교를 성사시키면서 ‘강조’의 의미 기능을 한다.

아래에 비교격조사 ‘-처럼, -처럼’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변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처럼’은 ‘-같이’와 마찬가지로 ‘비유’의 의미 기능을 하면서 나타나는데 조사 ‘-같이’보다 더 활발히 사용된다. 그 예를 보면 다음 (61)과 같다.

(61) 가. 그 어느 총각인지 나그넨지 연애편지는 와늘 개뻔처럼 질게두 썼다.

(=어느 총각인지 아저씨인지 모를 사람이 연애 편지만은 개창자처럼 길게 썼다.)

나. 그래두 사투리는 연변사투리가 물가마치처럼 구수하지무.

(=역시 사투리는 연변사투리가 물에 만 누룽지처럼 구수하죠!)

다. 니처럼 얼빰하게서리.

(=너처럼 바보같이?)

라. 나두야 같은바하구는 노배처럼 히여멸쑈하구 뻘질뻘질한 남자 좋더라야.

(=나도 같은 조건이면 무처럼 하야말쑈하고 반들반들한 남자가 좋더라.)

(61)에서 서술어 ‘질게 쓰(다)’, ‘구수하(다)’, ‘얼빰하(다)’, ‘히여멸쑈하고 뻘질뻘질하(다)’는 각각 명사구 ‘연애편지’와 ‘개뻔’, ‘연변사투리’와 ‘물가마치’, ‘니’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은 ‘누구’, ‘남자’와 ‘노배’등 짝들이 공유하는 의미적 속성이다. 여기서 비교격조사 ‘-처럼’이 연결된 명사구 ‘개뻔’, ‘물가마치’, ‘니’, ‘노배’는 ‘연애편지’, ‘연변사투리’,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대상’이다.

연변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처럼’은 다음 예 (62)와 같이 ‘-처럼’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62) 가. 맨날 문지 먹으면서 두더지새끼처럼 땅 뚜제밧자.

(=계속 먼지 먹어가면서 두더지처럼 땅을 뚫어들)

나. 항상 낮에 아침에 솟아오르는 8~9시 태양처럼 활짝 빛나게 웃어야하오.

(=항상 얼굴에 아침 8,9시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활짝 빛나게 웃어야 하오.)

다. 나올때 뒤에 뱀이 뜯구는거처럼 정시엄시 달아나즈말구.

(=나올 때는 뒤에 뱀이 쫓는 것처럼 정신없이 도망가지 말고.)

라. 니 찰거마리처럼 붙었다가느 큰일난다.

(=너가 찰거머리처럼 붙으면 큰일 나는데.)

(62)에서 보다시피 ‘-처럼’은 사용 양상에서 ‘-처럼’과 차이가 없다. 연변 지역 화자는 두 가지 형태를 수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명사구 ‘두더지새끼’, ‘8, 9시 태양’, ‘뱀이 뜯구는거’, ‘찰거마리’는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은 ‘농민’, ‘미소’와 표면구조에 나타난 ‘뱀이 뜯구는거’, ‘니’⁴³⁾의 ‘비유의 대상’이다. 따라서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될 때에는 조사 ‘-처럼, -처럼’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때 비교격조사는 ‘비유’의 의미 기능을 한다.

43) 여기서 ‘니’는 ‘너의 행동’의 의미를 내포한다.

4.2. 격조사의 교체 양상

본 절에서는 중국 연변 지역어에 나타난 격조사 교체 양상을 살펴본다. 격조사 교체 현상은 일반적으로 의미 역할은 같은데 특정 논항에 격조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지역어에서는 부사격조사가 목적격조사로 교체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구격조사, 향격조사, 처격조사, 공동격조사가 목적격조사로 교체된다.

본고는 연변 지역어의 구어를 반영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연구 자료로 삼기 때문에 이론적인 격조사 교체 가능성보다 생활경험적인 사용 양상에 중심을 둔다. 또한, 부사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교체를 문장 구조에 관련된 현상으로 보고 그 표층구조와 심층구조를 살펴본다.

4.2.1. 구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교체

연변 지역어에서 구격조사는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을러, -을르’로 나타나고 목적격조사는 ‘-으, -르’의 형태로 나타난다. 구격조사가 목적격조사와 교체를 보이는 현상은 연변 지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헌자료와 함경도 방언을 비롯한 기타 지역어들에서도 발견되던 현상이다. 럽종률(1992)에서는 구격조사를 ‘조격’이라고 부르고 역사적으로는 목적격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본다. 그 근거로 역사적 문헌들에서 목적격과 구격의 의미가 미분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63)의 예들을 제시하였다.

(63) 가. 노래로 부르습느니라(노래를 부르니라)(월석, 1, 15)

나. 나라호로 아스 맛디시고(나라를 아우에게 맡기시고)(법화, 7, 144)

다. 앓보치들이 매못고 줄로 서(일가친척들이 차림새를 하고 줄을 서)(이륜)

(63)은 림종률(1992:168)에서 제시한 예이다. (63)에서 ‘노래로, 나라호로, 줄로’는 목적격조사로 표시되어야 할 것들이나 구격조사로 표시되고 있다. 그리고 다음 (64)의 예는 림종률(1992:162)에서 제시한 구격조사로 표시되어야 할 것들이 목적격조사로 표시된 예문들이다.

- (64) 가. 고출 因_하야(꽃으로 인하여)(월석, 64,4)
나. 기근을 말미아마(기근으로 말미아마)(정속, 49)
다. 모물 化_하야(몸으로 화하여)(월석, 21, 35)
라. 아모 다술브터(아무 탓으로부터)(월석 서, 3)
마. 同里_{로부터} 오니(동리로부터 오니)(룡가,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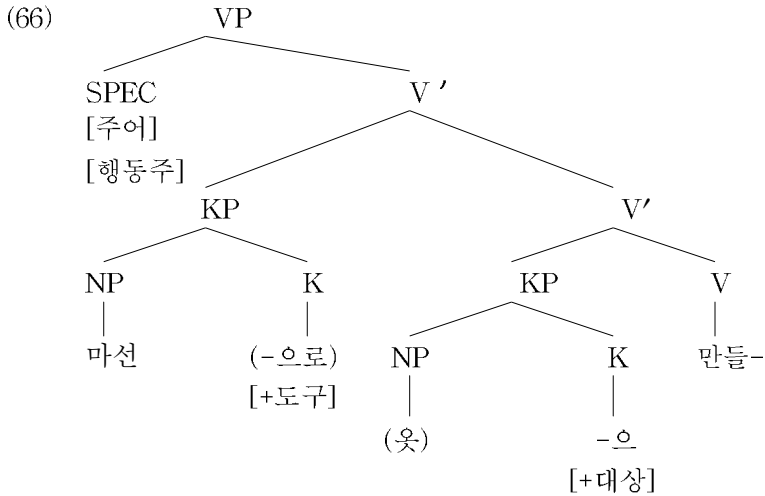
(64)에서 ‘고출, 기근을, 모물, 다술, 同里_{로부터}’은 구격조사로 표시되어야 할 것들이 목적격조사로 표시된 예들이다. 이런 현상들은 목적격조사와 구격조사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정용호(1988:194)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구격조사의 형태 ‘-으루, -루’와 목적격조사가 음운론적으로 유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점이다. 둘째, 목적격 형태의 격범주가 구격보다는 이른 시기에 생성되어 일정한 시기까지 목적격이 구격을 대신하였던 역사적 관점이다.

그렇다면 아래에 연변 지역어에서 구격조사가 목적격조사로 교체되어 나타난 예를 살펴본다. 그 예는 다음 (65)와 같다.

- (65) 가. 업마 꽃부리 천으 마선으 박아서 만들어준거 입구.
(=엄마가 꽃 천을 마선으로 박아서 만들어 준 옷을 입고.)
나. 빨래들에다가 옷으 놓구 방치르 막 두들긴다말이꾸마.
(=옷을 빨래 돌에 놓고 방망이로 두드려 씻어요.)

(65)의 예문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어찌하다’의 문장구성이다. 여기서 ‘다른 대상’은 일반적으로 [+도구]나 [+수단], [+방법]으로 나타난다. (65가)의 D-구조⁴⁴⁾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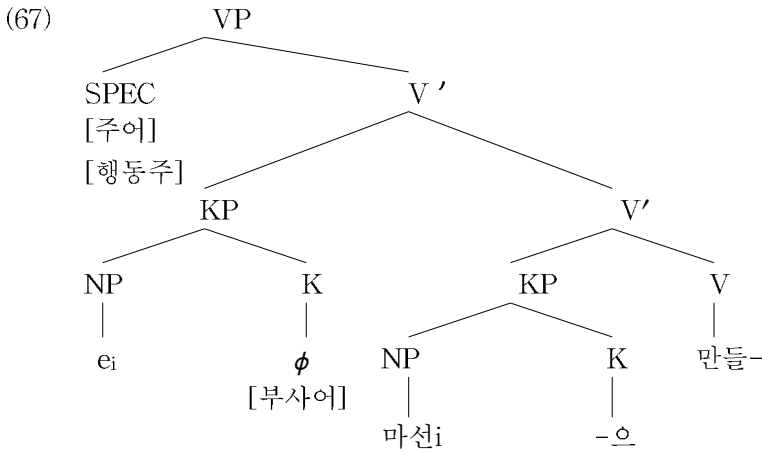
이면 (66)과 같다.



(66)에서 보다시피 (65가)의 심층구문은 ‘옷을 마선으로 박아서 만들-’이다. (66)에서 구격조사 ‘-으로’와 목적어 명사구 ‘옷’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심층구조에서만 반영된 요소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기한다. 여기서 부사어의 자리에는 [+도구]의 의미 자질을 가진 명사구 ‘마선’이 놓이고 구격조사 ‘-으로’가 실현된다.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구 ‘옷’이 놓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된다. 하지만 S-구조⁴⁵⁾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S-구조를 보면 (6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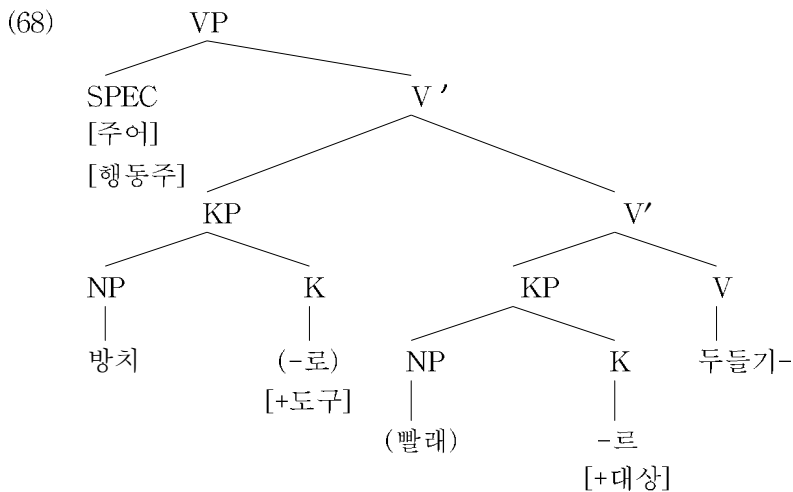
44) 표준 이론에서 심층구조에서 해석된 의미는 표층구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의미보존 가설’에 근거하여 이동 변형규칙이 적용된다. 이동 변형규칙에 의하여 문장의 한 성분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과 같은 현상을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최재희 (2004)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 D-구조는 변형을 거치기 이전의 모습으로서 심층구조를 가리킨다.

45) S-구조는 변형을 거친 이후의 모습으로서 표층구조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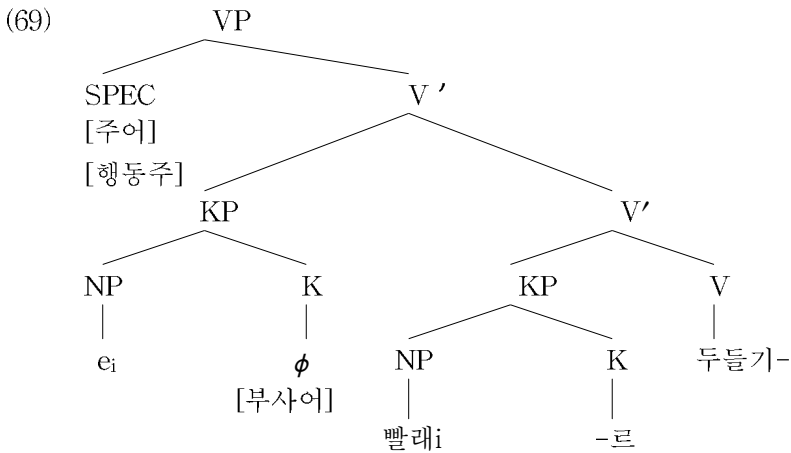
(67)에서 보면 부사어의 자리에 구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조사는 실현되지만 명사구의 자리가 비어있다. 따라서 [+도구]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부사어의 자리에 놓이던 명사구 ‘마선’은 비어 있는 목적어 자리에서 실현된다.

아래 계속해서 (65나)의 D-구조를 보이면 (68)과 같다.



(68)에서 보다시피 (65나)의 심층구문은 ‘빨래르 방치로 두들기-’이다. (68)에서 구격조사 ‘-로’와 목적어 명사구 ‘빨래’는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심층구조에서만 반영된

요소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기한다. 여기서 부사어의 자리에는 [+도구]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 ‘방치’가 놓이고 구격조사 ‘-로’가 실현된다.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구 ‘빨래’가 놓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목적격조사 ‘-르’가 실현된다. 하지만 S-구조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S-구조를 보면 다음 (69)와 같다.



(69)에서 보면 부사어의 자리에 구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조사는 실현되지만 명사구의 자리가 비어있다. 따라서 [+도구]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부사어의 자리에 놓이던 명사구 ‘방치’는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서 실현된다.

4.2.2. 향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교체

연변 지역어에서 향격조사는 구격조사와 마찬가지로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을러, -을르’로 나타나고 목적격조사는 ‘-으, -르’의 형태로 나타난다. 향격조사가 목적격조사에 의하여 교체되는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 예 (7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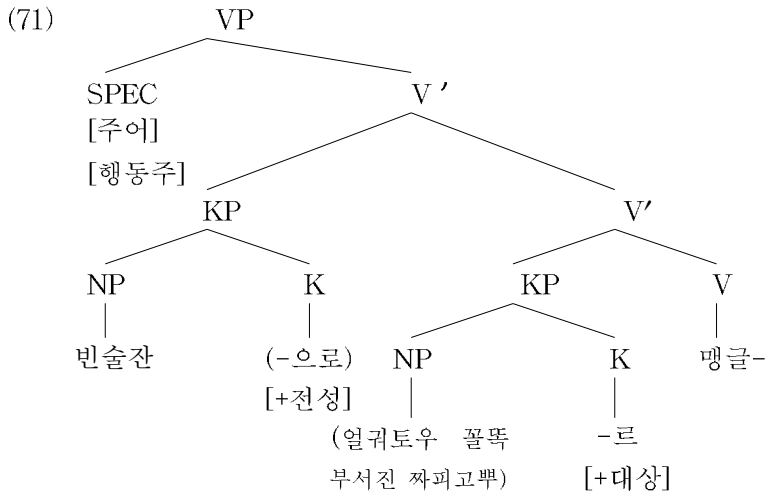
(70) 가. 짜피고뿌에 알귀토우 꼴뚝 부서노쿠 그대 이름 부르며 빈술잔으 맹글겠다.

(=생맥주잔에 이과두주를 잔뜩 따르고 그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맥주잔을 빈 잔으로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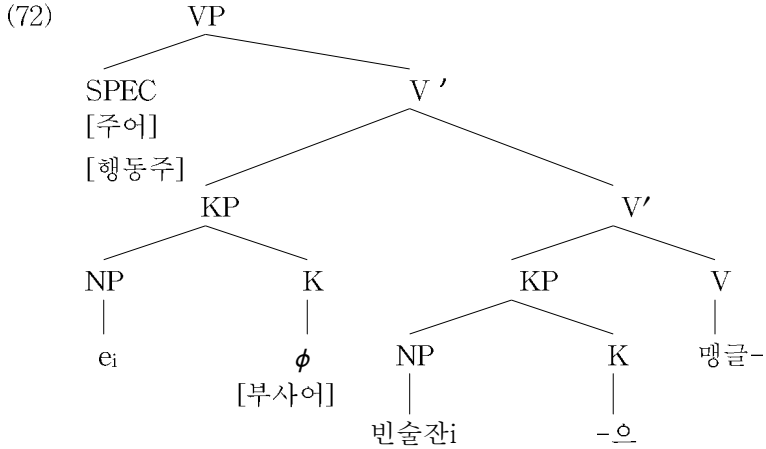
나. 공인집 아드리는 고기라메 반찬으 싸가지구 오는데.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애들은 도시락 반찬으로 고기를 싸갓고 다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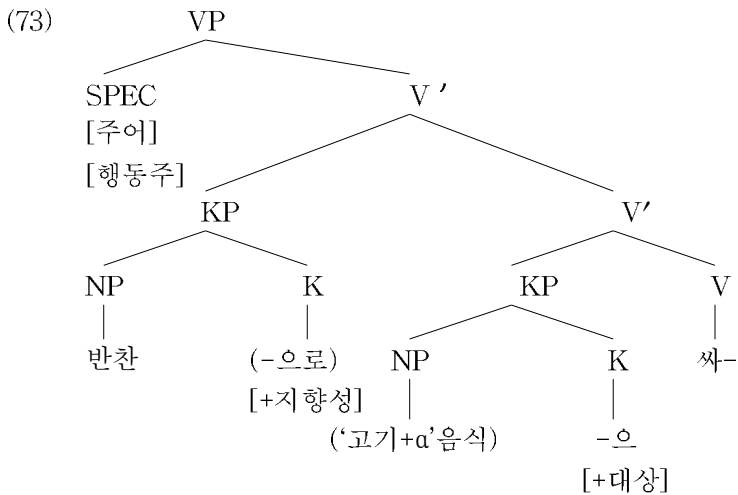
(70)은 ‘어떤 상태가 다른 어떤 상태로 변화되다’의 문장구성을 가져 전성구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문장들이다. 여기서 ‘다른 상태’는 일반적으로 [+방향], [+지향성]이나 [+전성]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70가)의 D-구조를 보이면 (7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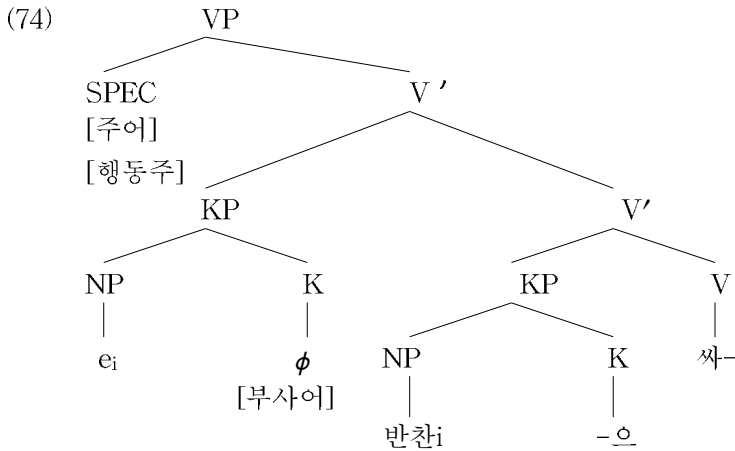
(71)에서 보다시피 (70가)의 심층구문은 ‘알귀토우 꼴뚝 부서진 짜피고뿌를 빈술잔으로 맹글겠다’이다. (71)에서 향격조사 ‘-으로’와 목적어 명사구 ‘알귀토우 꼴뚝 부서진 짜피고뿌’는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심층구조에서만 반영된 요소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기한다. 여기서 부사어의 자리에는 [+전성]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 ‘빈술잔’이 놓이고 향격조사 ‘-으로’가 실현된다.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구 ‘알귀토우 꼴뚝 부서진 짜피고뿌’가 놓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목적격조사 ‘-르’가 실현된다. 하지만 S-구조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S-구조를 보면 (72)와 같다.



(72)에서 보면 부사어의 자리에 향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조사는 실현되지만 명사구의 자리가 비어있다. 따라서 [+전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부사어의 자리에 놓이던 명사구 ‘빈술잔’은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서 실현된다. 아래 계속해서 (70나)의 D-구조를 보이면 (73)과 같다.



(73)에서 보다시피 (70나)의 심층구문은 ‘반찬으로 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싸다’이다. (73)에서 향격조사 ‘-으로’와 목적어 명사구 ‘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심층구조에서만 반영된 요소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기한다. 여기서 부사어의 자리에는 [+지향성]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 ‘반찬’이 놓이고 향격조사 ‘-으로’가 실현된다.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구 ‘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이 놓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된다. 하지만 S-구조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S-구조를 보면 (74)와 같다.



(74)에서 보면 부사어의 자리에 향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조사는 실현되지만 명사구의 자리가 비어있다. 왜냐하면 ‘고기’에 여러 가지 음식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특수조사 ‘-라메’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목적어의 대상이 개별 대상이 아닌 집합체로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조치로 목적격조사가 아닌 특수조사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향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부사어의 자리에 놓이던 명사구 ‘반찬’은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서 실현된다.

4.2.3. 처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교체

연변 지역어에서 처격조사는 ‘-에, -메, -에서, -메서, -서, -ㄴ, -ㄴ데, -에다, -에다가, -다, -다가, -다대구, -에게, -보구, -한테, -한테서, -ㄴ데, -인데, -이데, -인데서’로 나타나고 목적격조사는 ‘-으, -르’의 형태로 나타난다. 처격조사가 목적격조사에 의하여 교체되는 현상을 살펴보면 예 (7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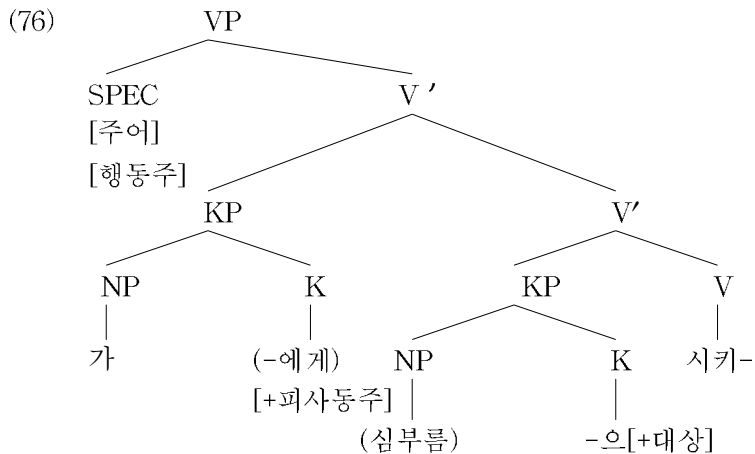
(75) 가. 가르 시키지 마오.

(=그 애에게 시키지 말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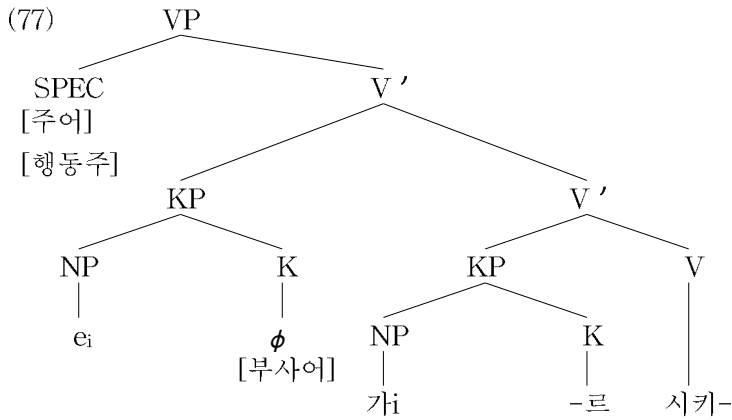
나. 지금 애들으 그렇게 다니라문 죽는다구 난시께야.

(=요즘의 애들에게 그렇게 다니라고 시키면 죽는 줄 알고 난리 날걸요)

(75)은 ‘어떤 대상(n1)이 다른 대상(n2)에게 어떤 일이나 행동을 시키다’의 사동 문장 구성이다. 여기서 ‘다른 대상’은 일반적으로 [+피사동주]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75가)의 D-구조를 보이면 (7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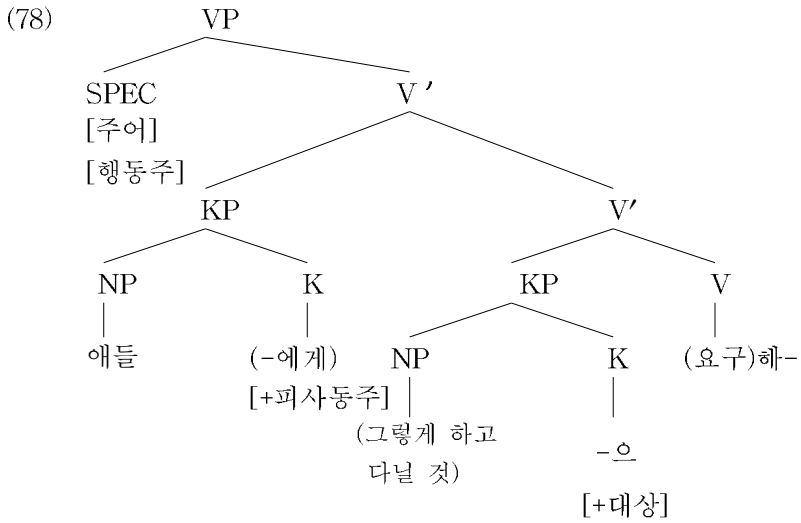


(76)에서 보다시피 (75가)의 심층구문은 ‘가에게 심부름을 시키다’이다. (76)에서 처격조사 ‘-에게’와 목적어 명사구 ‘심부름’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심층구조에서만 반영된 요소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기한다. 여기서 부사어의 자리에는 [+피사동주]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 ‘심부름’이 놓이고 처격조사 ‘-에게’가 실현된다.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구 ‘심부름’이 놓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된다. 하지만 S-구조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S-구조를 보면 (7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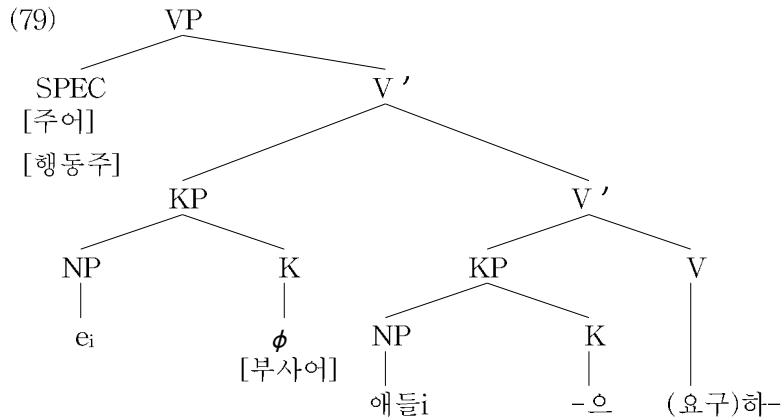


(77)에서 보면 부사어의 자리에 처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조사는 실현되지만 명사구의 자리가 비어있다. 따라서 [+피사동주]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부사어의 자리에 놓이던 명사구 ‘가’는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서 실현된다.

아래에 계속해서 (75나)의 D-구조를 보이면 (7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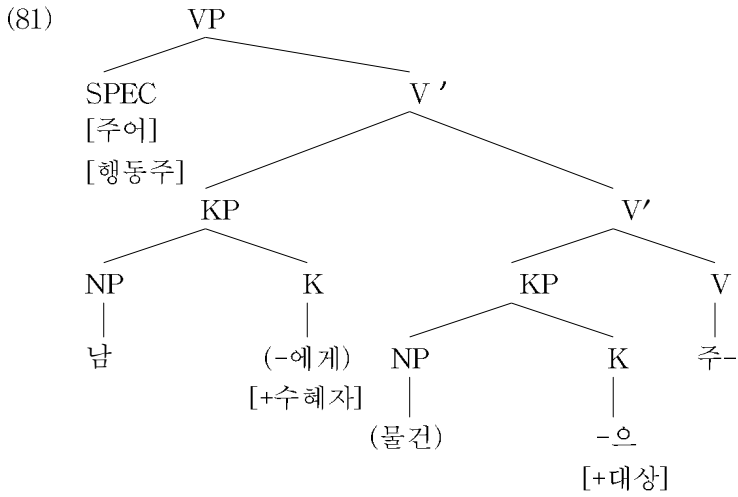
(78)에서 보다시피 (75나)의 심층구문은 ‘애들에게 그렇게 하고 다닐 것을 요구하다’이다. (78)에서 처격조사 ‘-에게’와 목적어 명사구 ‘그렇게 하고 다닐 것’, 서술어 ‘요구’는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심층구조에서만 반영된 요소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기한다. 여기서 부사어의 자리에는 [+피사동주]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 ‘그렇게 하고 다닐 것’이 놓이고 처격조사 ‘-에게’가 실현된다.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구 ‘그렇게 하고 다닐 것’이 놓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된다. 하지만 S-구조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S-구조를 보면 (7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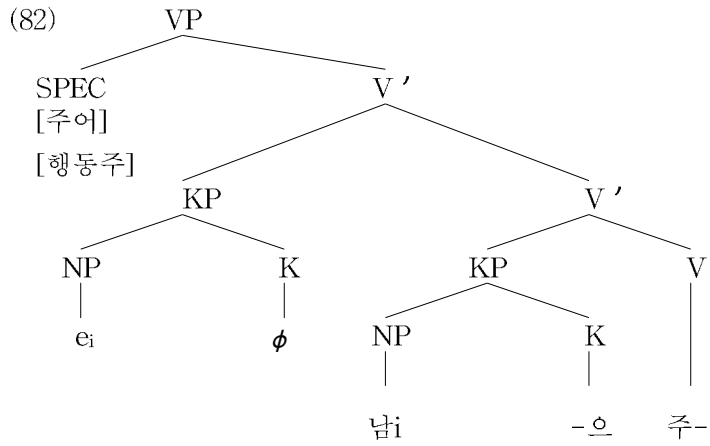
(79)에서 보면 부사어의 자리에 처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조사는 실현되지만 명사구의 자리가 비어있다. 따라서 [+피사동주]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부사어의 자리에 놓이던 명사구 ‘애들’은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서 실현된다. 처격조사와 교체를 보이는 목적격조사의 다른 예를 보면 (80)과 같다.

(80) 가. 아때부터 멘날 남으 퍼줄각지를 잘하더만 지금은 개뿔두 없이 사는거 보우.(=어
 릴 때부터 쪽 남에게 퍼주기만을 좋아하더니, 지금 빈털터리로 사는 것을 봐요)
 나. 너르 줄꺼므 대지르 주겠다.
 (=너에게 주느니 돼지에게 주겠다)

(80)은 ‘어떤 대상(n1)이 다른 대상(n2)에게 무엇(n3)을 주다’의 문장 구성인 수여 동사구문이다. 여기서 ‘다른 대상’은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77가)의 D-구조를 보이면 (81)과 같다.



(81)에서 보다시피 (80가)의 심층구문은 ‘남에게 물건을 주다’이다. (81)에서 처격조사 ‘-에게’와 목적어 명사구 ‘물건’은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심층구조에서만 반영된 요소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기한다. 여기서 부사어의 자리에는 [+수혜자]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 ‘남’이 놓이고 처격조사 ‘-에게’가 실현된다.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구 ‘물건’이 놓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목적격조사 ‘-으’가 실현된다. 하지만 S-구조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S-구조를 보면 (82)와 같다.



(82)에서 보면 부사어의 자리에 처격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조사는 실현되지만 명사구의 자리가 비어있다. 따라서 [+수혜자]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부사어의 자리에 놓이던 명사구 '남'은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서 실현된다.

4.3. 격조사별 대명사의 형태 교체

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주목되는 문제 가운데의 하나는 격조사가 실현되는 명사구에 형태 변화가 생기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대명사의 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본 절에서는 편의상 대명사를 의문대명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로 분류하고 격조사에 따른 형태 교체 양상을 살펴본다.

4.3.1. 의문대명사의 형태 교체

4.3.1.1. ‘누구’의 형태

먼저,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와의 결합을 살펴보면 (83)-(85)와 같다.

(83) 가. 조용거 넌기 모르니?

(=좋은 줄을 누가 몰라?)

나. 넌기 바두 뭐라 못할께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다.)

다. 너르 넌기 준다데?

(=누가 너에게 준다했어?)

(84) 가. 넌기르 찾쓰꾸마?

(=누구를 찾으세요?)

나. 넌기르 오라했니?

(=누구를 오라고 했니?)

다. 니 이재 말항게 넌기르 그래니?

(=너 방금 전에 누구를 이야기 한 거니?)

(85) 가. 이게 니기 책이니?

(=이것이 누구의 책이니?)

나. 누기 말 듣구 누기 말 아이 듣개?

(=누구의 말을 들어주고 누구의 말을 안 들어줄까?)

(83)에서 보면 의문대명사 ‘누기’가 주격조사와 관형격조사와의 결합할 때 표면구조에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84)에서처럼 목적격조사와 결합할 때는 표면구조에 격조사가 나타난다. 또한, 의문대명사 ‘누기’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와 결합할 때 ‘누기’, ‘니기’, ‘누기’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니기’, ‘누기’는 기본형 ‘누기’의 ‘누’가 음운탈락 현상을 거쳐 단모음 ‘니’와 ‘누’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발음의 편이를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 부사격조사들과의 결합을 살펴보면 예 (86)-(88)과 같다.

(86) 가. 누기께나 다 있스꾸마.

(=누구의 몫이나 다 있어요.)

나. 누기께나 곱 아픈 일 있다.

(=누구에게나 머리 아픈 일이 있다.)

다. 이렇거느 누기데 물어보문 되능가?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라. 가 누기데나 다 돌아댕기메 떠든다.

(=개가 누구에게나 다 알린다.)

(87) 가. 내 동새는 누기보담두 승백심이 췌다.

(=내 동생은 누구보다도 승백심이 강하다.)

나. 헤투우 부는데사 누기마 하겠니?

(=허풍 떠는 데 너를 당할 사람이 있겠니?)

다. 니기처럼 빌어먹을 짓으 안한다.

(=누구처럼 빌어먹을 짓을 안한다.)

라. 말해보쇼! 내 누기보다 못하꾸마!

(=말해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못하나요?)

(88) 가. 뉘기까나 아는체 한다.

(=누구에게나 알은척을 한다.)

나. 가 니기까 한다구?

(=개가 누구와 연애를 한다고?)

다. 니 지금 누기까 노니?

(=너 지금 누구와 놀아?)

(86)은 처격조사에서, (87)은 비교격조사에서, (88)은 공동격조사에서 나타난 예이다. 의문대명사 ‘누(구)’는 이들 격조사와 결합하여 각각 ‘뉘기’, ‘니기’, ‘누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와의 결합에서와 같은 형태이다.

연변 지역어에는 ‘뉘(기)’가 ‘뉘’, ‘뉘’, ‘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형태는 관형격조사와 공동격조사와의 결합에서 나타난다. 그 예는 (89)-(90)과 같다.

(89) 가. 그게 뉘 개요?

(=그게 누구의 것이요?)

나. 뉘네 집 딸인지 장하다야!

(=누구의 집 딸인지 장하다!)

다. 뉘 여자르 어쩔까내서느

(=누구의 여자인줄 알고 집적대려고 해?)

라. 네 소리르 한다.(=누구의 소리를 한다: 본인의 결점은 생각 못하고 남의 결점만 들춰낸다는 뜻으로 사용됨)

(90) 가. 저 참한 색시는 넌이 결혼할지...

(=저렇게 참한 색시는 누구와 결혼할지...)

나. 넌이나 다 말한다.

(=누구에게나 다 말한다.)

다. 넌이나 다 말한다.

(=누구에게나 다 말한다.)

(89가-나)는 의문대명사 ‘누(구)’가 ‘뉘’의 형태로 나타난 예이다. 김동소 외 (1994:183-184)에 의하면 의문대명사 ‘누’가 중세한국어에서 관형격과 결합될 때 그 형태가 ‘뉘’로 된다.⁴⁶⁾ 이 지역어에서는 관형격조사 외에 비교격조사에서도 ‘뉘’의 형태가 나타난다. 관형격조사와의 결합에서 특이한 것은 (89다-라)의 ‘네’, ‘네’의 형태이다. 여기서 ‘네’는 ‘네’의 활음이 탈락하고 단모음으로 나타난 형태이다. 이 지역어에서 ‘네’는 ‘누구’의 뜻보다는 ‘남(他人)’의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89다-라)의 ‘네’, ‘네’ 자리에 ‘남’, ‘다른 사람’을 교체하여도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90)에서 보듯이 ‘네’, ‘네’는 공동격조사와의 결합에서도 나타난다. 이때의 ‘네’, ‘네’ 역시 관형격조사와의 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의 의미로 사용된다.

4.3.1.2. ‘어디’의 형태

의문대명사 ‘어디’는 주어의 자리에 거의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그 예를 발견할 수 없었다. ‘어디’는 주격조사를 제외한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처격조사, 향격조사, 비교격조사, 공동격조사에 결합된다. 이들 격조사와의 결합에서 ‘어디메’, ‘어드메’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 예는 (91)-(96)과 같다.

(91) 가. 어디메르 가나 다 사람세사이다.

46) 주격과 속격과 결합될 때 모두 ‘뉘’로 나타난다. 이때 주격의 ‘뉘’와 속격의 ‘뉘’는 성조에 의하여 구별된다. 주격은 거성으로, 속격은 상성으로 구별된다(김동소 외1994:29). 연변 지역어에서 주격조사에는 ‘뉘’ 뒤에 ‘기’가 결합된 형태인 ‘뉘기’로 나타난다.

(=어디를 가든지 온통 사람이다.)

(92) 가. 제는 어디메 사람이오?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나. 고마이 어드메 짬다?

(=어느 지역의 고등어예요?)

(93) 가. 어디메 가봤슴둥?

(=어디에 가봤어요?)

나. 어드메 다대구 큰 소리야!

(=어디에 대고 함부로 큰 소리야!)

다. 열째는 맨날 어디메 다 두고 그래니!

(=열쇠는 어디에 두고 번번이 찾고 그래니!)

라. 어디메 가 앓으까?

(=어디에 앓을까?)

마. 제는 어드메 서 왔소?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바. 돈으 어디메 다 감차놔니?

(=돈을 어디에 감춰놨니?)

사. 어디메 다가 어쨌는지 알께머람까!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어요!)

(94) 가. 니 어디멜리 가자구?

(=너 어디로 가려고?)

나. 니 어디메르 가자구 그러니?

(=너 어디로 가려고 그래?)

다. 가 어드멜루 도망체?

(=개가 어디로 도망쳤어?)

(95) 가. 집이 어디메보담두 좋다!

(=제집이 어디보다도 좋다!)

나. 서울이 어드메마이 큼데?

(=서울이 어디만큼 커요?)

(96) 가. 오늘 뽀빠씨이 어디메하구 어디 차니?

(=오늘 축구경기는 어느 팀과 어느 팀이 차니?)

나. 이래 땡게보이까나 니 어드메까 맞능 거 같데?

(=이렇게 돌아다녀보니 네가 어느 곳과 맞는 것 같던?)

(91)은 목적격조사 앞에서, (92)는 관형격조사 앞에서, (93)은 처격조사 앞에서, (94)는 향격조사 앞에서, (95)는 비교격조사 앞에서, (96)은 공동격조사 앞에서 의문대명사 나타난 ‘어디’의 형태를 보여준 예들이다. 의문대명사 ‘어디’는 이들 격조사와 결합할 때 모두 ‘어디메’, ‘어드메’의 형태로 실현된다. 여기서 ‘어디메’와 ‘어드메’는 화자의 발음에 따른 수의적인 현상으로, 형태상의 규칙성이나 의미상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4.3.1.3. ‘얼마’의 형태

의문 대명사 ‘얼마’는 격조사와의 결합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본고의 언어 자료에서는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비교격조사, 공동격조사, 향격조사, 구격조사와 결합된 예가 발견되지 않고, 처격조사, 목적격조사와 결합된 예만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예는 (97)-(98)과 같다.

(97) 가. 얼메에 팔겠소?

(=얼마에 팔려고 해요?)

나. 그 옷으 얼매네 샀답데?
(=그 옷을 얼마에 샀대요?)

(98) 가. 값으 얼매르 부릅데?
(=값은 얼마를 불러요?)

나. 얼매르 받았소?
(=얼마를 받았어요?)

(97)-(98)에서 보면 처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얼마’와 결합될 때 모두 표면구조에 나타난다. 의문대명사 ‘얼마’는 이들 조사와 결합할 때 ‘얼매’의 형태로 나타난다.

4.3.1.4. ‘무엇’의 형태

의문대명사 ‘무엇’은 격조사와 결합할 때 ‘머이’, ‘머어’, ‘무스게’, ‘무시게’, ‘무스겨’, ‘무승겨’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머어’, ‘머’로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면 (99)와 같다.

(99) 가. 점심에 머어 떡개?
(=점심에 무엇을 먹을래?)
나. 멀리 머어였는지 판따나다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견고하네!)

(99가)는 목적격조사와 결합할 때 ‘머어’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99나)는 구격조사와 결합할 때 ‘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형태는 ‘무엇’이 음절말 탈락 현상을 겪어 ‘무어’로 되고, ‘무어’의 첫 음절이 뒤의 음절 ‘어’의 모음에 의하여 동화되어 ‘머어’로 된 것으로 보인다. ‘머어’의 ‘어’는 이 지역어에서 하나의 음절로서가 아닌 소리의 길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99가)에서처럼 목적격조사가 표면 구조에 나타나지 않

을 경우, ‘머어’는 장음 [mæ:]로 사용된다. 반면에 (99나)에서처럼 구격조사 ‘-르러’가 표면 구조에 나타난 경우에는 단음 [mæ]로 사용된다.

다음, ‘머’, ‘머이’의 형태로 나타난 예를 살펴보면 (100)과 같다.

(100) 가. 머이 보입까?

(=무엇이 보입니까?)

나. 찌치런으 머이까 바깸는지 아니?

(=로봇을 무엇과 바꿨는지 물어?)

(100가)는 주격조사와 결합할 때 ‘머’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100나)는 공동격조사와 결합할 때 ‘머이’의 형태로 나타난 예이다. ‘머’의 형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엇’의 형태가 이 지역어의 음운 습관에 맞게 변형된 형태이다.

그리고 ‘무스거’, ‘무스게’의 형태로 나타난 예를 살펴보면 (101)과 같다.

(101) 가. 무스게 이리 비싸니?

(=무엇이 이렇게 비싸?)

나. 니 무스거 좋아하느니 몰라서...

(=네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무스게보담두 중요한게 사람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 마음이다!)

라. 흑판으 무승걸러 미껴?

(=흑판을 무엇으로 지워?)

(101)에서 보면 의문대명사 ‘무엇’이 ‘무슨 것’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무슨 것’은 음운탈락 현상을 겪어 ‘무스 거’로 사용되거나, ‘-슨-’의 ‘n’이 ‘-것’의 ‘k’의 [+dorsal]자질에 의하여 ‘ŋ’으로 위치동화를 겪어 ‘무승거’로 사용된다. (101가)는 ‘무스거’가 주격조사와 결합하여 ‘무스게’의 형태로 나타난 예이다. 이 현상은 ‘무스거’의 ‘거’와 주격조사

‘-이’가 음운 축약되어 ‘게’로 나타난 것이다. (101나)는 ‘무스거’가 목적격조사의 앞에서 나타난 예인데, 목적격조사는 표면 구조에 나타나지 않았다. (101다)는 ‘무스거’의 ‘-스-’가 이화되어 ‘-시-’로 사용된 예이다. 실제로 연변 지역어에서 ‘무슨’은 ‘무신’으로 사용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겸손의 뜻을 나타내는 ‘별말씀을요’라는 표현 대신에 ‘무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01라)는 구격조사 ‘-르러’가 결합될 때 ‘무스거’가 위치 동화를 겪어 ‘무승거’의 형태로 나타난 예이다.

4.3.2. 인칭 대명사의 형태 교체

일인칭대명사 ‘나’는 목적격조사와 결합할 때 ‘나’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격조사와의 결합에서는 모두 ‘내’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목적격조사와 결합한 예를 보면 (102)와 같다.

(102) 무슨말인지 몰라서 나르 깨내 쳐다보든게 계속 알락방구하께꾸나.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계속 사장님께 아양을 떠는 거야.)

(102)에서 보면 일인칭대명사 ‘나’는 형태의 변화 없이 목적격조사 ‘-르’에 결합되고 있다. 하지만, 목적격조사를 제외한 기타 격조사와의 결합에서는 (103)과 같이 모두 ‘내’의 형태로 나타난다.

(103) 가. 내 머 씨장 아이 문다는것 처럼

(=내가 빗을 안 물겠다고 한 것처럼.)

나. 내 지금 기분이 어떤가무.

(=나의 지금 기분이 어떤가 하면.)

다. 가 내보다 낮쓰끼야.

(=개가 나보다 낮을 거야.)

라. 다 내마이 해라해라!

(=다 나만큼만 해라고 해!)

마. 니 돈으 넌데 댜께?

(=네가 언제 돈을 나에게 댜긴 적이 있어?)

바. 내까 댜댜라! 꼴아푸다!

(=머리 아프니까 나와 댜하지 마!)

(103가)는 일인칭대명사 ‘나’가 주격조사 ‘-이’앞에서 ‘내’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특이한 것은 (103나)의 관형격조사, (103다-라)의 비교격조사, (103마)의 처격조사, (103바)의 공동격조사와의 결합에서도 주격조사의 결합과 같은 양상을 띠어 모두 ‘내’로 나타난다.

이인칭대명사 ‘너’는 격조사와 결합될 때 ‘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예는 (104)와 같다.

(104) 가. 니 없으무 내 정마 죽을것 같다.

(=네가 내 곁에 없으면 난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나. 그래니까 총적으로 말해서 내 니 실타는 말이다.

(=그러니 결론은 한마디로 난 네가 싫어.)

다. 니 주제르 알고 좀 너스레를 떨어라.

(=너 주제파악을 하고 떠들어라.)

라. 내 넌데 할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마. 거기서 니까 처음으루 뽀뽀르 했재쿠뵤야.

(=거기에서 처음으로 너와 키스를 했잖아.)

바. 니하구 내하구 세와노브 허수아비하구 놀이깎지애기르 같이 세와논같다더라.

(=너와 내가 함께 서있으면 허수아비와 인형을 같이 세워놓은 것 같대.)

사. 니처림 얼뽀하게서리.

(=너처럼 바보같이.)

아. 내 니마이 받으무 훨훨 날아댕긴다.

(=내가 월급을 너만큼 받으면 훨훨 날아다닐 기분일거야.)

(104가)는 주격조사와, (104나)는 목적격조사와, (104다)는 관형격조사와, (104라)는 처격조사와, (104마-바)는 공동격조사와, (104사-아)는 비교격조사와 결합된 예이다. 이 때 이인칭대명사 ‘너’는 모두 ‘니’의 형태로 나타난다.

연변 지역어 이인칭대명사에는 ‘제(彼)’가 있다. ‘제’는 일반적으로 대등하거나 손아래 사람을 직접 가리킬 때 사용한다. ‘제’는 격조사와 결합될 때 ‘제’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저’의 형태로 나타난다. (105)는 격조사와 결합할 때 ‘제’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예이다.

(105) 가. 그보우 제 쫄꼬말때 여자랑게 세초 가꾸댕기몐서.

(=그거 봐요, 당신이 어릴 때 여자애가 새총을 갖고 다니면서.)

나. 하기사 제만한 인물이른 이때 툽툽 텅기몐서 골라야지.

(=하긴 당신만한 미모면 이마를 툽툽 치며 선택해야 당연한 거죠.)

다. 제까 핵꼬 같이 댕쨌땃다메?

(=당신과 함께 학교 다녔다면서?)

(105가)는 주격조사와 결합된 예이고, (105나)는 비교격조사와 결합된 예이며, (105다)는 공동격조사와 결합된 예이다. 이 때 이인칭대명사 ‘제’는 형태의 변화 없이 ‘제’로 나타난다.

이인칭대명사 ‘제’는 ‘저’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예 (106)과 같다.

(106) 가. 고때 저르 빼구는 눈에 차는 여자애라구 없엇는데말ियो.

(=그때 당신을 제외하고는 눈에 들어오는 여자애가 없었어요.)

나. 저르 형페없이 칭찬합데!

(=당신을 극찬하던데요!)

다. 내 썬풀앙까이하구 제 말으 마이하는축이오~

(=내가 상점아주머니에게 당신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라. 전네 동네서 제만 이새르 가른 여자 아이라 아메두 구경하기 바쁘오!

(=당신네 동네에서 당신만 이사를 가면 여자가 아니라 할머니도 구경하기 힘들어요!)

(106가-나)는 목적격조사 ‘-르’와 결합될 때 이인칭대명사 ‘제’가 ‘저’, ‘제’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예이다. (106다-라)는 관형격조사와 결합될 때 이인칭대명사가 ‘제’, ‘저’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예이다. 목적격조사와 결합될 때의 ‘제’와 ‘저’는 수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되는 현상이다. 반면에 관형격조사와의 결합에서 ‘저’는 관형격조사 ‘-네’와 결합될 때에만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는 뒤에 오는 격조사 ‘네’에 이미 모음 ‘ㄴ’이 들어있으므로 같은 음이 중복되는 것을 기피하여 ‘제’가 ‘저’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4.3.3. 지시대명사의 형태 교체

4.3.3.1. 인물지시대명사의 형태

연변 지역어의 인물지시대명사에는 ‘이 아이’, ‘그 아이’, ‘저 아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야아’, ‘가아’, ‘자아’가 있다. 이들 지시대명사가 격조사와 결합된 예는 (107)-(109)와 같다.

(107) 가. 야아 가야?

(=애가 바로 그 애야?)

나. 야르 바라, 머리 훅 들았재?

(=애를 봐, 머리가 들었잖아?)

다. 야아 낮이 어째 이리 새타야타니?

(=애 얼굴이 왜 이리 하얗대?)

라. 내 앞에 한번 당해서바서 알지롱~
(=내가 애에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알죠.)

마. 니 얏까 노니?
(=너 애와 놀아?)

바. 얏마이 밀진 사람이 수두룩하다!
(=애처럼 밀진 사람이 수두룩하다!)

(108) 가. 간 무슨말인지 몰라서 나르 깨내 체다보든게 계속 알락방구하개꾸나.(=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계속 사장님께 아양을 떠는 거야.)

나. 낮에 독이 올라가지구서 간르 정시없이 톨갓다는겜다.
(=얼굴에 열이 잔뜩 올라서는 개를 쫓아갔어요.)

다. 이게 가아 사진이야?
(=이것이 그 애의 사진이야?)

라. 누기 간데 간다데?
(=누가 개한테 간대?)

마. 누기든지 간까 친하는 아는 다 또메이하다.
(=개와 친하게 지내는 애는 누구든지 다 재수 없어.)

사. 가마이 염치 꽃반쓰인 애 어디 있니?
(=개처럼 염치없는 애가 어디 있겠니?)

(109) 가. 자아 저래 주새 없단데!
(=재가 저렇게 주책 없어!)

나. 내 자아 돈 쓰므 정말 머이다!
(=내가 재의 돈을 쓰면 정말 머이다!)

다. 자르 어디다 쓰개?
(=재를 어디에 쓰면 좋아?)

라. 비밀으 잔데다 말하므 비밀이 아이지므.

(=비밀이던 재에게 말해선 안돼.)

마. 쟈까 니 무슨 관계야?

(=재와 너 무슨 관계야?)

바. 쟈까 놀지 마쇼!

(=재와 놀지 마세요!)

(107-109)에서 보면 지시대명사 ‘야아’, ‘가아’, ‘자아’는 주격조사, 관형격조사와 결합될 때 격조사가 표면 구조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지시대명사는 ‘야아’, ‘가아’, ‘자아’로 나타난다. 목적격조사, 처격조사, 공동격조사, 비교격조사와 결합할 때 격조사가 표면 구조에 나타난다. 이때 지시대명사는 ‘야’, ‘가’, ‘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시대명사 ‘야아’, ‘가아’, ‘자아’의 ‘-아’는 원래는 아(兒)의 뜻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긴 소리로서 장음(長音)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격조사가 표면 구조에 실현될 때는 단음(短音)인 ‘야’, ‘가’, ‘자’로 나타나고, 격조사가 표면구조에 실현되지 않을 때는 장음인 ‘야아’, ‘가아’, ‘자아’로 나타난다.

4.3.3.2. 사물지시대명사의 형태

사물지시대명사에는 ‘이것’, ‘그것’, ‘저것’이 있다. 본고의 언어 자료에서 이들 지시대명사가 관형격조사, 처격조사와 결합된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들 지시대명사가 주격조사, 공동격조사, 비교격조사, 구격조사와 결합된 예를 보면 (110-112)와 같다.

(110) 가. 이게 먼 난시오?

(=이것이 웬 난리요?)

나. 이거 먹어보오!

(=이것을 먹어봐오.)

다. 이거까 그거 바꾸자.

(=이것과 그것을 바꾸자.)

라. 이거마이 클데?

(=이것만큼 컸어요?)

마. 이걸러 뭘까? 모자라잖까?

(=이것으로 될까요? 혹시 부족할까요?)

(111) 가. 그게 얼마네치요?

(=그것이 얼마어치죠?)

나. 그거 맡구 옆에꺼 주쇼.

(=그것을 맡고 옆에 것을 주세요.)

다. 그거까 절덜루 못 바꾼다.

(=그것과 절대로 못 바꿔.)

라. 그거마이 꽤섬한게 또 어디 있겠소?

(=그것만큼 꽤섬한 일이 더 있겠어요?)

머. 그걸러 걸써우개 하믄 좋겠다!

(=그것으로 커버를 만들면 좋겠다!)

(112) 가. 저게 로반이요.

(=저 분이 사장님이세요.)

나. 저거 목에 걸른 병이 낫는답더구마.

(=저것을 목에 걸면 병이 낫는대요.)

다. 저거까 아는체 하지마오.

(=저 사람과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라. 저거처럼 말 안 듣는 놈두 내 침 본다.

(=저 사람처럼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처음 봐요.)

마. 저걸러 뒷골 탁 쳐나라.

(=저것으로 뒤통수를 쳐봐.)

(110-112)에서 보다시피 사물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은 격조사와 결합할 때

음절말 자음이 탈락된 ‘이거’, ‘그거’, ‘저거’의 형태로 사용된다. (110-112)의 첫 번째 예 문은 주격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인데, 이때 주격조사는 표면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이 거’, ‘그거’, ‘저거’의 두 번째 음절 ‘거’와 축약하여 ‘게’로 실현된다. 그리고 (110-112)의 두 번째 예문부터 차례로 목적격조사, 공동격조사, 비교격조사, 구격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이거’, ‘그거’, ‘저거’의 형태로 나타난다.

4.3.3.3. 장소지시대명사의 형태

장소지시대명사에는 ‘여기’, ‘거기’, ‘저기’가 있다. 연변 지역어에서 ‘여기’의 ‘여’는 /ə/ 가 탈락되어 단모음 ‘ㅣ [i]’로 실현되어 ‘이기’로 나타난다. 이들 지시대명사가 격조사와 결합된 예를 보면 (113-115)와 같다.

(113) 가. 이기메 여영 씨워남다

(=여기가 아주 시원합니다.)

나. 태어나서부터 내 이기메르 떠난적이 없다.

(=태어나서 여기를 떠나 본적이 없다.)

다. 이기메께 다 누기께요?

(=여기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라. 이기메 와봤소?

(=여기에 와 본적 있어요?)

마. 이기메까 유이친으 맺었소.

(=여기와 자매기숙사를 맺었어요.)

바. 이기메루 곧꼬지 가무 인차 보입구마.

(=여기로 해서 쭉 가면 곧 보일 거예요.)

사. 이기메처럼 눅게 파는데 없단데!

(=여기처럼 싸게 파는 곳이 없다니까!)

(114) 가. 거기메 어디요?

(=거기가 어디예요?)

나. 야, 니 거기메르 절대 가지말라!

(=애, 너 거기로 절대 가지마!)

다. 거기메께 맛없다더라.

(=거기의 것이 맛없다고 해요.)

라. 거기메 갈께므 요 가까분데서 해결하겠다.

(=거기에 갈 거면 여기 가까운 곳에서 해결하겠다.)

마. 거기메까 맨날 군속한내 해두 아무것두 안된다.

(=자꾸 거기에서 귀찮게 하여도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돼.)

바. 거기메마이 깨끄잔데 없단데!

(=거기처럼 깨끗한 곳이 없다니까요!)

(115) 가. 저기메 넓소?

(=저기가 넓어요?)

나. 저기메르 뵙소.

(=저기를 보십시오.)

다. 저기메 벽들으 다 날라라구마?

(=저기의 벽들을 다 옮겨야 해요?)

라. 저기메 앉아이습소.

(=저기에 앉으십시오.)

마. 저기메까 어떠케 비김까?

(=어떻게 저기와 비교합니까?)

바. 저기멜루 갈까 하다가 안 갔습꾸마.

(=저기로 가려다가 안 갔습니다.)

사. 저기메보다 더 비싸구 좋은데 아는데.

(=저기보다 더 비싸고 좋은 곳을 아는데.)

(113-115)에서 보다시피 연변 지역어에서 ‘이기’, ‘거기’, ‘저기’는 격조사와 결합될 때 ‘이기메’, ‘거기메’, ‘저기메’의 형태로 나타난다.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처격조사와 결합할 때 격조사는 표면 구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목적격조사, 공동격조사, 향격조사, 비교격조사는 표면구조에 나타나고 있다. 격조사가 표면 구조에 실현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들 지시대명사는 같은 형태인 ‘이기메’, ‘거기메’, ‘저기메’로 나타난다.

제 5 장 결론

본고는 중국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의 격조사 실현 양상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격조사의 통사·의미 기능을 분석하고, 서로 다른 격에 속하는 조사들이 교체되어 실현되는 현상과 격조사별 대명사의 형태 교체 현상을 고찰하였다.

본고에서 진행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2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고 격의 개념과 분류를 상정하였다. 먼저, 격을 서술어와 명사구의 관계, 명사구가 서술어의 논항(명사구)와 갖는 통사적인 관계를 포괄시키는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주격은 동사구의 지정어 자리에, 목적격은 동사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관형격은 명사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부사격은 중간범주인 동사구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배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 문장성분과 격을 일치시키되 ‘호격’, ‘서술격’, ‘보격(補格)’을 설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여 격을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명사구와 기타 문장 요소와의 의미관계로 격을 설명하는 견해를 부사격의 하위분류의 기준으로 상정하였다. 주로 ‘주격’과 ‘목적격’과의 의미 관계에 주목하였다. 주격 명사구와 상대적인 대등 관계를 이루는 명사구에는 ‘공동격’을, 주격 명사구를 위한 기준으로 존재하는 명사구에는 ‘비교격’을, 주격 명사구에 의하여 어떤 행위를 경험하는 명사구거나, 주격과 목적격 명사구의 시공간 배경이 되는 명사구에 ‘치격’을, 주격 명사구와 목적격 명사구가 놓일 ‘미래의 시공간’으로 될 수 있는 명사구에 ‘향격’을, 목적격 명사구의 한 부분으로 될 수 있는 명사구에 ‘구격’을 상정하였다. 따라서 부사격은 이런 의미관계에 근거하여 치격, 공동격, 구격, 향격, 비교격의 다섯 격으로 하위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변 지역어 격조사 목록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먼저, 인터넷 게시글이 지역어, 일상어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 ‘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의 ‘내고향사투리’게시판의 게시글에서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언어 자료를 이용하여 말뭉치로 구축하고, 계량언어학적 방법을 이용하

여 격조사로 추정되는 형태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형태들의 격조사 여부를 식별하여 최종 격조사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주격조사에는 ‘-이’, 목적격조사에는 ‘-으, -우, -르’, 관형격조사에는 ‘-에, -이’, 처격조사에는 ‘-에, -메, -에서, -메서, -서, -나, -나데, -에다, -에다가, -다, -다가, -다대구, -에게, -보구, -한테, -한테서, -나데, -인데, -이데, -인데서’, 향격조사에는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올러, -올르’, 구격조사에는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올러, -올르’, 공동격조사에는 ‘-까, -하구’, 비교격조사에는 ‘-같이, -마, -마이, -보다, -처럼, -처럼뜨’가 포함되었다.

제4장에서는 연변 지역어 격조사 실현 양상을 의미 실현, 격조사 교체 실현, 격조사별 대명사 형태 교체 실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격조사의 의미>

연변 지역어에서 주격조사는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연변 지역어에서 주격조사 ‘-이’는 주어 명사구 뒤의 서술어가 동사거나 형용사인 것과는 무관하게 주어 명사구의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이면 실현된다. 주격조사 ‘-이’의 의미 기능은 거의 표준 한국어와 비슷하나, 인용문 외에 다른 서술어가 없는 상황에서 주어 명사구에 ‘-이’의 형태가 실현되는 현상이 특이하다. 본고는 이런 현상은 한문(漢文)에서 동사 ‘왈(曰)’이 나타나는 문장구성과 비슷한 구성형식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중국어(漢語)의 영향을 받은 연변 지역어의 한 특징으로 본다.

연변 지역어에 목적격조사는 ‘-으, -우, -르’의 형태로 실현된다. 여기서 ‘-우’는 선행 음절말 자음에 의하여 동화현상을 겪어서 나타난 형태이다. 연변 지역어에서 목적격조사는 ‘대상’의 의미 기능이외에 ‘출발점’, ‘시작점’, ‘경유지’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데 이런 의미 기능은 ‘유동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변 지역어 목적격조사는 ‘수량’, ‘횟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결합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보충’, ‘명시성’의 의미 기능을 한다.

연변 지역어에서 관형격조사는 ‘-에,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에’는 음운 조건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실현된다. 이에 반하여 관형격조사 ‘-이’는 ‘남’, ‘놈’과

같은 특정 단어에만 실현되는 특수한 현상으로 보인다. 연변 지역어에서 관형격조사는 소속관계를 나타낼 때, 수량,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다른 명사구를 한정할 때, 앞의 명사구가 뒤의 명사구의 ‘속성’이나 ‘특성’을 나타낼 때, 앞의 명사구가 뒤의 명사구의 ‘비유적 속성’이나 ‘비유적 특성’을 나타낼 때에 실현되었다. 동명사구 앞에서는 ‘행동의 주체’, ‘서술어를 한정하는 대상’의 의미 기능을 하였다. 연변 지역어 관형격조사는 앞 명사구의 보충적인 내용지시(指示)를 할 때도 실현되어 ‘정확성’의 의미 기능을 동반하기도 하였다.

연변 지역어에서 부사격조사의 하위범주인 처격조사는 ‘-에, -메, -에서, -메서, -서, -니, -니데, -에다, -에다가, -다, -다가, -다대구, -에게, -보구, -한테, -한테서, -니데, -인데, -이데, -인데서’의 형태가 실현된다. 이들 형태는 음운 환경에 따라 규칙적인 이형태를 보였는바, 개음절 아래에서 ‘-에서, -에다, -에다가, -에가’는 ‘-에’가 탈락된 ‘-서, -다, -다가, -가’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또한, ‘-니데’는 개음절 아래에서만 실현되고, ‘-인데’는 폐음절 아래에서만 실현되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니데’와 ‘-인데’도 음운상의 이형태이다. 처격조사의 형태별 의미 기능을 검토한 결과, ‘-에’는 ‘장소’, ‘범위’, ‘조건’, ‘원인(이유)’의 의미 기능이, ‘-에서’는 ‘활동배경’, ‘출처’의 의미 기능이, ‘-에다’는 ‘놓이는 장소’, ‘결들임’ 또는 ‘추가함’의 의미 기능이, ‘-에다가’는 ‘놓이는 장소’의 의미 기능과 함께 화용론적인 ‘초점’의 의미 기능이, ‘-에가’는 ‘변경된 장소’의 의미 기능이, ‘-니데(인데)’는 ‘종착점’, ‘수혜자’, ‘행동주’의 의미 기능이, ‘-한테’는 ‘-니데’가 갖는 의미 기능 외에 화용론적 의미 기능인 ‘강조’의 의미 기능이, ‘-보구’는 ‘행위지시(行爲指示)’의 의미 기능이 확인되었다.

연변 지역어에서 부사격조사의 하위범주인 향격조사는 ‘-루, -러, -르루, -르러, -을루, -으루, -러, -올러, -올르’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여기서 ‘-올러’와 ‘-올루’, ‘-르러’와 ‘-르루’, ‘-러’와 ‘-루’는 발화자의 발화에 따른 수의적인 현상으로서 의미상 변별되는 현상이 아니다.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난 명사구에 향격조사 ‘-르루’가 실현되고, 마지막 음절의 자음이 유음 ‘르’로 끝나는 명사구에 향격조사 ‘-러’가 실현되며, 마지막 음절이 폐음절로 끝난 명사구에 향격조사 ‘-올루’가 실현된다. ‘지향점’의 의미 기

능을 하는 향격조사 ‘-르러’, ‘-루’는 방향이나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에 연결되어 서술어의 이동방향이나 이동장소를 나타내되 ‘목표’가 아닌 ‘지향성’으로 나타내었다. 연변 지역어에서 향격조사는 옹근 장소나 공간이 아닌 부분 장소나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서도 나타나는데 향격조사의 이러한 작용을 ‘측면’의 의미 기능으로 본다. 향격조사가 행동의 시간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나타난 서술어와 관련하여 ‘시간약정(約定)’의 의미 기능을, 명사구에 의하여 ‘순서’, ‘시간한정(限定)’의 의미 기능을, 명사구와 ‘지속상태(持續狀態)’의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에 의하여 ‘발단시간(發端時間)’의 의미 기능을 한다. 서술어가 ‘변화’의 의미자질을 가질 때 ‘변화의 결과’의 의미 기능을 한다.

연변 지역어에서 부사격조사의 하위범주인 구격조사는 향격조사와 같은 형태인 ‘-루, -러, -르루, -르러, -올루, -올루, -러, -올러, -올르’의 형태로 나타났다. 구격조사는 [+도구], [+수단], [+양태]의 의미 기능이 확인되었다. 연변 지역어에서 구격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표시하는 의미 기능을 하는데 연변 지역어에서는 격식적인 장소를 제외하고 ‘-(으)로서’, ‘-(으)로써’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이런 의미 기능은 현대 한국어의 ‘-(으)로’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이 지역어에서는 ‘-(으)르러, -루’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구격조사는 ‘결론’ 또는 ‘결과’의 의미자질을 가진 서술어에 실현된다. 이들 서술어는 그 결론이나 결과에 따른 원인을 나타내는 논항을 내재하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환경에서 구격조사 자체에 의하여 ‘원인’의 의미 기능을 실현하였다.

연변 지역어에서 부사격조사의 하위범주인 공동격조사는 ‘-까, -하구’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 지역의 공동격조사 ‘-까’는 음운 이형태를 갖지 않고 ‘-까’ 하나로 실현된다. 공동격조사 ‘-까’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두 대상의 관계나 협동’을 실현시키는 의미 기능을 한다. 공동격조사 ‘-하구’ 역시 개·폐음절 모두에 실현된다. 또한, 공동격조사 ‘-까’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두 대상의 관계나 협동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구’는 ‘-까’와 교체하여 사용하여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연변 지역어에서 공동격조사 ‘-까’가 ‘-하구’에 비하여 일반적인 형태임을 감안할 때 ‘-하구’의 사용은 화용론적인 의

도로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연변 지역어에서 부사격조사의 하위범주인 비교격조사는 ‘-보다, -같이, -마, -마이, -처럼, -처럼므’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교격조사 ‘-보다’는 ‘NP1이 NP2보다 어떠하다’와 ‘NP1보다 NP2가 어떠하다’의 문장구성으로 나타나는데 각각 두 번째 명사구(NP2)와 첫 번째 명사구(NP1)가 비교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마’의 자리에 ‘-보다’를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비교격조사 ‘-보다’는 서술어에 제한이 따르지 않는 반면, 비교격조사 ‘-마’는 서술어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어야 한다. 비교격조사 ‘-마이’는 현대 한국어의 ‘-만큼’에 해당된다. 이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마이’는 그와 결합되는 명사구로 하여금 ‘비교의 우위’에 놓이게 하는 의미 기능을 나타내게 한다. 이 지역어에서 비교격조사 ‘-같이’의 형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비교격조사 ‘-같이’는 극단적인 비교대상과의 비교를 성사시키면서 ‘강조’의 의미 기능을 한다. 비교격조사 ‘-처럼’은 ‘-같이’와 마찬가지로 ‘비유’의 의미 기능으로 나타나는데 조사 ‘-같이’보다 더 활발히 사용된다. 비교격조사 ‘-처럼, -처럼므’의 형태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될 때에 실현된다. 이때 비교격조사는 ‘비유’의 의미 기능을 한다.

<격조사 교체>

연변 지역어에는 구격조사, 향격조사, 처격조사의 자리에 목적격조사가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된다. 본고는 이런 현상을 문장 구조에 의한 격조사 교체로 보고 그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를 살펴보았다.

<격조사별 대명사구의 형태 교체>

의문대명사 ‘뉘기’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공동격조사, 비교격조사와 결합할 때 ‘뉘기’, ‘니기’, ‘누기’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어디’는 주격조사를 제외한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처격조사, 향격조사, 비교격조사, 공동격조사에 결합되었다. ‘어디’는 이들 격조사와의 결합에서 ‘어디메’, ‘어드메’의 형태로 나타났다. ‘얼마’는 격조

사와의 결합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얼마’는 목적격조사, 처격조사와 결합할 때 ‘얼 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의문대명사 ‘무엇’은 격조사와 결합할 때 ‘머이’, ‘머어’, ‘무스게’, ‘무시게’, ‘무스거’, ‘무승거’의 형태로 나타났다.

일인칭대명사 ‘나’는 목적격조사와 결합할 때 ‘나’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격조사와의 결합에서는 모두 ‘내’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인칭대명사 ‘너’는 격조사와 결합될 때 ‘니’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연변 지역어 이인칭대명사에는 ‘제(彼)’는 격조사와 결합될 때 ‘제’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저’의 형태로 나타났다.

연변 지역어의 인물지시대명사에는 ‘애’, ‘개’, ‘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야아’, ‘가아’, ‘자아’가 있다. 지시대명사 ‘야아’, ‘가아’, ‘자아’는 주격조사, 관형격조사와 결합될 때 격조사가 표면 구조에 나타나지 않고 ‘야아’, ‘가아’, ‘자아’로 나타났다. 목적격조사, 처격조사, 공동격조사, 비교격조사와 결합할 때 격조사가 표면구조에 나타나고 지시대명사는 ‘야’, ‘가’, ‘자’로 나타났다. 사물지시대명사에는 ‘이것’, ‘그것’, ‘저것’이 있다. 사물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은 격조사와 결합할 때 음절말 자음이 탈락된 ‘이거’, ‘그거’, ‘저거’의 형태로 사용된다. 연변 지역어에서 장소지시대명사 ‘이기’, ‘거기’, ‘저기’는 격조사와 결합될 때 ‘이기메’, ‘거기메’, ‘저기메’의 형태로 나타났다.

본고는 중국 연변 지역어 격조사에 대한 연구가 북한 문법서에 의존한 규범에 대한 논의나 문어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인하여 간과되었던 구어체를 반영하는 격조사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지역에서 실제 사용되고 언어를 고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하여 지역어 연구 방법의 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변 지역어 격조사의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연변 지역어 격조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형태별 예문을 제시하던데 그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격조사 실현 양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

< 참고문헌 >

- 강명윤(1992), 『한국어 통사론의 제문제』, 한국문화사.
- _____ (1999), 「격배당의 문제」,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월인도서출판.
- 강영세(1986), 「이중주격어 구문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한국어학』, 4.
- 장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 _____ (2004). 「해체주의 관점에서 본 통신언어의 언어유희」, 『기호학 연구』, 16, 한국기호학회.
- _____ (2009), 『우리 안의 언어·우리 밖의 언어』, 태학사.
- 강희숙(1996). 「진도 방언의 /n/탈락 현상에 대한 고찰」, 『국어학』, 27, 국어학회.
- _____ (2001).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광주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7,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2003).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출판사.
- _____ (2003). 「중국 조선족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공시적 연구」, 『사회언어학』, 11.2, 한국사회언어학회.
- _____ (2010), 「/j/ 첨가와 전남방언 분화」,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 고광주(2003), 「국어의 격교체 구문 연구」, 『한국어학』, 18, 한국어학회.
- 고석주(2002), 「조사 ‘가’의 의미」, 『국어학』, 40, 국어학회.
- 김규식(1908), 『대한문법』, 油印本.
- 김기종·리영순(2006), 『조선어문법론』, 한국문화사.
- 김기혁(2002), 「국어 문법에서 격과 의미역할」,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 _____ (2005), 『언어의 생성과 응용』, 박이정도서출판.
- _____ (2005), 『언어의 인식과 분석』, 박이정도서출판.
- 김귀화(1988), 「국어의 격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94), 『국어의 격연구』, 한국문화사.

- 김동소·최희수·이은규(1994), 『한국전통문화연구』, 9,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목한(2001), 「근대국어의 격체계 연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 김민수(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1945~1990』, 녹진도서출판.
- 김수경(1954), 『조선어문법론(어음론, 형태론)』, 중학교 1,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김수경·김백련(1961). 『현대조선어2』,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 김수경·송서룡(1962). 『현대조선어3』,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 김승곤(1992), 『국어토씨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김영황(1990), 『조선어 방언학』, 한국문화사.
- 김영희(1973), 「한국어의 격문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9), 「사격 표지와 후치사」, 『국어학』, 34집, 국어학회.
- 김용하(1999),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한국문화사.
- 김원경(2007), 「의미격의 체계와 연산절차」, 『한국어의미학』, 24, 한국어의미학회.
- 김의수(2006), 『한국어의 격과 의미역: 명사구의 문법기능 획득론』, 국어학회.
- _____ (2007), 『문법 연구의 방법모색』, 박이정도서출판.
- 김준기(2002), 「격조사의 의미에 대하여」, 『어문학』, 71, 한국어문학회.
- 김재욱(2000), 「격조사의 기능에 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1), 「격조사의 기능에 따른 전형성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13, 한국외대한국어문학연구회.
- 김철호(2004), 「우리 력사 바로 알고 삼시다」, 『연변일보』, 2004.02.13-2005.12.23 사이에 발표된 총 94편의 기사.
- 김태엽(2001), 「주격조사 ‘-이가’에 대하여」, 『우리말글』, 21, 우리말글학회.
- _____ (2002), 「국어 문법화의 양상」, 『人文科學研究』, 24, 大邱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 김희찬(2000), 「한국어 말뭉치의 계량적 처리 절차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1960), 『조선어 문법1:어음론,형태론』, 평양과학원출판사.
- _____ (1963), 『조선어 문법2:문장론』, 평양과학원출판사.
-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광학술자료사.
- 남윤진(1997),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 림종률(1992), 『조선말력사문법』, 역락도서출판.
- 리귀배(1988), 『조선어문법리론』, 연변인민출판사.
- 리윤구(2003), 「우리 나라 조선어방언토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목정수(2007), 「한국어 조사 {의}의 문법적 지위와 의미 기능에 대하여」, 『국어교육』, 123, 국어교육학회.
- 문영호 외(1993), 『조선어 빈도수 사전』,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 미야지마미카(1998), 「연변조선어에 대한 나의 체험」, 『중국조선어문』, 6,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박명동(1996), 「주격조사‘-이가’」, 『새국어교육』, 53, 한국국어교육학회.
- 박승빈(1931), 『조선어학강의요지』, 경성: 보성전문학교.
- 박영준(1999), 「호격조사 ‘-이여’와 감탄문 종결어미」, 『語文論集』, 39, 안암어문회.
- 방언연구회(2003),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백낙천(2006), 「국어 조사의 범주와 의미」, 『한국언어문화』, 30, 한국언어문화학회.
- 서상규(1999), 『언어 정보의 탐구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서영섭(1981), 『조선어실용문법』, 중국요녕인민출판사.
- 서정섭(2005), 「중국 엔벤 조선어 연구」, 『한국어 의미학』, 16, 한국어의미학회.
- 석주연(2007), 「개화기 초기 국어의 형태와 통사」,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 _____ (2008), 「국어 형태의 통시적 변화와 문맥」, 『한국어교육』, 126, 한국어교육

- 학회.
- _____ (2010), 「조선시대 한글 문헌의 간행 경위와 배포 양상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한민족어문학회.
- 성광수(1978), 「국어 조사에 대한 연구-생성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_____ (1985), 「국어 격형과 의미자질-‘-에’와 ‘-로’에 대한 재검-」, 『우암 박병채 박사 기념논총』,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 _____ (1999), 『격표현과 조사의 의미』, 월인도서출판.
-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박이정도서출판.
- _____ (1998), 「국어 상징부사어와 공기어 제약」, 『한국어 의미학』, 3, 한국어 의미학회.
- 송복승(1995), 『국어의 논항 구조 연구』, 보고서.
- 신창훈(2002), 「국어 조사의 연구」, 『국어국문학』, 71, 국어국문학회.
- 신희삼(2004), 「인터넷 통신언어의 어휘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15, 한국어 의미학회.
- 엄정호(2000), 「조사의 범주 특성」, 『형태론』, 2-1, 편집진.
- 여승주(2005), 「국어의 목적어-주어 인상에 대하여」, 『한국어학』, 26, 한국어학회.
- 연변교육출판사 조문편집실(1984), 『중학생조선어실용문법』, 연변교육출판사.
- 연변교육출판사 조선어문조(1972), 『조선어문법(형태론)』, 연변교육출판사.
- 연변대학 중문학부 조선어교연조(1974), 『조선어문법』, 연변대학출판사.
- 유하라(2002), 「현대국어 조사의 배열 양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혜원(2002), 「국어의 격 교체 구문의 연구-한영 기계 번역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 _____ (2003), 「국어소형문의 발화행위에 대한 고찰」, 『한글』, 259, 한글학회.
- _____ (2008), 『국어 의미론』, 역락도서출판.

- 이기갑(2000), 「국어 방언의 조사 체계」,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 _____ (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기동(1999), 「조사의 방언학적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도서출판.
- 이기백(1958), 「주격조사 “이”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1994),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 국어학총서12.
- 이남순(1998), 『격과 격표지』, 월인도서출판.
- 이상규(1990), 「경북방언의 격어미 형태 구성과 기능」, 『어문론총』, 24, 경북어문연구학회.
- _____ (1999), 『경북방언 문법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이상섭(1990), 「몽치언어학: 사전편찬의 필수적 개념」, 『사전편찬학연구』, 3, 형설출판사.
- 이성연(1999). 『대화의 기법』, 조선대학교 출판부 .
- _____ (1999). 『중세국어의 이해』, 조선대학교 출판부 .
- _____ (2000). 「북한 고빈도어의 어휘 체계와 양상」, 『언어학』, 대한언어학회.
- _____ (2003). 「중국에서 한국어의 언어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65, 한국어교육학회 .
- 이익섭(1981), 『영동 영서의 언어 분화』, 서울대 출판부.
- _____ (200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도서출판 .
- 이정택(2004), 『현대 국어 피동 연구』, 박이정도서출판.
- 이지연·강민국·윤정원(2008), 「근대 계몽기의 격조사 목록과 기능 연구」,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 이희승(1947), 『조선어학논고』, 을유문화사.
- _____ (1949), 『초급국어문법』, 박문출판사.
- 임규홍(2000), 「컴퓨터 통신 언어에 대하여」,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

- 임동훈(2002), 「한국어 조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 _____ (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국어학회.
- 임채경(2007), 「격이론과 의미격」, 『언어과학연구』, 40, 언어과학회.
- 임홍빈(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_____ (1997), 『북한의 문법론 연구』, 한국문화사.
- _____ (2003), 「한국어 구문 분석의 원리와 몇 가지 문제」, 『시학과 언어학』, 6, 시학과 언어학회.
- _____ (2007), 「한국어 무조사 명사구의 통사와 의미」, 『국어학』, 49,
- 장유진(2005), 「국어 격조사의 의미 기능 연구」, 『돈암어문학』, 12, 돈암어문학회.
- 전영근·최희수(2000), 「계량학적으로 본 잡지에서의 격토의 사용」, 『중국조선어문』, 105,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정용호(1988), 『함경도방언연구』, 교육도서출판사.
- 정인승(1956), 『표준 고등말본』, 신구문화사.
- 정향란(2008), 「중국 연변 용정 지역 한국어의 곡용과 활용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선문화어문규범편찬위원회(1976), 『조선문화어문법규범』, 김일성대학출판부.
- 조선어문연구회(1949), 『조선어문법』, 평양조선어문연구회.
- 차광일(1981), 『조선어토대비문법』, 료녕인민출판사.
- 천시권(1982), 「蔚珍方言의 格 에 對하여」, 『국어교육연구』, 14, 국어교육연구회.
- 채완(2006), 「국어의 격과 조사-최근의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盈德郡 寧海面을 中心으로 -』,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윤갑(1980), 『조선어문법』, 연변교육출판사.
- _____ (2006), 「중국에서의 조선어문법연구」, 『중국조선어문』, 1,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최재희(2000). 「국어 중복 표현의 유형과 의미 구조의 특성」, 『국어학』, 36, 국어학회 .
- _____ (2001). 『국어 교육문법론』, 조선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_____ (2007), 「‘NP-에(서)/를’ 교체 구문의 분석」, 『한국언어문학』, 60,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2009), 「무조사 명사어구 구문의 통사 구조」, 『한국언어문학』, 68, 한국언어문학회.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 최화(2007), 「중국 조선족 통신언어 연구」, 조선대학교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0), 「중국 연변 지역어 처격조사의 의미기능에 대한 연구」, 『인문학연구』, 40,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필옥덕(1993), 「자연언어분석기술-내면격문법」, 『중국조선어문』, 67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 하길중(1999), 「비교격에 관하여」,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유희), 월인도서출판.
- 한국어학회(1999),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도서출판.
- 한영목(2008), 『충남 방언 문법』, 집문당.
- 한영순(1967), 『조선어 방언학』, 종합대학 출판사.
- 한용운(2001), 「국어의 조사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3), 『언어 단위 변화와 조사화』, 한국문화사.
- 홍윤표(1974), 「주격어미 ‘-가’에 대하여」, 『국어학』, 3, 국어학회.
- _____ (1979), 「國語의 助詞」, 『언어』, 제4권 제2호, 한국언어학회, 143-180.
- _____ (1984), 「현대국어의 후치사 {가지고}」, 『동양학』, 14,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 _____ (1994), 「奎章閣 所藏 近代國語 文獻資料의 綜合的 研究」, 『한국문화』, 15, 서

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55.

한정한(2003), 「격조사는 핵이 아니다」, 『한글』, 260, 한글학회.

홍종선(1999), 「생성문법과 국어의 격」,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유휴), 월
인도서출판.

한진건(2003), 『륙진방언연구』, 역락도서출판.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황국정(2005), 「조사 ‘-로’의 ‘대상성’에 관한 통시적 연구」, 『형태론』, 3-1, 편집진.

황대화(1986), 『동해안방언연구—함북, 함남, 강원도의 일부 방언을 중심으로—』, 김
일성종합대학출판사.

_____ (1998), 『조선어 동서방언 비교연구』, 한국문화사.

Chapin, P.G.(1972), Review of 'Integration of transformational theories on English
syntax' by R.P. Stockwell, P. Schachter & B.Partee. Language 48,
645-67.

Chomsky, N.(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Press.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Fillmore, C.(1968), "The Case fore Case", In Bach & Harms(1968).

저작물 이용 허락서

| | | | | | |
|---|---|-----|----------|-----|----|
| 학 과 | 국어국문학 | 학 번 | 20077722 | 과 정 | 박사 |
| 성 명 | 한글: 최화 한문 : 崔花 영문 : CUI HUA | | | | |
| 주 소 | 광주 동구 서석동 375번지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 | | | |
| 연락처 | E-MAIL : cuihua80@hanmail.net | | | | |
| 논문제목 | <p>한글 : 중국 연변 지역어 격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영어 :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Case Marker in Yanbian region of China</p> | | | | |
| <p>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여부 : 동의(O) 반대()</p> <p style="text-align: center;">2011년 07 월 08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저작자: 최화 (서명 또는 인)</p> <h2 style="text-align: center;">조선대학교 총장 귀하</h2> | | | | | |